

忠南地名由來集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8969

忠 清 南 道

780 64400
2. 86760
C13 37

忠南地名由來集



AM18969

忠 清 南 道

廣東省立圖書館

408.000

9898/MA

發 刊 辭



우리 民族의 자랑스런 文化遺産의 하나인 固有의 地名은 우리들의 生活周邊속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地方 住民들의 意識과 生活樣式에 큰 影響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地名은 “그 土地의 歷史와 그 곳의 地理를 말한다”는 말과 같이 그 속에는 오랜 歲月을 통하여 先祖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歷史·文化·傳說·風俗등이 서려 있고, 그 地方 特有의 自然環境과 風土 및 生活 모습이 담겨 있는 所重한 無形文化財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精誠을 다하여 向嚮을 찾아 짓듯이 우리 先祖들은 땅의 이름도 村落의 特徵이나 部落의 歷史的인 傳統性, 部落周圍의 形狀, 마을의 오랜 慣習이나 氣候·土產物·交通關係등 모든 面을 考慮하여 불러 왔기 때문에 그속에는 우리 先祖들의 슬기로운 叡智가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急速한 社會變動으로 地名에는 많은 變化가 있었지만, 地方主導의 開發時代를 맞이하여 地名의 由來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일은 여러모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祖上들의 삶의 智慧를 오늘에 되살려 地域特性에 適合한 開發行政의 方向을 摸索하고, 자랑스런 忠南建設의 實體具現을 앞당기는데 이 冊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1991. 12.

충 청 남 도 지 사 한 청 수

目 次

第1章 地名의 由來	5
1. 地名의 意義	7
2. 地名의 生成過程	9
3. 地名의 變遷過程	12
4. 地名과 地域開發	14
第2章 市・郡別 地名由來	17
1. 天 安 市	19
2. 公 州 市	33
3. 大 川 市	43
4. 溫 陽 市	51
5. 瑞 山 市	59
6. 鷄龍出張所	67
7. 錦 山 郡	79
8. 燕 岐 郡	93
9. 公 州 郡	103
10. 論 山 郡	119
11. 扶 餘 郡	133

12. 舒 川 郡	145
13. 保 寧 郡	159
14. 青 陽 郡	171
15. 洪 城 郡	185
16. 禮 山 郡	199
17. 瑞 山 郡	211
18. 泰 安 郡	223
19. 唐 津 郡	233
20. 牙 山 郡	251
21. 天 安 郡	261

〈 附 錄 〉 277

○ 風水地理 理論 279

1. 風水의 概要 279

2. 風水地理說의 歷史 280

3. 風水地理說의 基本原理 284

4. 陰宅風水理論 285

5. 陽宅風水理論 295

○ 風水用語 解説 305

第1章 地名의 由來

第1章 地名의 由來

1. 地名의 意義

사람에게 姓名이 있듯이 땅에는 地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이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 곳이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지명에는 固有性이 있으면서도 같거나 비슷한 동아리의 어떤 이름들은 있는 자리는 달라도 그들 由來에서 오는 内容이 共通性을 띠는 것도 있다.

地名에는 무엇이 들어 있으며 地名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두드러진 내용 몇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㉑ 地名에는 歷史가 있다.

- 땅이름이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 고장의 歷史다.

도중에 바뀐 이름들은 바뀐대로 歷史變遷의 一面을 일러주며 바뀌지 않은 이름은 맨 처음 歷史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즉, 땅 이름은 그 고장 歷史變遷을 따라 바뀌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고 할수 있다.

㉒ 地名에는 땅모양이 있다.

- 땅이름중에는 여러가지 自然의 생김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는

대,

예를 들면 산(山·嶽·峰), 고개(嶺·峴·峙·帖), 골짜기(谷·溪), 들(野·坪·原), 강(江·川·水), 호수(湖·淵·池·沼·潭), 우물(泉·井), 바다(海·岸·浦·灣), 곳(串·岬·崎), 섬(島·洲)등과 같은 것이다.

㉔ 地名에는 生活이 있다.

- 땅이름을 살펴 보면 우리 祖上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가를 엿볼 수 있다.

땅이름은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겨레가 살아온 지난 날의 生活狀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땅이름 속에는 風俗, 宗教, 風水, 産業, 交通, 交易, 安保 등 時代와 階層에 따라 變貌하는 生活에 얽힌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다.

㉕ 地名에는 옛말이 있다.

- 땅 이름은 말로 이루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옛 땅 이름은 모두 옛 말로 이루어져 있다.

現在의 이름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옛 말에서 변해온 말임을 알 수 있다.

2. 地名의 生成過程

地名을 짓는 데에 歷史的인 背景이나 社會的인 背景이 있게 마련이다.

또 땅의 꼴(形態)이나 곳(場所)에 따라 짓기도 하고 한번 지은 땅이름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가 달라 지거나 (音韻變化가 일어나거나) 形態가 달라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잘못 전해짐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또 純粹한 우리말을 漢字말로 번역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번역할 때 잘못 옮기거나 記錄을 잘못해서, 때로는 漢字나 우리말의 맞춤법 表記을 잘못해서 달라지는 境遇도 있으며, 뜻의 變化 또는 弱화에 따라 달라지거나 語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땅에 地名을 명명할 때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先祖들이 村落의 특징적인 것이나 部落의 역사적인 전통성, 부락 주위 환경의 형상이나 마을의 오랜 習慣, 習俗, 氣候, 土產物, 交通關係등을 참조하여 명명했기에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뜨거운 숨결이 숨어있는 것이다.

㉞ 地理에 따라 지은 땅이름

- 땅이름은 이곳 저곳을 가리켜 生活을 便利하게 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느위치 있느냐에 따라 붙인 境遇가 많다.
〈例〉 건넛말, 아랫말, 구억말(구억은 구석의 방언), 새터말

㉔ 꿀(形態)에 따라 지은 땅이름

- 땅이름을 붙이는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 저기를 가리키는 자리에 따라 붙이는 方法이 제일 많다. 그리고 그 곳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꿀(形態)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境遇도 꽤 많다.

〈例〉 大安里, 大外, 小外, 馬頭, 다락말, 各谷(각곡)

㉕ 遺物, 遺蹟 및 建物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방아머리, 舍廊말, 學校마을, 蘇堂, 瓦村堂재, 旌門골, 倉말

㉖ 動物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鷗津, 뱀(蛇)골, 龍골, 여숫골(여수는 여우의 방언)

㉗ 植物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蓮花洞, 버들미, 松潭, 桃花洞, 華陽洞

㉘ 觀念的으로 지은 땅이름

- 閑寂골, 隱谷, 德睦理, 靜默골

㉙ 傳說에 얽힌 땅이름

• 銀 城：銀으로 쌓은 성이 있다하여 붙인 이름

• 팔죽재：옛날에 忠淸道에서 서울로 가는 나그네에게 팔죽을 해서 팔
던 마을

㉠ 사람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大朴洞, 고아촌, 韓村, 상짓(常地)말 (상놈들이 살던 마을)

• 班村(兩班이 살던 마을), 長者못골(부자가 살던 마을)

㉡ 땅의 性質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칠촌(漆村)：용기를 굽는 材料인 점토가 있는 마을

• 하 (下)들：土質이 좋지 않은 논이 있는 마을

㉢ 물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冷井：찬 우물이 있었던 마을

㉣ 風水地理에 關聯지어 지은 땅이름

• 臥牛각골：소가 누워있는 形狀의 골짜기

• 蓮花浮水形：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形局

3. 地名의 變遷過程

원래의 지명이 변화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첫째, 발음의 부정확이 그대로 변화조건이 되고 둘째, 音借·訓借등에 의한 변화 셋째, 주민에 의한 恣意的인 同音牽引 넷째, 內緣的 의미에 대한 잘못된 分析에 의한 변화 다섯째, 지명통합에서 각각 한자씩 취합 대체하는 일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原語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地名語를 좀더 심층분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명명의 조건이 된 지리환경이나 그 지방의 특수한 모든 현상이 배어 있는 것, 즉 類緣性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의 지명이 신라 경덕왕때에 중국 唐制度의 영향을 받아 정치사상과 더불어 큰 개편을 하는데, 이때 우리 고유의 지명을 모두 漢字 지명으로 바꾸어 우리 전통의 일을 무시한 사대주의성 지명이 되고 말았다.

그 후 계속하여 고려, 조선왕조 때에 제2차·제3차 지명개혁을 하였고, 다시 1914년 일제에 의해서 전국적인 읍·면·리지명을 개편하였는데 본래의 목적은 일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한국인의 전통일을 말살시키거나 대륙침략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통제가 주목적이었다.

그후 80여년 동안 해방과 더불어 국력이 신장되고 인구가 급증하고 간척이 이루어지는 등 수많은 이유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지명이 新設, 消滅, 誤用, 變質되어 왔다.

이와같이 오랜세월을 통해서 誤用된 지명, 일본식 지명, 1,2,3,4와

같은 숫자로 나열된 지명, 동서남북과 같은 방위 지명등은 지역주민, 지방행정종사자, 관계전문가등의 심층연구에 의하여 하루빨리 좀 더 민
족문화다운 지명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4. 地名과 地域開發

지명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조상들의 일이 담겨져 있으며 國土利用에 관한 未來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錦山郡 錦山邑 陽地里에서 南二面으로 넘어 가는 고개에 “수레(車)너미 고개”가 있다. 수레너미 고개는 진악산을 넘는 고개인데 1984년 오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진악산 관통도로가 개설되어 이 고개로 차가 다니게 됨에 따라 수레(車)너미 고개라는 이름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또 이웃 秋富面에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뜻의 龍池里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연못이 없음에도 자연부락 역시 윗못골(上池洞)과 아랫못골(下池洞)로 불려오던중 1950년대 이곳에 地洞貯水地가 생겨서 글자 그대로 못골이 되었다.

또한 舒川郡 花衿里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옷”이 나오는 마을이라 하여 꽃화(花), 옷깃금(衿)자를 붙여 花衿里라 하였다 하는데 이곳에 風井産業이라는 비단옷감을 짜는 織造工場이 들어서서 비단을 生産해 내고 있어 地名과 신비스럽게도 一致하고 있다.

또 이웃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에 飛上里가 있고 인근 청주시 강서동에 飛下里라는 마을이 있다. 그런데 이곳이 청주 국제공항의 입지가 되면서 비상리와 비하리의 위치가 항공기가 바람을 안고 이·착륙해야 하는 방향까지도 정확히 내다 본 듯한 위치가 되어 화제가 된바 있다.

북일·북이면 일대 수백만평에 펼쳐지는 대 활주로는 비상리와 비하리를 축으로 뻗게 되는데 여기서 비상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곳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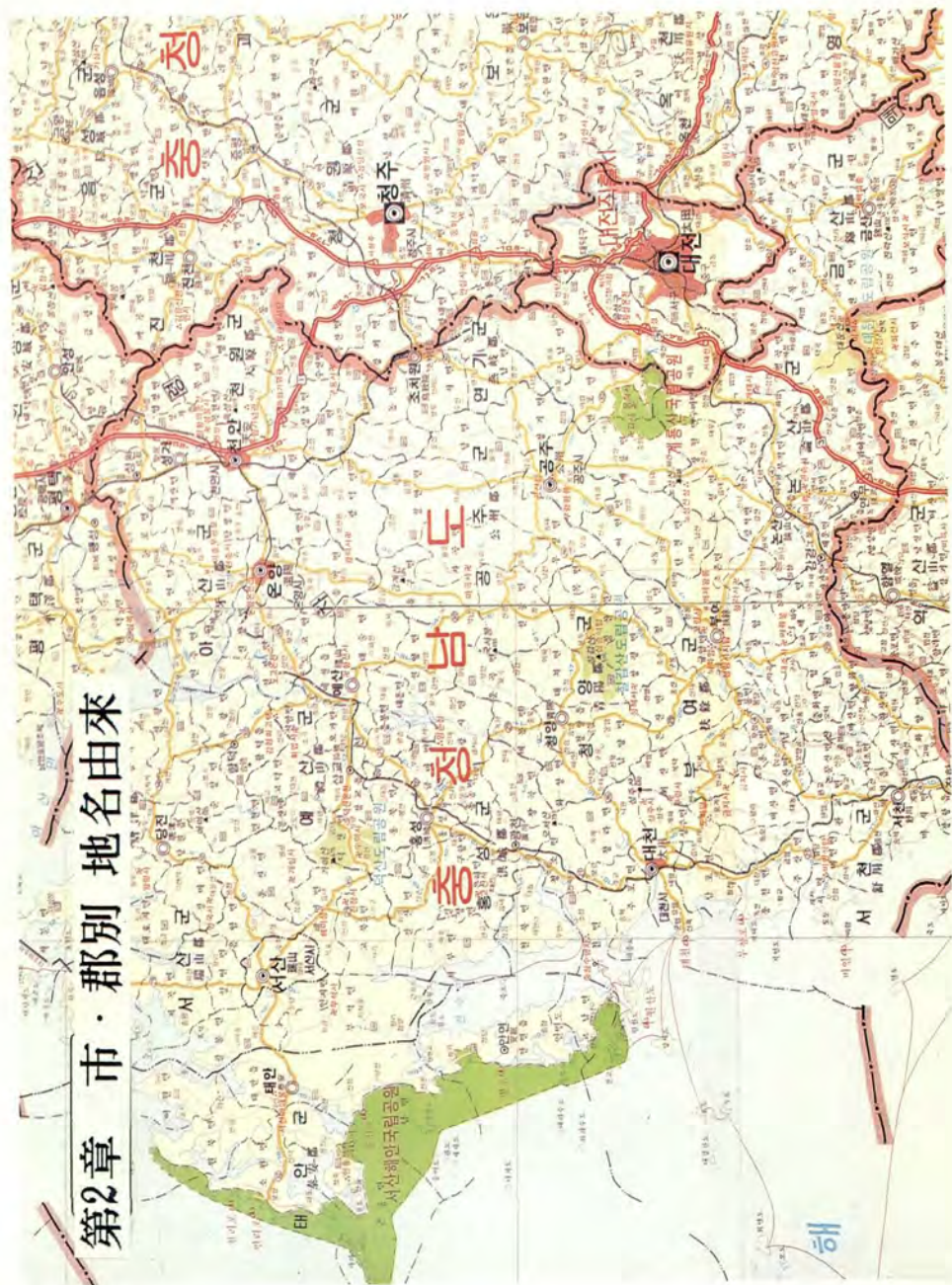
고 비하리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이 된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위치와 지명이 신기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와 같은 예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와 같은 예들이 모두 선조들의 미래의 국토이용에 대한 선견지명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牽強附會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땅은 사람의 삶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기에 땅과 사람의 인연으로 인하여 사람은 땅에, 땅은 사람에 오래오래 길들여져 오고 여기에 조상들의 자연관·내세관이 지명에 깃들여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지명에는 그 지역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전망까지도 내포된 立地論的 의미가 많다.

따라서, 지명에 담긴 옛 조상들의 얼과 자취를 살펴 보고 그 立地論的 의미를 되살리는 일은 보다 합리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第2章 市・郡別 地名由來



天 安 市



[面積・人口]

面積：83.45 km ² (耕地：31.32 林野：31.79 工場用地：1.1 其他：19.24)	
人口：211,382名	('91. 9. 30. 현재)

[沿革]

- 高麗 建國(918) 이전에는 도솔이라는 지명으로 동도솔과 서도솔로 나누어져 있던 고을을 高麗 太祖가 三國의 요충지라 하여 두개의 도솔을 하나로 합쳐서 天安府로 昇格시켜 變化를 거듭하다가 태종 13년(1413)에 天安府를 郡守都로 策定 寧山郡이라 改稱하였다가 1416년에 다시 天安으로 改稱, 1920년에 面施行에 따라 天安郡이 天安面이 되고, 1931년 天安面이 天安邑으로 昇格되었다가, 1963년에 10個 出張所를 管轄하는 天安市로 昇格되었다. 1975년 出張所 廢止와 함께 10개 出張所가 10個洞(大龍, 文城, 南山, 院城, 星村, 雙鳳, 新龍, 靑龍, 新安, 富城洞)으로 改稱, 1985년 院城洞을 1洞과 2洞으로 分洞하면서 現在 30個 法定洞과 11個 行政洞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歷史的 特性

- 天安은 五龍爭珠형의 요충지로서 太祖 왕건이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루

기 위하여 準備하고 訓練한 곳이며 본래 東西 兩도술의 땅이 었으나 高麗 태조가 統合하여 天安府를 設置하였다. 그 後 일시 歡州, 寧山등으로 개칭되기도 하였으나 朝鮮初에 다시 還元되었으며 三南 交通의 中心地이며 天安삼거리 흥타령으로 유명한 곳이다.

㉞ 地理의 特性

- 天安은 地理의으로 車嶺山脈의 北麓 中央부에 發達된 丘陵地帶로 忠南 西北部의 關門 및 首都卷을 連繫하는 交通要衝地이며 忠南 首都都市로 行政, 教育, 文化, 交通의 中心 役割이 期待 된다.

[地域의 特記事項]

太 祖 山

高麗 太祖 왕건의 傳說이 깃든 太祖山은 風水地理상 五龍爭州形, 즉 다섯마리의 龍이 여의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형의 명당 길지라 하여 이곳에 三千戶邑을 設置하여 軍士를 訓練하면 後百濟가 장차 항복 하리라 하여 高麗 太祖가 직접 산에 올라 두루 살피고 天安府를 設置하였다 하여 太祖의 명을 따라 太祖山이라 稱하였다 하며 이 곳에 城을 쌓아 10만 軍士를 주둔시킨 후 後三國을 統一하였던 요충지의 산이다. 또 온겨레의 염원인 南北統一을 祈願하기 위하여 東洋最大의 靑銅坐佛象이 안치되어 있는 산이기도 하다.

이 불상까지 오르는 계단은 203계단으로 되어있는데 203계단은 佛敎에

서 말하는 108煩惱의 108階段과, 觀世音보살의 32화신을 뜻하는 32段階, 아미타불의 48所願을 뜻하는 48계단, 佛教에서 말하는 12가지의 인연을 뜻하는 12계단, 佛·法·僧 삼보의 3계단을 합한 것이라고 한다.

또 당초 불상을 설계한 최기원 교수의 꿈에 아미타불이 나타나 「팔이 아프니 오른팔을 들게하여 달라」고 하므로 이상하다 여긴 최교수가 문헌을 찾아 보니, 아미타불은 보통 불상과는 달리 오른 손을 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설계·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太祖山은 高麗 太祖가 三國統一을 위하여, 現在는 南北統一을 위하여 祈禱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천 안 삼 거 리

천안에 들러 삼거리라는 곳을 찾으면 능수버들이 우거진 연못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옛날에는 주막이 있었고, 삼남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었으며 천안삼거리 민요로도 알려진 이름난 곳이다.

조선 초엽 경상도 안동 땅에 안동김씨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안에는 성년을 앞 둔 아들 둘이 있었다.

하나는 집주인 형의 아들인 갑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 주인의 아들인 을동이였다. 그들이 자라서 늙름한 청년이 됐을때의 이야기다.

을동에게는 여기저기서 많은 혼처가 생겼다. 그러나 갑동이는 글 읽기를 좋아할 뿐 결혼을 서두르는 편이 아니었으므로, 갑동이 보다 나이가 한 두살 아래인 을동에게 많은 혼담이 오간 것이었다. 을동이 아버지는

이곳저곳의 흔처를 살피다가 천안 이진사 딸에게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과거보러 떠나는 갑동이와 장가가는 을동이를 데리고 안동을 떠나 천안에 닿아 천안 삼거리에서 하룻저녁을 묵게 되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같은 방을 쓰고 을동이 아버지는 다른 방을 쓰게 되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잠이 들었다. 밖이 시끄럽고 햇살이 밝아 갑동이가 눈을 떠 보니 곁에서 잠자던 을동이는 없어지고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뜯어 보았다. 사연인즉 형님이 동생보다 먼저 장가가는 것이 원칙이니 형님이 이진사 딸과 먼저 결혼 하라는 내용과 자기는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겠다는 사연이었다.

갑동이가 그 편지를 옆 방 작은 아버지께 보이니 「사람이 신의를 버릴 수 있겠느냐?」고 화를 내며 안동으로 홀로 떠나고 말았다. 주막에 혼자 남은 갑동이는 「과거를 먼저 볼까? 동생 말대로 장가를 먼저 갈까?」하고 갈림길에서 한참 생각하다가 어차피 두가지다 해내야 할 문제라 을동이 말대로 장가를 먼저 가기로 했다. 마침 한양으로 과거보러 간다는 전라감사의 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누고 술상을 함께 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얘기하며 후행 갈 사람이 없으니 후행으로 서 달라고 간청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이진사댁으로 떠났다. 갑동이는 이진사댁에 닿아 을동이인 척 예를 올린 다음 바로 전라 감사의 아들과 술상을 사이에 놓고 앉았다. 그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곧드레가 되도록 취했다. 그러자 갑동이는 신부방에 전라 감사의 아들을 밀어넣고 자기는 술그머니 신부집에서 빠져나와 주막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전라감사 아들은 눈을 뜨자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여기에 누워 있다니!」 허나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약혼한 사람 따로 있고, 장가간 사람 따로 있고, 신부방에서 첫 밤을 보낸 사람이 따로인 셈이었다. 한편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전라 감사는 이거야 말로 천생연분이라고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고, 갑동이를 오히려 자기 사위로 맞아 들였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 간 올동이는 과거를 보아 장원으로 합격되자 시험관이었던 어떤 대감이 그를 사위로 삼게 되었다. 그들이 생각해도 인연이란 이상한 것이었다. 천안 삼거리만 없었더라도 이런 인연이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천안 삼거리가 한편 고맙기도 했다.

그들은 결혼 후 자주 서신을 왕래하며 다정하게 지냈다. 후에 전라 감사의 아들도 과거에 급제하고, 갑동이도 과거에 급제하여 모두 벼슬길에 올랐다.

세월이 흐른 어느날, 그들은 모두 천안삼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모두 모였다. 천안 삼거리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라며 술잔을 기울이다가 기념으로 버드나무를 한그루씩 심기로 합의했다. 갑동이는 경상도 가는 길에 버드나무를 심고, 전라 감사 아들은 전라도 가는 길목에, 올동이는 한양가는 길 옆에 심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여기를 지날 때마다 버드나무를 정성껏 가꾸었다.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지금의 「능사야 버들아 흥-흥-」하고 부르는 능수버들의 천안 삼거리가 됐다 한다.

[地名의 由來]

□ 天安

- 天安이란 地名은 太祖왕건이 高麗를 建立한다음 太祖13년에 동도 술·서도술을 합하여 천안이라 처음 稱하였다 하는데, 도술이란 佛敎에서 관세음 보살이 居處하였다는 地域을 뜻하므로 숭불하던 太祖왕건이 도술의 뜻을 따서 하늘아래 가장 便安한 地域이라하여 天安이라 稱하였다고 한다.

□ 三龍洞 彈琴밑

- 옥녀봉의 옥녀가 예쁜 치마를 입고 무릎 위에 가야금을 올려 놓고 뜰고 있는 형상이라하여 彈琴밑이라고 하였던 것이 탄금밑로 변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수백년 전부터 탄금밑이라고 하였는데, 최근 이 자리에 고아원이 서고 풍금 소리가 나므로 탄금의 소리가 맞았다고 한다.

□ 淸堂洞 용마부도 (龍馬俯圖, 龍馬飛頭)

- 청수동 저수지의 동쪽에서 시작된 작은 구룡이 천안삼거리로 이어지는 곳이다. 낮은 구룡 생김새가 龍이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나는 형상이라 용마부도 또는 용마비두라고 한다. 이 곳은 옛부터 명당이 있어 사람을 안장하면 후손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설이 있다.

□ 清堂洞 巨才里

- 清堂洞에서 가장 큰 마을로 앞에는 천안군 풍세면의 구룡봉, 뒤에는 일봉산과 월봉산이 비쳐서 인제가 많이 난다하여 巨才리라 부른다.

본래 이 마을은 土城山 土城과 露積峰의 土城사이에 있는 마을로 居城이나, 거성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서 居(살거) 城(재성)의 뜻이 거재다.

□ 新堂洞 수렁골 (濕谷)

- 검배방죽(신당동 저수지)이 있는 골짜기, 수렁논이 많아서 수렁골이다. 수렁이란 습기가 많은 늪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심한 곳은 사람이나 짐승이 늪에 빠지면 그대로 파묻혀 죽게되는 경우도 있다.

□ 白石洞 서밭대이 (諸밭)

- 백석동리의 앞뜰을 말한다. 옛날에는 가뭄에 물대기가 어려워 감자를 많이 심었다고하여 서밭이 되었다. 또는 조나 수수를 심었다고 수수밭이라고 하여 서밭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 白石洞 大谷 (큰골)

- 현재 농공단지가 들어선 자리인데, 골짜기가 커서 큰골(大谷)로 불리어 왔는데 글자 그대로 큰골이라 큰 공장이 많이 들어 섰다.

□ 白石洞

- 옛 천안군 군서면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흰 돌이 많이 있으므로 흰 돌, 한돌이라 부르다가 백석동이라 부른다.

□ 雙龍洞 冷泉

- 차돌고개에 있는 샘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차서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하여 냉천이라 부른다. 옷을 올린 사람들이 목욕하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옷샘으로도 불리며, 피부병에 고생하는 사람도 이 물에 3번만 목욕하면 낫는다고 하며, 해가 지면 사람들이 많아서 물탕거리라고 하였다.

□ 安棲洞 무너미고개

- 안서동에서 성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낮아서 이쪽 물이 저쪽 성거면으로 넘어 가게 된다고 하여 무너미고개라 부른다. 무너미란 물이 넘어 간다고 하여 본래 물넘이다. 최근 계곡 상류에 무너미 방죽이 만들어져 고개 너머로 물이 넘어 가리라고 생각치 못했던 고개에 물이 넘어 가므로 그 지명에 대한 예언이 실현됐음을 알 수 있다.

□ 安棲洞 쉴터 (休垆)

- 각원사를 올라가는 연못아래의 터,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되었다.

정류장이 되기 이전부터 쉼 터라고 하였으니 지명이 맞아든 셈이다.

□ 安棲洞 응달말

- 응달마을의 변음이다. 상암마을의 길갓마을이라 뒤로 대감산이 막혀서 오후에는 그늘이 지고 일조시수가 짧아서 항상 그늘진 마을이라 응달말이다.

□ 留糧洞 분톳골 (盆谷：둔텃골, 분토골)

- 유량동 서쪽 왕자산 아래에 있는 마을, 마을의 생김새가 분(盆)과 같이 오목하고 아늑하다고 하여 분곡이라고 하였다. 조선 인조때 학자 이승벽이 이 곳에 살면서 마을이름을 따서 호(號)를 분곡이라 하였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옛날 시멘트가 없을때 부엌이나 뜰을 칠하는 도료(塗料)가 분토(粉土)였다. 이 분토가 많이 난다고 하여 분토골이라고 하였다고 전하며, 지금도 분토가 많이 나오고 있다.

□ 留糧洞 양달말 (陽洞)

- 분톳골 동쪽에 있는 마을, 아침 햇살을 받을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종일 햇볕을 받는 마을이라 양달마을이라 하였다.

□ 오룡동 (五龍洞)

- 1920년 지방행정구역 변경으로 읍내리 일부를 갈라서 왜식 동명으로

옥정(旭町) 이라고 하였다가, 1946년 해방후 왜식동명을 없애고 오룡쟁주의 풍수지형설에 따라 천안의 중심부이기에 오룡동이라 하였다.

□ 業成洞 감나무골 (柿木洞)

- 선바위 (입암) 서북쪽에 있는 마을, 천안군 직산면 마정리로 통한다.

옛날에는 아산의 백석포와 평택지방으로 가는 큰 길이다. 마을의 북서쪽에 산이 가로막아 북풍을 막아 주어 감나무가 잘 자란다. 따라서 감이 많이 생산되므로 감나무골이라고 하였다.

□ 業成洞 찬샘 (冷泉 : 옷샘)

- 온수골 막바지 선바위산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우물,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고 겨울에는 온천물과 같이 따뜻하다. 우물 주변에는 한겨울에도 풀이 죽지않고 파랗게 살아서 신기하게 보인다.

□ 車岩洞 수리터 (수레터 : 車垆)

- 차암동에서 가장 큰 마을로 마을 전설에 의하면,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산만에 상륙한 청군이 많은 전쟁물자를 마차에 싣고 이 곳을 지나다가 고장난 마차를 고쳐 줬다고 하여 수리터 또는 마을의 생김새가 수레(車)와 같다 하여 수렛터라 하였다고 전한다.

다른 말에 의하면 마을 뒷산에 많은 차돌(고령토)이 박혀있어 도자기 원료로 반출되면서 차돌이 나왔다고 차돌백이라는 말이 변하여 차

대(車垜)가 되었다고 한다.

□ 佛堂洞 불뭇골 (풀무골)

- 동리의 모습이 풍구(風具)와 같다하여 풀무골이라 하였다는 傳說이 있으나, 傳說과는 달리 실제로 석을 달구던 대장간이 많았다. 그래서 治洞이라고도 하였고 垜洞이라고도 하였다.

□ 鳳鳴洞 개목 (개미목)

- 마을의 地形이 개미의 목처럼 생겼다고 개미목이라고 하였다. 또는 개목은 犬項이라고하여 개의 목과 같이 생겼다고도 전한다.

개목마을의 形成은 시대적으로 보아 天安市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미 先史時代에 이루어졌다.

公 州 市



[面積 · 人口]

面積：75.99 km²(耕地：17.1 林野：46.4 工場用地：0.05 其他：12.44)

人口：65,195 名

(’91. 9. 30. 현재)

[沿革]

• 上古時代의 기록으로 說話에 곰나루로 전해내려오는 公州는 그후 熊川, 熊津州, 懷道, 公山, 錦城, 公州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오늘의 公州市가 되었다. 百濟의 熊川으로 文周王때 천도, 聖王까지 63년간 百濟의 王都였으며, 高麗 太祖때 지금의 公州로 개칭. 세종때에 鎭을 두었다가 1895년에 公州府가 되고 익년 전국을 13道로 개칭되면서 忠南의 道廳 소재지가 되었다가 1931년 道廳이 大田市로 이전하기까지 1400여년간을 지방을 다스리는 곳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또 山勢가 수려하고 아늑한 盆地에 錦江이 흐르고 천연적인 요새로서 옛날부터 문무백관이 많이 배출된 도시로 유명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東部面의 官峴 江景洞을 편입하여 공주면으로 개칭하였다. 1931년 도청이 대전시로 이전하면서 군청 소재지로서 옛지방을 다스리는 고을로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어 1933년에 公州邑으로 昇格하면서 外面의 錦城, 錦鶴, 玉龍, 儀堂의 4개리를 편입시켰다.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利仁面의 凡亭里, 舟尾里, 胎峯里, 梧谷里와 鷄龍面의 新其里, 巢鶴里, 上旺里와 그리고 長岐面의 武陵里, 月

松里, 新官里, 錦興里와 牛城面の 雙新里, 月尾里를 公州邑에 편입시키고 1986년에는 市로 昇格하면서 23개의 法定洞과 中學, 鳳凰, 山城, 熊津, 金鶴, 玉龍, 新官, 錦興洞의 8개 行政洞을 관할하고 있으며, 1987년 利仁面 檢詳里를 市로 편입하였다.

[地域의 特性]

㉓ 歷史的 特性

- 百濟22代 文周王 457年 때부터 26代 聖王 578년까지 5代 63年間 百濟의 首都로서 찬란한 民族文化의 꽃을 피운 由緒깊은 歷史 文化都市이며 武寧王陵, 公山城, 水源寺址, 新官石室古墳등 所重한 文化遺蹟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古代 日本文化에 큰 影響을 끼쳤으며 1910~1932년까지 道廳이 所在하고 있었던 忠南 行政의 中心地였다.

㉔ 地理的 特性

- 地理的으로 忠南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으며 低山間 丘陸地帶로 秀麗한 自然景觀과 調和를 이루며 錦江이 貫流하고 있고, 忠南交通의 中心地로 西海岸 時代의 배후도시로서의 役割이 期待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公山城

공주시의 북쪽에 산모양이 “公”字와 같이 생겼다하여 공산이라 부르는 산에 史蹟 第12號로 指定된 公山城이 있다. 이 城은 百濟 文周王이 熊津城에 定都한뒤 三斤王, 東城王, 武寧王등의 5大王을 거쳐 聖王이 사비성으로 천도할때까지 5대 63년간의 도읍이었다. 熊津城은 현재의 공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성으로 주의 약 3km, 동서 약 800m, 남북 약 400m의 타원형 城址이며 現在의 城벽은 대부분 朝鮮時代に 개축된 것이다.

백제시대 土城의 일부가 동쪽 광복루 부근에 남아 있고 성안에는 광복루, 공복루, 쌍수정, 진남루등의 누각과 쌍수정기적비, 명국상장비, 영은사등이 있으며, 광복루의 서쪽으로 東城王때 호화찬란했던 臨流閣址 진남루의 앞 넓은 터는 백제 궁정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공주시의 유일한 공원이 되고 있다.

武寧王陵

公州市 錦城洞 松峴에 사적 제30호로 지정된 백제 고분군에 있는데 백제 25대 武寧王의 陵이다.

이 陵은 1971년 7월 6일 松峴의 5호, 6호분의 제습작업과 보호를 위한 보수공사중 발견되어져 그해 10월 28일까지 4차례 걸친 발굴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그 면모를 드러냈다. 왕릉은 남쪽을 향하여 경사진 구릉에 위치하며 그 외형은 墳刑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墳丘의 형식은 圓形墳인바 그 직경은 복원되어 약 20m가 된다. 높이는 墓室의 바닥으로부터 墳丘의 가장 높은 곳까지 7.7m에 달한다.

墓室은 構築의 單室墓로서 평면이 남북으로 긴 長方形이고 전면 중앙에 羨道가 있다. 내부 규모는 남북길이 4.2m, 동서길이 2.72m이고 아치형의 천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 陵은 王과 王妃의 능으로서 출토된 부장품은 完形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발굴됨은 물론, 시대의 피장자가 밝혀질 수 있는 墓地石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陵에서 발견된 遺物은 總108種 2906여점에 이르고 현재 공주 박물관에 보관 전시 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公州

- 熊州의 명칭이 公州로 개칭된것은 고려 태조 23년의 일로서 公州의 “公”字의 由來에 대하여는 두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公州의 鎭山인 公山의 山形이 “公”字와 같으므로 그 산을 公山이라 부르고 公州의 公도 山의 公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公의音が 公과 유사한 때문에 쓰여졌다는 설로 종래의 熊州는 公, 公州 이 것이 좀 더 관념적·추상적이면서 音が 비슷한 公州로 바뀌었다는 설이 많은 편이다.

□ 金鶴洞 舟尾山

- 現在 公州市 金鶴洞 地域내에 있는 산을 舟尾山이라 부른다. 山의 높이
가 381m되는 山으로서 山의 모양이 배꼬리처럼 생겼다해서 舟尾山이라고
불렀는데 公州市의 地形이 배의 形局으로 이 곳이 배꼬리처럼 생겼으니 主
峰이 된다해서 舟尾山이라 부른다 한다.

□ 金鶴洞 天淵臺

- 公주시내남쪽에 있는 개울 동리 뒷산에 큰 바위가 한 개있다. 여기에 天
淵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옛날 서울에 사는 민관이라는 사람은 예
언가로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고관에 대한
예언이 술에 취해서 한것이기에 적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날 공주 개울 동리 뒷산에 올라가 먼 훗
날 이곳에 연못이 생길 것이라고 하며 바위에다 天淵臺라고 새겼다는 것
이다. 과연 세월이 흘러서 왜정시대에 이 지대에 수도여파지가 마련되어
민관의 예언이 맞았음을 증명 해 주었다는 것이다.

□ 金鶴洞 舟尾골

- 옛날의 고을은 대개의 경우 舟形으로 된 곳이 많은데 公州도 舟形에 속한
地形이다. 이는 도학적 해석보다 불교적 해석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公州의 舟形은 배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배가 바다에 떠 있는 形局이라
한다. 그 떠 있는 배의 뒷부분인 꼬리 부분을 차지한'곳이 이 곳이라 한다.

그래서 마을 지명도 舟尾골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 新官洞

- 옛 公州郡 東部面 地域으로서 옛날부터 官廳이 새로 들어설 자리라 하여 “新官洞”으로 불리어 왔으며 1914년에 梅山里, 日新里 등 7個 洞里를 併合하여 오늘에 이르며 現在 公州市 新市街地 開發地區로 確定되어 推進中이며 國立公州結核病院, 公州大學校, 農地改良組合, 公州市 保健所, 公州警察署, 新官派出所, KBS 公州放送局 등이 있다.

□ 熊津洞 물안주

- 하선다리 東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물안주라 부른다.
地形이 꼭 기러기가 춤추는 形局이라 하여 무안주, 물안주라 부른다.

□ 月尾洞 고주개(고주리, 월명대)

- 안터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이 배의 형국이라 하며 마을이 남서쪽을 향해 있으므로 밝은 마을이라 하여 월명대 또는 고주개, 고주리라고도 부른다.

□ 錦城洞 艇止山

- 公州의 地形이 배의 形局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배가 떠나가게 되면 公

州의 地勢가 약해져서 땅하므로 이를 붙들어야 하는데 마침 公州를 붙
들고 있는 산이라 하여 艇止山이라 한다.

大川市



[面積 · 人口]

面積：46.19km(耕地：18.4 林野：19.5 工場用地：0.09 其他：8.2)

人口：56,922名

('91. 9. 30. 현재)

[沿 革]

- 百濟때는 新村縣에 속했으며, 新羅때는 新邑縣에 속해서 溍城郡의 領縣이었다. 고려때는 保寧縣에 속했으며 李朝때에도 保寧縣에 속했었다. 이 조말엽인 保寧郡의 地城으로서 睦忠面이라하여 竹洞의 10個洞里를 管轄하다가 1914년 行政區域 改革때 于羅面의 宮村의 26個洞里와 藍浦郡 北内面의 後洞을 병합하여 이 곳에 흐르는 大川의 이름을 따서 大川面이라 하였다.

1963년 大川邑으로 昇格되어 新黑, 요암, 남곡, 내항, 궁촌, 명천, 동대, 화산, 죽정, 대천 10個里를 管轄하다 1986년에 10개 法定洞과 6개의 行政洞(元, 大冠, 大新, 興德, 王臺, 玄浦)을 管轄하는 市로 昇格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歷史的 特性

- 大川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萬盧國이었으며, 百濟時代에는 結己軍의 新

昌縣이었으며, 고려시대때는 河南道 熊州 保寧縣으로 개칭되다, 朝鮮時代에 와서 비로서 保寧郡 大川面으로서 현 地名을 갖게 됐다. 대천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철도가설로 역이 생기고 그 후 대천해수욕장의 개발로 더욱 발전을 거듭하였고 성주산에 석탄광산이 자리하면서부터 급속히 발전한 고을이다. 또 최근 서해안 신도시로서의 새로운 변모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㉞ 地理的 特性

- 大川은 忠南의 서남부 중앙에 位置하고 있으며 차령산맥 말미 海岸盆地帶로 山紫秀麗한 自然景觀과 海岸으로 뻗은 大川川支流가 도심을 貫流하고 있고, 忠南 西海岸 交通의 中心地로서 천혜의 해수욕장과 인근 1km 거리에 지정항만인 大川港이 位置하고 있어 西海岸 어업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大川 海수욕장

大川市에서 서쪽으로 11km지점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대명사로서 뜨거운 명성을 얻는 해수욕장보다 더 누리고 있다.

3km에 달하는 모래사장은 용단처럼 폭신하며, 아무리 파고 쏘셔도 파도에 가늘게 부서진 조개껍질가루의 연속이다.

연 5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찾아오는 대천해수욕장은 역사가 오랜 만큼 제반 수용 시설이 완벽하고 욕장 풍경도 다른 곳에 비해 분위기가 가라앉은 편이다. 또 백사장 앞 바다 위에 솟은 섬 다보도가 해수욕장의 운치를 더 해주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집산하고 있는 대천항을 북방 1km지점에 두고 있어서 언제나 싱싱한 해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자랑이다.

해수욕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개장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철따라 모습을 바꾸는 바다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1년내내 찾아들고있어서 전천후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地名의 由來]

□ 大川

- 大川이란 地名은 고려말 金成雨장군이 왜구가 軍入港(현 대천항)에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川邊에 군줄을 잠복시켜 대기했다가 大破한 것에 연유하여 이 河川의 이름을 大勝이란 大자와 河川이란 川자를 따서 大川(한내)이라 불렀다한다.

□ 花山洞 舟岩

- 굿고개 남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주암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여기까지 배가 들어와서 배를 매었다는 마을이라하여 舟岩이라고 부른다.

□ 内頂洞 노루목이

- 밧소래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노루목이, 獐項, 獐項里 鹿門이라고 부른다. 마을 地形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해서 노루목이라고 부르는데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며 뒷산이 울창하여 노루가 많이 살았던 마을이다.

□ 内項洞 소래

- 안소래 바깥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소래라고 부른다. 内項洞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마을 地形이 소라처럼 생겼다 해서 소라라 부르던 마을인데 변하여 소래라고 부른다.

□ 新黑洞 石水골

- 거먹개 서쪽으로 자리한 마을을 石水洞이라고 부른다.

돌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맑은 물로서 약수로도 통하는 물이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마을이라 石水洞이라 부른다.

□ 新黑洞 海望山

- 고새울 동북쪽에 있는 산을 海望山이라 부른다.

오랑캐들이 수시로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西海를 侵犯해 옴으로 이산에 군사를 배치하고 망보게 한 산으로 바다가 멀리까지 흰히 바라다 보이는 산이라하여 海望山이라고 부른다.

□ 竹亭洞 回頭里

- 높은 마당 동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回頭里라고 부른다.

마을 地形이 머리를 돌이 킨 것처럼 되어 있다해서 回頭里, 回頭라고 부른다.

□ 鳴川洞 水清거리

- 興洞 서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수청거리라고 부른다. 옛날엔 마을 가운데에 웅달샘이 있었는데 비가 개이면 무지개가 서곤 하였다한다. 샘이 물이 맑고 무지개가 선다하여 水清거리라고 부른다.

溫 陽 市



[面積 · 人口]

面積 : 44.79 km² (耕地 : 20.9 林野 : 12.5 工場用地 : 0.41 其他 : 10.98)

人口 : 66,379 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때는 湯井郡에 속했으며, 新羅때는 文武王때 州로 올려서 統管을 두었다가 그 후 다시 湯井郡이 되었으며, 高麗 初葉에는 溫水郡의 고을이었다. 高麗 顯宗 9년에 天安府에 속했다가 明宗 2년에 溫水縣으로 내리어 監務를 두고, 朝鮮時代 初葉에는 太宗14년에 新昌縣과 합한 溫昌縣에 속했다가 太宗 16년에 다시 溫水縣이 되고, 第4代 世宗 24년에 왕이 이곳에 舉動하여 溫陽郡 이 되었다.

朝鮮時代 末葉에는 溫陽郡 邑內面의 地域으로서 城內의 15個里를 管轄하다가 1914年 行政區域 改編때에 西面의 岐山外 20個里와 坪村面의 下占梁 一部와 二北面의 成文里와 新昌郡 大東面의 防築里 一部를 併合하여 岐山 · 防築 · 法谷 · 信仁 · 實玉 · 溫泉 · 龍禾 · 邑內 · 長存 · 초사 · 豐基 · 左部里의 12個里를 管轄하는 溫陽面이 되어 牙山郡에 編入되었다.

1941年 溫陽邑으로 昇格되었고, 1973年 湯井面의 毛宗, 權谷里를 또 83年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排芳面 南里, 新昌面 得山 · 實玉 · 占梁 · 湯井面의 新里를 溫陽邑에 編入시켰다. 1986年 溫陽市로 昇格과 함께 現在 18個 法定洞과 6個 行政洞 (溫泉 1, 溫泉2, 龍禾, 溫州, 權谷, 神井)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歴史的 特性

- 溫陽은 百濟時代 湯井郡, 統一新羅時代 湯井州, 湯井郡, 高麗時代 溫水縣・溫水郡으로 불리었으며 特히, 朝鮮時代 세종대왕 24년에 溫水縣을 溫陽郡으로 昇格시켜 왕실행차에 使用하기 위한 湯竈와 行관이 建立되어 “중4품”의 郡守가 부임된이후 세조・현종・숙종・영조등의 임금의 行차하여 요양및 休養하신 고장으로 신정비, 어의정, 영피대등의 文化遺蹟을 간직하고 있는 溫泉으로 象徵되는 고장이다.

㉒ 地理的 特性

- 溫陽市는, 차령산맥의 지류인 설화연봉이 남으로 뻗혀있는 牙山郡 송악면 거산리에서 발원하여 송악면 中心을 뚫고 흘러 邑内洞을 거쳐 좌부동에서 牙山郡 세일내를 합한 곡교천이 흐르고 있으며 牙山郡의 中央部에 位置해 있는 都市다.

1986年 1月 1日 市로 昇格된 溫陽市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長項線 鐵道와 國道가 地域을 通過하고 있어 交通이 便利할 뿐만아니라, 全國의으로 有名한 溫泉과 民俗博物館, 神井湖등의 觀光資源이 많이 있고, 또한 인근에 顯忠祠・牙山湖・插橋湖・獨立紀念館등 많은 觀光地가 散在해 있어 새로운 面貌의 觀光休養都市로 發展이 期待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溫 陽 溫 泉

溫陽市 溫泉洞에 所在하고 있는 溫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溫泉 中の 하나이다.

百濟時代에는 溫井, 高麗時代에는 溫水, 朝鮮時代 以後에는 溫陽이라고 불리워 왔을만큼 歷史가 깊다. 특히 朝鮮時代에는 태조·세종·세조·영조같은 여러 王이 이곳에 순행하였고 왕들의 순행이 잦아 溫宮이라는 御室도 있었다고 한다.

溫陽溫泉의 湯源은 깊이 150m 内外의 26個所인데 水溫은 44~57°C, 溫泉量은 豊富하다.

성분은 単純천으로 중탄산나트륨, 유산마그네슘, 탄산칼륨, 규산, 유산칼슘등이 함유되고 있어 거친피부, 신경통, 위장병, 빈혈, 혈관경화증, 부인병등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溫陽溫泉에는 고급 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여관등 宿泊施設과 商家, 음식점 등 利用施設이 잘 갖추어진 비교적 깨끗하고 아담한 休養都市로 年間 400 萬名에 달하는 觀光客이 모여 들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현충사와 民俗博物館, 道高溫泉, 牙山湖, 插橋湖등 觀光資源이 豊富하여 首都圈 背後의 觀光·休養都市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地名의 由來]

□ 溫陽

- 이 地域은 옛날부터 땅속에서 溫水가 나와 이 溫水로 沐浴을 하면 피부병이 잘 낫고 피로가 풀리는 좋은 샘이 있다하여 溫井, 溫昌등으로 불리었는데 朝鮮 세종대왕께서 수양차 이곳에 행차하였다가 溫水가 땅속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고장이라하여 溫陽이라 불렀다 한다.

□ 權谷洞

- 옛 이북면 地域으로 地形이 구렁이와 같고 또 마른 구렁으로 되었으므로 건구렁, 권구렁이라 부르다 변하여 權谷里라 부르게 되었는데 溫陽市 昇格과 함께 權谷洞이라 부른다.

□ 實玉洞

- 本來 溫陽郡 西面地域으로 地形이 시루와 같이 생겼다하여 시루골, 시리골, 실우곡이라 부르다 변하여 實玉里라 하였는데 溫陽市 昇格과 함께 實玉洞이라 부른다.

□ 實玉洞 배미

- 實玉洞에 있는 마을로 마을의 地形이 배(舟)를 댄 형국이라 하여 배

미라 부른다.

□ 占梁洞

- 本來 신창군 대동면 地域으로 골이 깊고 크다하여 점돌, 점석, 점랑이라 부르다 溫陽市 昇格과 함께 占梁洞이라 부른다.

□ 龍禾洞 쇠고개

- 너더리 東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소가 누워있는 臥牛形이라 하여 우고개, 쇠고개라 부른다.

□ 草沙洞 개화내

- 갯티옆에 있는 마을로 마을 地形이 삼태기처럼 아늑하고 꽃이 일찍 핀다하여 개화천, 개화내라 부른다.

□ 岐山洞 성미

- 거리미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옛 성터가 있었으므로 城山, 성미라 부른다.

瑞 山 市



[面積 · 人口]

面積 : 52.92 km² (耕地 : 26.81 林野 : 15.62 工場用地 : 0.16 其他 : 10.33)

人口 : 55,930 名

('91. 9. 30. 현재)

[沿革]

- 瑞山郡 郡内面이라 하여 西門, 院洞 等 6個里를 管轄하였음. 1914년 府 · 郡 · 面廢合의 實施에 따라 大寺洞面, 栗串面, 五山面 全部와 銅岩面의 一部를 統合하여 瑞寧面으로 改稱하였으며 1917년 다시 瑞山面으로 改定하였다.

1942년 府令 제243호로 瑞山邑으로 昇格되었으며 1973년 대통령령 제 6542호로 仁旨面 葛山里, 音岩面 수석리가 瑞山邑에 編入되어 14個里를 管轄하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瑞山市로 昇格과 함께 서산 군에서 분리되어 현재 14개 법정동과 6개 행정동(富春, 東門, 活城, 壽石, 石南, 吾山)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歷史的 特性

- 역사적으로 서산은 여러차례 행정적 치우의 승격 · 강격을 거듭하면서도 현재의 서산일대가 끊이지 않고 군 · 현을 유지해온 것은, 나당연합군이

3국통일과 함께 중국과의 해상교통 요지로 부각되면서 중국인들의 귀화·정착, 임진왜란이후 서울 양반들의 피난·낙향, 왜구를 막기위한 30여곳의 군사시설 배치, 조창의 설립등의 주요 원인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역사적 배경의 핵심요인이다.

㉡ 地理的 特性

- 서산은 지리적으로 충남의 서북단 태안반도의 중심부에 위치 결정편암계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산공단의 배후도시 및 서해안 개발과 함께 거점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地域의 特記事項]

玉 女 峰

서산군청의 뒷편에 위치한 옥녀봉(玉女峰)은 부춘산(富春山) 또는 북주산(北主山)이라고도 하는 이산의 최고봉이다.

사연이 깃들어 있는 전설이 있음직 하지만 그 곳은 사연이 전해지지 않고 있음이 아쉽다. 그러나 서산 시민의 유일한 이 공원(公園)은 옛부터 범접키 어려운 풍수설(風水設)이 있어서 지금도 서산 시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옥녀봉을 신성시하고 있다. 이 산에 잡물이 들어가면 옥녀신이 노(怒)해 큰 횡액을 당한다하여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창건(創建)연대를 알 수 없는 사당이 있는데 아주 낡은 초옥(草屋)인 것을 그 후에 보수하여 현재의 사당으로 개소하였다.

이 옥녀봉에 얹힌 설화를 간추려 보면, 사료(史料)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전(口傳)에 의한 것이지만 서산시에 김흥분(金興分)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꿈에 옥녀와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말하기를 부춘산봉에 쓰러져가는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을 보수하여 나를 받들면 서산시민의 횡액을 막아주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김노파는 꿈이 너무나 신기하여 그곳에 가보니 쓰러져가는 사당이 있어 이를 중수하니 재액이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산에는 옥녀금형(玉女錦型)이라는 명당(明堂)자리가 있다고 하여 서산시를 둘러싼 산들을 멀리서 보면 선녀(仙女)가 가야금을 뜯는 모양이며,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옥녀봉이기 때문에 길지(吉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길지는 누군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침입을 거부한다고 전한다.

이 산봉(山峰) 명당에 사람을 매장하면 시민(市民)들에게 횡액이 계속 된다고 하여 지금도 이 곳에는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사람의 매장을 감시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瑞山

- 伽倻山의 支脈으로 聖王山 서쪽으로 떨어진 富春山은 瑞山의 主山으로 흰 모래와 푸른 숲 사이에 奇岩奇石이 얹혀진 天然的인 山인데 山이름과 관련하여 “富城”이라 칭하여 오다가 그 후 瑞寧, 瑞州라 불렀는데 고려 忠烈王 10년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地方으로 發展되는 것은 富春山의 상서로운 靈驗이라 하여 瑞山이라 불렀다 한다.

□ 邑内洞 玉女峰

- 부춘산 동쪽 봉우리로 玉女가 거문고를 타는 형국이라 하여 玉女峰이라 부른다.

□ 東門洞 溫洞

- 윗선들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溫泉과 같다고 하여 溫洞이라고 부른다.

□ 壽石洞 종자골

- 대숲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水源이 좋아서 種子가 잘 자란다 하여 종자골이라 부른다.

□ 壽石洞 대숲말

- 배곶이 남쪽에 자리한 마을로 竹林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나무 숲이 많았던 마을이라 하여 대숲말이라 부른다.

□ 壽石洞 유다리

- 대숲말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柳橋라고도 부르는데 버드나무가 많았으며 버드나무로 높은 다리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유다리라 부른다.

□ 溫石洞 燕巢形

- 서왕산 남쪽 기슭에 있는 바위로 그 생김새가 마치 제비가 둥지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하여 燕巢形이라 부른다.

□ 潛紅洞 잠골(潛洞)

- 쌍연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 곳의 地盤이 다른 마을에 비해 낮으므로 장마때면 일부지역이 물에 잠긴다 하여 잠골이라 부른다.

□ 石南洞 대창말(大倉里)

- 석지마을 북쪽에 형성된 마을로 예전에 이 곳에 큰 租稅倉庫가 있었으므로 대창말이라 부른다.

□ 竹城洞

- 본래 서산군 울곡면 지역으로 마을에 대밭이 많아 마치 城을 방불할 정도로 무성하였다 하여 竹城里라 부른다.

□ 富春洞 우렁골

- 노상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하여 울음골, 우렁골이라 부른다.

□ 吾山洞 獐里

- 옛 서산군 오산면 지역으로 地形이 노루처럼 생겼다하여 노루울, 노루골, 獐里라 부른다.

□ 良垆洞 神巫山

- 산의 모양이 마치 무당이 춤을 추는 것 같이 생겼다 하여 神巫山이라 부른다.

□ 壽石洞 壽洞

- 소머리 방죽 남쪽에 있는 마을로 노인들이 많아 長壽마을이라 하여 壽洞이라 부른다.

雞龍出張所



[面積 · 人口]

面積 : 60.6 km² (耕地 : 13.2 林野 : 41.9 工場用地 : 0.01 其他 : 5.49)

人口 : 11,682 名

('91. 9. 30. 현재)

[沿 革]

- 鷄龍出張所는 百濟時代에는 黃等也山郡에 속하였고, 統一新羅時代 景德王 때에 黃山郡으로 改稱하였다. 高麗時代 地方行政區域으로 再編成되어 河南道 連山縣에 속했으며, 인조 24년 思津 · 尼山 · 連山을 폐합 思津縣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孝宗 7년에 連山縣에 復置하였으며, 朝鮮末葉때는 連山郡 食汗面, 豆磨面 地域이었다.

1914년 府令 제111호의 郡面 廢合에 따라 連山郡 食汗面, 豆磨面, 鎭岑郡 一部를 併合하여 豆磨面이라 하여 論山郡에 編入되어 14個里를 管轄하는 面이 되었다. 1989년 大德郡 鎭岑面 南仙里가 豆磨面에 編入되고, 1990년 2월 27일 忠清南道 鷄龍出張所를 개소함에 현재 2개 지소(남선, 두마) 31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歴史的 特性

- 朝鮮初期부터 新都邑地로 定해 1329년 2월 ~12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대궐공사를 벌이던 곳으로 아직도 柱礎石 및 石材가 남아있고, 最近에는 行政首都 候補地로 수차례 檢討된 바 있는 곳으로 現在는 國家의 核心的 機能을 수행하는 3軍本部가 移轉함에 따라 自主國防의 요람지로 바뀌었으며 軍事·文化·田園都市로의 開發이 기대되고 있다.

㉞ 地理的 特性

- 忠南의 中南部에 位置하여 大田·論山·公州와 面接하고 있는 中山間 地帶로 忠南의 象徵이며 영산인 鷄龍山이 있고, 西海岸과 內陸을 連結하는 地域으로서 風水地理의 大吉地로 알려진 곳이다.

[地域의 特記事項]

新 都 安

鷄龍山하면, 新都安 名稱이 따라 붙는다. 도대체 어느때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未詳이나 대체적으로 李太祖가 都邑을 定하여 대궐공사를 벌인후 李朝初期때부터 使用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新都安은 李朝以後 수백년을 두고 우리민족의 마음을 때로는 달래기도 했으며 때로는 설레이게 했던 곳이 틀림없으며, 新都安이란 명칭은 문자그대로 새롭게 都邑을 하는 안(內)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과, 李太祖가 新都를 中斷하고 한양으로 옮겼는데 鄭鑑錄에 나타난 것처럼 鄭氏의 都邑地이지 李氏의 都邑地가 아니라해서 新都安(新都是 새 도읍지라는 漢文

의 表記이고 “안”은 否定的 뜻으로 아니(否)의 준말로 한글 表記)이라고 하고, 또는 李氏의 都邑地도 안되었고 鄭氏의 都邑地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新都邑地가 아니라 (時期未到來)고 해서 新都안 이라고들 한다.

이 곳의 住民들은 鷄龍市建設로 2000年代의 찬란한 鷄龍의 時代가 열리어 새로운 한국의 中心都市가 되어 現在 巷間에 쓰고 있는 新都안 (부정의 뜻) 地名表記을 하지 않고 新都內, 즉 한국의 中心都市 안쪽이라는 地名使用을 熱望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鷄龍

- 鷄龍이란 地名은 쌍개봉, 연천봉, 관음봉, 화적봉등 여러개의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대체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 내리다 동쪽으로 두줄기 서쪽으로 한줄기를 뻗치고 있는데, 전체의 모습이 마치 닭의 벅을 머리에 단 龍처럼 생겼다 하여 鷄龍이라 불렀다 한다.

전설에는 李太祖가 開國할 무렵 無學大師가 “이 산은 한편으로 金鷄抱卵形이요 또 한편으로는 飛龍上天形이니 두 主體를 따서 鷄龍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한 후로 부터 鷄龍이라 불렀다 한다.

□ 豆磨面 豆溪里

- 李太祖가 新都안에 도읍을 정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 이 곳이 신도안에서 바깥쪽이 되므로 밭거리라 부르다 변하여 팔거리, 두계리라 부른다.

□ 豆磨面 豆溪里 九老谷

- 여기서 몇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항상 아홉 노인이 나와서 바둑을 두는 계곡이라 하여 九老谷이라 불렀다 하는데 地形이 마치 병풍이 삼면을 싸고 있는 듯 하여 아름다운 마을이기도 하다.

□ 豆磨面 旺代里 班村

- 이 지역은 山勢가 기름져서 위에서 내려 오는 줄기에 꼭 人材가 나올 곳이라 하였다 하는데 李朝 世宗때부터 이 곳 出身에서 登料하는 인물이 많아 양반들의 마을이라 하여 班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豆磨面 旺代里 隱골

- 旺代里에서 가장 큰 마을로 산이 사방으로 둘러 쌓여 마을이 숨은 것 같이 위치 해 있어 隱遁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隱洞, 隱골이라 부른다.

□ 豆磨面 立岩里 가닥골

- 이 곳은 적의 外侵이 있을 때마다 마을에 까마귀가 많아서 까마귀가 많은 마을은 재수없는 마을이라 하여 외침을 당하지 않았던 마을로 百濟가 망했을 때나 壬辰倭亂 때도 외침을 당하지 않았다 한다.

까마귀가 많다 하여 까마귀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가닥골이라 부른다. 槐木이 많은 마을이다.

□ 豆磨面 立岩里 萬景峰

- 李太祖가 新都邑地를 정하기 위해 주위 地形을 살피던 곳으로 여기에 올라와 보면 논산, 대전, 신도안의 지형을 한 눈에 볼수 있다 한다.

□ 豆磨面 農所里

- 마을뒷산에 李太祖가 王位에 오르기 전에 山祭를 지낸 터전이 있으며 물의 원천이 좋고 山勢가 秀麗하여 농토가 많고 누에가 누어있는 形局으로 농사짓기에 알맞은 지역이라 하여 農所里라 부른다.

□ 豆磨面 農所里 湧水말

- 아래대실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湧水와 같으며 石壁에서 솟아 나오는 우물이 있어서 마을 이름도 용수촌, 용수말이라 부른다.

□ 豆磨面 農所里 會音골

- 용수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높은 산이 사방에 둘러 쌓여 있어 여기서 소리나는 것은 아무데도 들리지 않는 고을이라 하며, 마을 사람끼리 정답게 소리내어 사는 마을이라 하여 會音洞, 會音골이라 부른다.

□ 豆磨面 柳洞里 배나무골

- 柳洞 남쪽에 있는 마을로 300여년전 風水地理에 능한 老僧이 이곳을 지나다가 地形을 살펴보니 “梨花洛地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배나무골이라 부른다.

□ 豆磨面 柳洞里 所樂室

- 유동리 2구의 옛 지명으로 옛날에 어느 大師가 이 곳을 지나다가 이 곳은 피난처인 三室(垞室, 九老室, 所樂室)중의 하나이며 사방이 막혀 하늘만 뻥하게 보인다 하여 所樂室이라 부른다.

□ 豆磨面 光石里 蜈蚣谷

- 너른들북쪽에 있는 마을로 蜈蚣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蜈蚣谷이라 부르며 地官들이 두루 살피는 고을로 명당자리 이름을 따서 蜈蚣谷이라 부른다.

□ 豆磨面 光石里 虎尾山

- 산의 形態가 범이 누워 있는 形勢로 범의 꼬리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虎尾山이라 부른다.

□ 豆磨面 道谷里

- 옛부터 선비들이나 道를 닦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才士도 많았고 힘이 장사인 사나이들도 자기 스스로 달래며 一生을 사는 곳이라 하여 도방골, 뒗방골, 도곡리라 부른다.

□ 豆磨面 道谷里 금산당

- 장재동 옆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황금이 닦이 되어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황금색 닦을 쫓다가 피가 묻었다 한다. 그 피를 자세히 살펴보니 피가 아니라 금가루였다 하여 金이 뒗굴어 다니는 땅이라는 뜻에서 금산당이라 부른다.

□ 豆磨面 香汗里 雲田

- 香汗里에서가장 큰 마을로 마을이 구름발 같다 하여 雲田이라 부른다. 雲田마을에 들어서면 먼저 神仙境을 느낀다 하는데 대궐터가 新都內에 자리 잡았을 경우 임금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라는 風水說이 있다.

□ 豆磨面 庵寺里 兩政고개

- 팔거리에서 연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鷄龍山 新都안을 未來의 鄭氏 都邑地라 믿고 鄭氏 두 사람이 왕관을 놓고 싸워야 할 고개라 하여 “兩鄭고개”라 부르며 또한, 百濟軍과 新羅軍, 後百濟軍과 高麗軍이 싸우던 곳이라 兩政고개라 부른다.

□ 豆磨面 石溪里 鍾路터

- 석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신도안이 首都가 되면 이 곳에 鍾을 달게된다 하여 鍾路터라 부른다.

□ 豆磨面 龍洞里 金鷄洞

- 화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金鷄抱卵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金鷄洞이라 부르며, 여기 명당자리에 산소를 쓰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군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 豆磨面 夫南里 숫룽추

- 숫룽추골에있는 용못, 옛날 숫룽이 나온 못이라 하는데 매우 깊으며 동쪽에 「암룽추」가 있다.

□ 豆磨面 龍洞里 암룡추

- 암龍이 살았다는 못, 龍湫가 있다하여 「암龍湫」 「雌龍湫」라 부른다.
「우적골」밑에 있는 못으로서 물이 매우 깊으며 서쪽엔 「숫龍湫」가 있다.

錦 山 郡



[面積・人口]

面積：573 km²(耕地：118 林野：411 工場用地：0.3 其他：43.7)

人口：84,078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때 錦山郡은 郡이 3個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錦山附近의 進乃乙郡(進乃郡)이고 다음은 珍山附近의 珍洞縣이며 또 하나는 富利面 附近의 豆尸伊縣이다.

百濟때 得安城에 속했던 이 곳은 統一新羅後 進乃郡은 進禮縣에 편입되었다.

高麗 忠烈王 31年 (1305) 錦州로 고쳤으며 李朝 태종13年 錦山은 錦山郡으로 하고 이때 知珍州事로 있던 珍山이 珍山郡이 되었으며 富利縣은 錦山郡에 속하게 되었다. 高宗 32年 地方管制改正에 의하여 富東面은 무주군에, 東二面은 珍山郡에 각기 넘겨 주었으며 1914年 郡面 廢合에 따라 珍山郡의 7個面과 高山郡 운동하면 一部를 併合하여 錦山郡으로 錦山, 錦城, 濟原, 富利, 郡北, 南一, 南二, 珍山, 福壽, 秋富의 10個 面으로 改編 管轄하였다. 1940年 錦山面이 邑으로 昇格되고 1962年 郡北面에 內釜出張所를 설치하였다. 1963年 1月 1日 全羅北道에서 忠淸南道에 編入되어 現在 1邑 9面 1出張所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歷史的 特性

- 三國時代에는 百濟의 영토로 進乃郡이라 칭하였으며 新羅와 이 고장에서 자주 싸운 關係로 옛 성터가 많고 統一新羅後 경덕왕 때는 進禮郡이라 하였으며 명산과 錦江을 위주로 寺刹, 암자, 書院 등을 많이 지었음.
임진왜란시는 격전지로 중봉 조헌선생과 승장 영규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들이 싸우다全員 숨진 忠節의 고장이기도 하다.

㉒ 地理的 特性

- 西部에 本道와 全北의 옛 도계를 달리는 蘆嶺山脈 사이에 끼여 있는 고원분지이다. 錦山邑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사행하는 錦江과 이에 合流하는 鳳凰川 및 그 지류 獐嘶川 沿岸에 약간의 平地가 있을 뿐이다. 地質은 옥천계地層의 變質水成岩이기 때문에 人蔘栽培에 적합한 사질壤土가 豊富하다. 地形的으로 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 견줄 만큼 한서의 차가 심하다. 주위의 산지 사면은 그 차가 적으며 여름에도 서늘하다. 오랜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토박한 정적토로 옛부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생활하였다.

[地域의 特記事項]

大 菴 山

道立公園 第19號로 指定된 蘆嶺山脈 中の 명산으로서 錦山郡, 論山郡, 全羅北道 完州郡등 3郡의 郡界에 있는 해발 878m의 峻峰으로 韓國8景의 하나이며 주봉인 천만산峰, 居聖峰을 비롯한 奇岩怪石과 仙松長瀑의 雄姿 靈態는 옛부터 詩人墨客의 絶찬을 받는 小金剛이다.

이 山에는 新羅 元曉大師가 創建했다는 太古寺로한 傳說등이 傳承되기도 하는등 錦山郡民의 精神的 支柱 役割을 하고 있는 山이다.

人蔘과 人蔘祭

人蔘은 萬病에 듣는 靈藥으로 알려지고 있고 五加皮科에 속하고 있는 多年生 草本으로서 連作이 불가능 하다.

人蔘은 土質과 관계가 깊어 他地域의 人蔘은 紅蔘, 水蔘의 原料로 많이 쓰이나 錦山의 人蔘은 主로 白蔘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人蔘이 작고 단단해서 白蔘으로 건조해도 쭈굴쭈굴하지 않고 變色되지 않는다 해서 上品으로 評價되고 있는데 錦山地域의 土質이 人蔘栽培에 가장 適地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錦山에서는 인류의 靈藥인 人蔘이 이 고장에서 부터 재배하게 되었음을 조상에게 감사드리며, 人蔘의 종주지로서 人蔘을 아끼고 지키는 마음으로 1981년도 부터 錦山人蔘 宣揚委員會 條例를 制定하여 人蔘祭의

開催根基를 마련하고 한편 錦山人蔘執行委員會를 構成함으로써 人蔘祭가 명실공히 全國規模의 行事誘致와 郷土民俗祝祭의 개성을 살린 全國的인 大單位의 문화제 행사로 부각 되었다.

300여년전 人蔘의 씨앗을 開甲하였다는 開蔘터를 발견한 것은 앞으로 人蔘의 역사를 밝혀가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행사 종목에는 錦山人蔘아가씨 選拔, 씨름대회, 농악경연대회, 인삼생산경진대회, 궁도대회, 백일장, 미술대회, 서예대회등이 있다.

[地名의 由來]

□ 錦山

- 錦山の 옛 地名인 進乃(進乃乙)는 이두식 표기이며 進은 진, 乃是 내(川)로 풀이되는 바 이로 인하여 後의 郡名稱인 進禮가 생겨 났으며 進乃의 뜻은 내 (河川)가 있는 고을로 풀이된다. 錦山郡에는 錦江, 錦城山, 錦川 등 錦字를 가진 地名이 많으며 고려 충렬왕이 이 고장 출신 金仇의 補國忠節을 기리기 위하여 이 지역의 山川名인 錦字를 따서 錦州라 命名하고 朝鮮 太宗때 전국 地名 개정시 錦山이라 改稱하였다.

□ 錦山邑 中島里 塔仙이 (塔仙里)

- 마을에 三層石塔이 서있어서 塔仙이라 불리우며 지형이 배의 모양

이므로 우물을 파면 화가 있다고 하여 우물을 못 파고 금천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 한다.

□ 錦山邑 陽地里 수레너머 고개

- 進樂山에 位置한 고개로서 산 이름을 고개 이름으로 쓰지 않고 옛 고개 “수레(車)너머 고개”로 불리어 왔는데 新羅 憲康王때 元曉寺를 創建한 祖丘大師가 이 곳에서 休息을 取하던 중 이 고개를 보고 먼 훗날 이 고개를 수레가 넘나들 것이라고 豫言하였다 하는데 1984년 오지개발사업으로 進樂山 貫通道路가 開設되어 이 고개를 通過하고 있다.

□ 錦城面 道谷里 알미 (난산)

- 도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서, 마을 앞에 알 처럼 생긴 산이 있는데 꼭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알미, 또는 난산이라 한다.

□ 錦城面 陽田里 오무들

- 現存 통신 위성지구국이 설치되어 있는 들판을 오무골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까마귀떼가 각처에서 모여드는 형국이라고 해서 오무골이라고 불려 왔는데 1970년 위성지구국이 설치됨에 따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게 되자 옛날 풍수의 말이 맞다고 전해 오는 들이다.

□ 郡北面 內釜里 金샘

- 내부 2리 서남쪽에 마을나무인 팽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맑은 물이 항시 솟고 있는 샘이 있는데 이 샘을 황금이 샘 밑 바닥에 깔렸다고 하여 금샘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한때 금이 나온다 해서 식수마저 통제했던 샘이고 이 근처는 금샘이 있는 곳이라 하여 금샘거리라고 한다.

□ 南一面 덕천리 쇠막골

- 錦山땅엔 山勢가 깊고 들이 많은데 비해서 쇠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

당나라에서도 쇠를 캐러 몰려 들었다고 하는데 쇠막골도 쇠를 캐러 이 곳에 온 中國사람이 쳐 놓은 막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쇠막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옛날에 쇠가 많이 나왔다 한다.

□ 福壽面 雲霞山

- 九禮里와 白岩里 경계에 있는 높이 335m의 산이다. 항상 구름과 안개에 가려 있는 산이라서 운하산이라고 하며 구리가 많아 구리산이라고도 부른다.

□ 郡北面 上谷里 竹村 (죽말)

- 옛날부터 대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이렇게 부르며 지금도 대나무를 길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 郡北面 上谷里 지네말 (眞義)

- 忠北 沃川郡 伊院面 上谷里 배나무들 東北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지네가 많아서 지네제라고 하는 고개가 있어 이 地名을 따라서 지네말이라고 일컫는다.

□ 錦城面 道谷里 늑살 (五龍)

- 道谷里 잔실 西北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 다섯 마리가 구슬 한 개를 놓고 다투는 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다 한다.

□ 錦城面 下柳里 버드실 (柳谷)

- 下柳里의 원마을이다. 柳枝鶯巢形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인데 버드나무 가지에 앵무새가 집을 지은 것 같은 地形이라고 전한다.

□ 南二面 下金里 쇠내

- 하금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高麗때 쇠(金)가 많이 났다 하여 쇠내라 부른다.

□ 南二面 幹川里

- 옛 錦山郡 南二面 地域으로서 내(川)에 들어 많아서 물이 땅속으로 흐르므로 이에 由來하여 幹川里라 부른다.

□ 南二面 星谷里 물굴

- 星谷 西쪽 진악산에 있는 자연 석굴로 10m쯤 들어가면 넓게 파진 곳에 물이 고여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으며 이 곳이 영겁하다 하여 한재가 있으며 祈雨祭를 지낸다. 굴 위의 地形이 호룡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곳에 묘를 쓰면 시체는 龍이 되어 昇天하고 그 집안이 잘 된다는 風水地理說이 있어 가끔 몰래 묘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다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때면 이 附近 住民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그 묘를 기어이 찾아내 파내고 만다고 전해진다.

□ 秋富面 龍地里 못골

- 옛부터 2개의 自然部落을 “윗못골과 아래못골”(上地洞, 下地洞)으로 부르다 龍地里라 불리었는데 1958年 아래못골에 貯水地가 設置되어 地名이 일치하고 있다.

□ 秋富面 要光里 伏虎山

- 박오재 뒤에 있는 산으로, 산모양이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형국이라 하여 伏虎山이라 한다.

□ 秋富面 西臺里 수통골

- 大村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秋富川의 支流가 흐르고 언제인가 水通을 묻어 西臺山의 물을 食水로 利用한다는 고승의 예언에 따라 마을 이름을 水通里라 했다.

□ 福壽面 芝良里 횃고개

- 芝良里의 구만리에서 대전시로 넘어가는 고개로 백회가 많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 南一面 新亭里 (紅桃里)

- 新亭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紅桃落盤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紅桃里라 부른다.

□ 福壽面 木巢里 바람골

- 물방아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바람이 몹시 세므로 바람골이라 이름한다.

□ 富利面 坪村里 물폐기 (水波里)

- 평촌마을 서북쪽으로 자리한 마을로서 옛날에는 홍수가 지면 강물이 범람하여 전답 가옥의 침수가 많은 부락이었다. 물을 퍼내는 마을이라 해서 물폐기 또는 물에 잠기는 마을이라해서 수촌이라고 하며, 물폐기

농요가 전래되고 있는 마을로 1991년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 富利面 仙源里 틀무실

- 선원 北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玉女織錦形이고 앞 산에 스님바위(僧岩)가 있는 바 베짜는 玉女를 노리지 말라 하여 틀무실, 漢字化하여 織勿里라고도 부른다.

□ 秋富面 自富里 시계들

- 남산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흙이 매우 메말라서 이 들이, 농사가 잘 되면 전체적으로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일년 농사를 저울질 할 수 있는 들이라 시계들이라 한다.

□ 秋富面 馬田里 불근덩이

- 마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붉은 흙이 나오는 마을이라 불근덩이 라고 한다.

□ 珍山面 鳥項里 봄가리골 (春耕洞)

- 원오항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서 기후가 한냉하므로 농사를 지을때 봄갈이를 한다고 한다.

□ 南二面 下金里 飲水洞

- 쇠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 산에 渴馬飲水形의 明堂이 있다 하므로 飲水洞이라 부른다.

□ 南二面 星谷里 개안이 (開眼이)

- 지금부터 약 1,500여년 전 姜氏姓을 가진 선비가 일찌기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 눕자 진악산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쾌유를 빌던중 어느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현몽하여 “관암불봉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 3개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달여 드려라”는 계시가 있어 그 곳을 찾아 가니 과연 그러한 풀이 있어 뿌리를 캐어 달여 드리니 모친의 병환은 완쾌되었고 그 씨앗을 이 마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하여 개안이라고 전해진다.

燕 岐 郡



[面積 · 人口]

面積 : 356.5 km²(耕地 : 103.4 林野 : 199.6 工場用地 : 1.7 其他 : 51.8)

人口 : 90,386 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 仇首王 2 년에 赤峴城이었고 후에 豆仍只縣이었으며, 新羅 景德王 때 燕岐라 하여 燕岐郡 領縣이 되었고 그 후 熊州에 領하고 高麗 縣宗 9 년(1018) 淸州에 편입시켰다가 朝鮮 太宗 6 年 (1406) 監務를 두고 燕岐로 改稱하였다.

同 1414 年에 全義와 合併하여 全岐로 改稱하였다가 同 16 年(1416)에 다시 燕岐縣이라 稱하였다.

高宗 32년(1895)에 縣에서 郡으로 昇格됨과 1909년 全義面 일부와 公州郡 일부를 編入하여 東, 西, 南, 北, 錦南, 全義, 全東 등 7 個 面을 管轄하게 되었다.

1920 年 府令 제 13 호로 面制 改定에 따라 北面의 일부를 鳥致院面으로, 일부는 西面에 속하게 하고 鳥致院面은 指定面이라 칭하게 하였다. 1931 年 府令 제 103 호로 指定面을 鳥致院邑으로 改稱 및 昇格시켰다.

1973 年 大統領令 제 6142 호로 公州郡 反浦面 3 個 里를 錦南面에, 長岐面 2 個 里를 南面에 編入시키고 1986 年 全義面에 小井出張所, 1987 年 西面에 鳳岩出張所 設置로 현재 1 邑 6 面 2 出張所 106 個 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㉓ 歴史的 特性

- 燕岐郡은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에 속했고 전의지역은 구기현, 연기지역은 두잉지현, 금남지역은 웅진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연기군은 옛 전의縣지방을 중심으로 발전된 전의문화와 대평리를 끼고도는 錦江의 북쪽을 중심으로 옛 燕岐縣 地方의 燕岐文化로 비증되어 발전하다 高麗時代 契丹兵을 크게 무찌른 兵馬山・元師山이 있고 민간 신앙의 극치를 이루는 轉月山이 있으며 벼슬보다는 학문을 택한 性理學의 名門들이 정착하여 토향을 빛내진 연기군은 문화적 척도에서 높은 수위의 지역으로서 1895년 경부선철도 부설로 인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되었다.

㉔ 地理的 特性

- 燕岐는 지리적으로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대전, 충남, 천안, 청주의 인접 도시로 철도 및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며 미호천과 합하고 다시 금강에 임하여 산이 높지 않아 목야지나 과수원으로서의 농산물 재배에 적당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의 배후지・교통의 요충지를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 시설이 좋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地域의 特記事項]

五 峯 山

鳥致院邑 鳳山洞 北方에 있으니 冠佛山 來脈으로 조치원읍을 진압하고 있으면서 산정에 落照의 수수한 殘紅이 照할때는 祭景公이 灑淚하던 古史를 회상케 하므로 五峯落照를 연기 8경의 하나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산 중에 新興 庵址가 있더니 近來에 와서는 조그마한 寺刹을 舊址에 新築하더니 仍古名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燕岐

- 燕岐의 燕字는 鷺(제비연)자와 通用되며 風水地理說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三名土鉗記” 충청도편 燕岐章에 연기북 쪽 堂峙(당고개)에 鷺巢形(제비집 형국)이 있는 거리라 하여 燕岐라 命名한 것으로 추측된다.

□ 東面 文舟里

- 옛 연기군 동이면 지역으로서 내판 들의 온 물이 이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마을 뒷 산이 문설주처럼 되어 있으므로 文舟里라 부른다.

□ 東面 合江里

- 옛 연기군 동일면 지역으로서 금강과 미호천이 이 마을 앞에서 합하므로 합강리라 부른다.

□ 東面 鳴鶴里

- 옛 동일면 地域으로 뒷 산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황새가 새끼를 치고 운다 하여 鳴鶴里라 한다.

□ 東面 鳴鶴里 黃牛峙

- 명학리 마을에 黃牛渡江形의 명당이 있으며 長水 黃氏가 처음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黃牛峙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東面 龍湖里 出洞山

- 산에 將軍嶺兵出洞形의 명당이 있는 산이라 하여 出洞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東面 黃牛山

- 명학리와 합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 높이가 192m로서 산의 모양이 황소 모양이고 黃牛渡江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황우산이라 부른다.

□ 西面 起龍里

- 마을의 지형이 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하여 그 뜻을 따서 기룡리라 부른다.

□ 西面 釜洞里 五龍골

- 쟁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五龍처럼 되었다고 하며 또한 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오룡동, 오룡골이라 부른다.

□ 西面 文舍

- 새터말 건너에 있는 마을로 마주 보는 旺子峯이 이 마을에서 바라 보면 왕자가 스승 앞에서 글을 배우는 형상이라 하여 무남골, 文舍이라 부른다.

□ 南面 高亭里 범지기

- 마을 뒷 산이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形局이라 하는데 범이 나타나서는 마을을 지켜 주는 듯이 밤이면 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하여 범지리라 부른다.

□ 南面 葛雲里

- 마을 주위에 산이 칙닝쿨처럼 얼기 설기 서려 있다 하여 葛雲리라 한다.

□ 南面 葛雲里 金沙

- 원수봉 서쪽에 있는 마을로서 고려 말 어느 地官이 이 곳을 지나 가다 산세를 본 즉, 산에 금줄기가 뻗었다 하여 이 곳 지명을 金沙라 지어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南面 方丑里 화통고개

- 병자호란때 명나라 장수가 이 곳을 지나면서 地形을 살피니 이 곳에서 장차 장수가 나서 명나라를 괴롭힐 것 같아서 고개의 맥을 칼로 잘랐다 하여 화통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南面 松潭里 葛米마을

- 高麗 末엽 이 곳을 지나던 林圀將軍이 말하기를 “여기는 地形이 葛蔓形이라 하여 갈대밭이 앞으로 변하여 곡식을 생산하는 들이 될 것”이라 하여 그 以後 葛米마을로 불리었는데 1939年 錦江堤防築造 및 耕地整理事業으로 長南平野가 생겨 곡창지대가 되었다.

□ 錦南面 龍浦里 佳洞

- 쑥티 서 쪽 너머에 있는 마을로 龍秀川이 금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곳을 앞에 두고 마을이 위치 하므로 아름답다 하여 가동이라 부른다.

□ 錦南面 金川里

- 本來 公州郡 양야리면 地域으로 이 곳에 소가 누운 形局의 명당이 있다 하여 소내 또는 牛溪라 하였는데 변하여 쇠내 金川里가 되었다 한다.

□ 錦南面 黃龍里

- 本來 公州郡 명탄면 地域으로 마을 뒷산에 黃龍渡河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黃龍里라 한다.

□ 錦南面 黃龍里 燕巢洞

- 황용리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제비집처럼 생겼다 하여 제비집골, 연소동이라 부른다.

□ 錦南面 盤谷里

- 옛 公州郡 명탄면 地域으로 地形이 소반과 같다 하여 盤谷里라 하고 이 地域에 斑鳳抱卵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 錦南面 大平里 飛鶴山

- 산의 모양이 학이 나는 形局이라 비학산이라 부르며 천송이의 꽃과 천 필의 비단이 깔려 있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전해온다.

□ 全義面 西亭里 비룡재

- 산의 봉우리가 뽕족하여 처음에는 뽕룡재라 불렀으며 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오는 산으로, 변하여 비룡재라 부른다.

□ 全義面 西亭里 소리재고개

- 壬辰倭亂 때 명나라 이여송이 이 곳에 이르러 산세를 살피고 산맥이 이대로 이어지다가는 큰 人物이 나올 것 같다 하여 山脈의 줄기를 끊었다 하는데 산맥을 끊을 때 땅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여 소리재고개라 부르다 변하여 소리재고개라 부른다.

□ 全東面 盧長里

- 갈대가 무성하여 갈거리라 하던 곳인데 임진왜란 때 학자 權柱가 이 곳에 살면서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그 왜란을 피한 후 마을 이름을 盧長里라 하였다 한다.

公 州 郡



[面積 · 人口]

面積 : 863.56 km² (耕地 : 171.55 林野 : 616.49 工場用地 : 0.18 其他 : 75.34)

人口 : 92,880 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 때는 熊川과 伐音只縣에 속했으며 新羅 때는 熊川州와 淸音縣에 속하였고 高麗 때는 公州牧과 新豐縣에 속했으며 朝鮮時代 초기에는 公州牧에 속했으며 말기에는 公州郡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公州, 木洞(利仁), 州外(新下), 新豐(新上), 維鳩, 灘川, 鷄龍, 反浦, 長岐, 儀堂, 正安, 牛城, 寺谷의 13個面을 管轄하는 公州郡이 되었다.

1938년 公州面을 邑으로 昇格하는 동시에 州外面을 革罷하여 錦城의 3個里를 公州邑에, 梧谷의 3個里는 利仁面에, 新其의 3個里는 鷄龍面에, 各기 編入하여 1邑 11面이 되었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로 長岐面 2個里와 反浦面 3個里는 燕岐郡에, 寺谷面의 일부와 新豐面의 일부를 維鳩面에 각각 編入시키고

1986년 법률 제3798호로 公州邑이 公州市로 昇格, 公州郡에서 分離시켜 현재 11個面 185個理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歷史的 特性

- 공주는 백제 22대 문주왕 때부터 26대 성왕까지 5대 63년간 백제의 수도 지역으로서 찬란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운 유서 깊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사, 갑사, 마곡사 등 유명한 사찰이 있고, 특히 백제 문화는 고대 일본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㉒ 地理的 特性

- 공주는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심부로서 그 동·서·남 쪽은 구룡성산지로 둘러 싸여 있고 북쪽은 차령산맥과 맞닿아 있으면서 백제 역사의 상징인 금강이 공주의 서쪽을 휘감아 부여로 이어지고 있어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실체 재현을 위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립공원 계룡산의 동학사·갑사, 사곡의 마곡사 등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대전권의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鷄 龍 山

公州郡 鷄龍面·反浦面 一圓에 位置한 해발 828m의 上峰을 중심으로 大小 15個의 봉우리와 7個의 溪谷에는 맑은 물과 寺刹이 있으며, 61km²의

國立公園으로 指定된 산으로서 白頭山, 智異山, 金剛山, 妙香山과 함께 韓國五岳의 하나로 손꼽힌다. 東 쪽은 東鶴寺, 서 쪽은 甲寺, 南 쪽은 新元寺가 자리하고 있고 稀貴樹種 610여종과 160여종의 鳥類가 棲息하며 싸리, 능이, 밤등 갖가지 버섯류와 향기 짙은 산채가 採取되고 있으며 각 地로부터의 交通편이 좋은 관계로 이 곳을 찾는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代表的 명산이다.

[地名의 由來]

□ 利仁面 五龍里

- 옛 木浦面 地域으로 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五龍里라 부른다.

□ 利仁面 草鳳里 大鶴洞

- 마을 地形이 마치 큰 학이 날개를 펼치고 여러 마을을 포옹하는 形局이라 하여 大鶴洞이라 부른다.

□ 利仁面 伏龍里

- 옛 공주군 辰頭面 지역으로 뒷 산의 모양이 龍이 엮드린 형국이라 하여 伏龍里라 부른다.

□ 利仁面 伏龍里 舞鳳山

- 산의 모양이 鳳凰이 춤을 주는 形局이라 舞鳳山이라 한다.

□ 利仁面 梨谷里 배실

- 산이 마을을 사방으로 둘러 싸고 있어 그 안에 盆地처럼 마을이 놓여 있으므로 마치 배 안같다 하여 배실이라 부른다.

□ 利仁面 新永里

- 이 곳은 元來 대나무가 많이 있어 竹林里라 하였으나 대나무는 늘 푸르려 있다는 뜻을 따서 新永里라 불리워지고 있다.

□ 利仁面 新永里 와룡리

- 원신영 동 쪽에 있는 마을로 와다음수형의 명당이 있어 구례실 또는 와룡리라 부르는데, 마을 형국이 龍이 승천하는 형국이라 靑龍의 꼬리 부분에서 가끔 비를 부르기도 한다고 하여 신성시 하는 마을이라고 한다.

□ 利仁面 五龍里

- 옛 公州郡 木浦面 지역으로 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五龍洞, 五龍里라 한다.

□ 灘川面 安永里 新梅

- 安永골 동 쪽에 자리한 마을을 新梅라 부르는데 梅花落地形의 명당

이 있다 해서 新梅라 부르는 마을이다.

□ 灘川面 加尺里 돛대岸

- 灘川面 鼎峙里, 南山里, 加尺里 境界를 이루는 높은 山으로 <돛대岸>이라 부르는데 山에 올라 가면 四方이 훤히 바라다 보이며 마치 바다에 뜬 배의 돛대 같다 해서 <돛대岸>이라 불렀다 한다.

□ 灘川面 聖里 鳴幕골

- 聖里 동 쪽에 있는 마을로 명매기(새)가 있었다 하여 鳴幕골이라 불리우며 이 地域에 “명마출립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灘川面 大鶴里 佛舞山

- 산의 모양이 마치 부처가 춤을 추는 것 같이 생겼다 하여 佛舞山이라 부른다.

□ 灘川面 扮江里

- 本來 公州郡 反浦面 地域으로서 錦江이 갈라져 흘렀으므로 分江 또는 分浦라 하였는데 行政區域 통·폐합에 따라 倉岩里, 聖里 一部를 併合하여 扮江리라 하였다.

□ 鷄龍面 乃興里 巢龍골

- 乃興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馬化爲龍形의 대지가 있다는 명당 터인데 龍이 昇天을 기다리며 도사리고 앉아 있는 地域이라 하여 소룡골, 소룡둥이라고 부른다, 지금 왕흥국민학교가 반송에 있다가 이 곳으로 옮겨 왔다.

□ 鷄龍面 九旺里 만학골

- 구령말 남 쪽 골짜기 위에 있는 마을을 만학골이라 하는데 萬人이 구령같은 지역에서 영화를 누린다는 뜻에서 만학동, 만학골이라 부른다.

□ 鷄龍面 九旺里 興龍골

- 아래청소 서 쪽에 있는 마을로 馬化爲龍形의 대지가 있어서 언젠가는 크게 흥해서 널리 알려 질 마을이라 하여 흥용골이라 부른다.

□ 鷄龍面 中壯里 鰲尾

- 들 가운데 낮은 자라 모양을 한 산이 있는데 자라의 꼬리 부분에 마을이 있어서 오미라 부르게 되었다.

□ 鷄龍面 陽化里 쇠실

- 陽化洞에서 북 쪽으로 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마을을 쇠실이라 부른다.

鐵鑛山이 있었던 마을이며 쇠가 나온다는 마을이라 쇠실, 금곡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 鷄龍面 陽化里 陵山

- 송현 북 쪽에 있는 산으로 鷄龍都邑이 되면 첫 王의 陵 터가 된다고 하여 陵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鷄龍面 錦帶里

- 錦帶마을 뒤에 있는 둔덕에 錦盤形의 명당이 있다 한다.

그 명당 자리 앞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마을을 錦帶라 불렀다 하는데 錦으로 띠를 두르는 마을이라 해서 永世不滅하는 마을로서 영화를 누릴 마을이라 한다.

□ 反浦面 溫泉里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박정자·사봉리를 병합하여 온천리라 하였고, 옛부터 온천이 있어 온천리라 하였는데 최근 동학사 온천개발과 연계하여 시사해 볼 만하다.

□ 反浦面 溫泉里 玉女奉

- 박정자 뒤에 있는 산으로 산 봉우리가 수려하며 玉女散髮形의 명당

이 있다고 하여 옥녀봉이라 한다.

□ 反浦面 元峰里 배골

- 행정 남 쪽에 있는 마을로 주곡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지형이 배와 같다 하여 배골이라 부른다.

마을에 샘을 파면 배의 밑창을 뚫는 격이 된다고 하여 샘을 파지 않는다.

□ 長岐面 大橋里 밤실

- 마을 地形이 左靑龍 右白虎가 길게 뻗어 청룡날이 지네형으로 되어 있는 形局으로 만약 지네가 남 쪽 들로 나오는 경우는 金將軍 후세들의 명당 자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어귀에 밤나무를 심고 지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밤나무를 많이 심은 마을이라 밤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長岐面 松仙里 은구덩이

- 松仙里 뒷 산 溪谷에 은구덩이라 부르는 샘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여 年 前에 여기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한 地官이 살고 있어 그가 살펴본 즉 산줄기에 틀림없이 金銀脈이 있을 것 같아 개를 한마리 데리고 다니다 이 곳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 땅을 파 본 즉 먼저 銀이 섞인 물이 나오고 다음엔 큰 銀덩어리를 發見하여 크게 富者가 되었

마을을 쇠실이라 부른다.

鐵鑛山이 있었던 마을이며 쇠가 나온다는 마을이라 쇠실, 금곡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 鷄龍面 陽化里 陵山

- 송현 북 쪽에 있는 산으로 鷄龍都邑이 되면 첫 王의 陵 터가 된다고 하여 陵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鷄龍面 錦帶里

- 錦帶마을 뒤에 있는 둔덕에 錦盤形의 명당이 있다 한다.

그 명당 자리 앞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마을을 錦帶라 불렀다 하는데 錦으로 띠를 두르는 마을이라 해서 永世不滅하는 마을로서 영화를 누릴 마을이라 한다.

□ 反浦面 溫泉里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박정자·사봉리를 병합하여 온천리라 하였고, 옛부터 온천이 있어 온천리라 하였는데 최근 동학사 온천개발과 연계하여 시사해 볼 만하다.

□ 反浦面 溫泉里 玉女峯

- 박정자 뒤에 있는 산으로 산 봉우리가 수려하며 玉女散髮形의 명당

이 있다고 하여 옥녀봉이라 한다.

□ 反浦面 元峰里 배골

- 행정 남 쪽에 있는 마을로 주곡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지형이 배와 같다 하여 배골이라 부른다.

마을에 샘을 파면 배의 밑창을 뚫는 격이 된다고 하여 샘을 파지 않는다.

□ 長岐面 大橋里 밤실

- 마을 地形이 左靑龍 右白虎가 길게 뻗어 청룡날이 지네형으로 되어 있는 形局으로 만약 지네가 남 쪽 들로 나오는 경우는 金將軍 후세들의 명당 자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어귀에 밤나무를 심고 지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밤나무를 많이 심은 마을이라 밤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長岐面 松仙里 은구덩이

- 松仙里 뒷 산 溪谷에 은구덩이라 부르는 샘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여 年 前에 여기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 한 地官이 살고 있어 그가 살펴본 즉 산줄기에 틀림없이 金銀脈이 있을 것 같아 개를 한마리 데리고 다니다 이 곳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 땅을 파 본 즉 먼저 銀이 섞인 물이 나오고 다음엔 큰 銀덩어리를 發見하여 크게 富者가 되었

다 한다.

지금은 銀이 섞인 물은 아니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는 샘이 있는데 이 샘을 은구덩이라 부른다.

□ 牛城面 新熊里 황새골

- 신웅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지형이 황새가 날개를 펼친 형국이라 하며 또한 황새가 많이 찾아 들던 마을이라 하여 황새골이라 부른다.

□ 牛城面 内山里 노루목 (장항)

- 중말 뒤에 있는 고개, 모양이 노루의 목과 같이 생기었음.

옛날에 허씨가 이 곳에서 나무를 하다가 뛰어 오는 노루를 나무 더미 속에 숨겨 주고 뒤 쫓아 오는 포수를 다른 곳으로 속여서 보냈는데, 그 노루가 나와서 허씨를 보고 고맙다는 뜻을 표한 후 땅을 헤치며 흙을 모으는 시늉을 하므로, 허씨가 이 곳에 묘를 쓰라는 말이 나고 물으매, 그 노루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므로, 그 곳에다 부모의 묘를 쓰고 잘 되었다고 한다.

□ 牛城面 内山里 道川里 약샘

- 〈도천리〉北 쪽에 자리한 마을로 물이 清潔하여 胃腸病, 皮膚病에 좋다는 우물이 있어 〈약샘〉이라 부르고 약샘이 있는 마을이라 마을도 〈약샘〉이라 불렀다 한다.

□ 寺谷面 虎溪里(菱溪里)

- 범재 북 쪽에 있는 마을로 寺谷面의 地域에 이르러 비로서 들이 열리고 麻谷川과 維鳩川이 합하여 地形이 마등과 같이 되었는데 정감록에 維鳩, 麻谷 두 내 사이에 수만 인이 살 수 있다(維麻兩水之間可活萬人)하여 우리나라에서 避難할 땅으로 有名하다.

□ 寺谷面 花月里 워란동 (물안이, 월은동)

- 화월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지형이 울 같은 안 쪽에 있으므로 물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워란동 또는 월은동이라 하며, 雲中半月形의 명당이 있다 한다.

□ 寺谷面 花月里 명당골

- 월은동 남서 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명당골이라고 부른다.
마을 앞에 넓은 들, 새 들이 있으며 이 곳엔 臥牛形, 長蛙遂蛇形, 蠶頭形, 金鳥啄屍形의 여러 明堂이 있다 해서 명당골, 명당리라 부른다.

□ 寺谷面 花月里 藥山

- 산에 採藥隱土形의 明堂이 있다 하여 藥山이라 부른다.

□ 寺谷面 海月里 蟹越

- 냇물이 마을 앞에서 휘어 돌아 간다 하여 휘여울이라 부르다 변하여 해월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寺谷面 雲岩里 雲亭

- 구름재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에 雲中半月形의 明堂이 있다 하여 雲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곳에 마곡국민학교가 있다.

□ 寺谷面 會鶴里 말구리

- 송회동 북동 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말의 아가리와 같다 하여 渴馬飲水形의 명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구리 또는 말구리라 부른다.

□ 新豐面 雙大里 토끼울

- 왕대 남 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전에 토끼가 많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玉兎望月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新豐面 大龍里 무루실

-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마을이 아늑하고 풍류적이며 마을에 武陵桃源의 명당이 있다 하여 武陵谷이라 부르다 변하여 무루실이라 부른

다 한다.

□ 新豊面 花興里 무라니

- 화양 남동 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물이 좋아서 수해나 한해가 없는 마을이며 물의 안 쪽에 마을이 자리해 있다고 하여 물안이라 부르다 변하여 무라니라 부른다.

□ 維鳩面

- 維鳩는 예로부터 비단을 생산하는 직조공장(維)이 성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옛 維鳩驛舍로부터 공주, 청양, 온양, 예산의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鳩)의 중심지로서 維鳩라는 지명과 일치하고 있다.

□ 維鳩面 비득재

- 신영리에서 유구면 구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임진왜란때 청나라의 이여송 장군이 여기에 이르러 산세와 지형을 살펴 본 후 여기의 산세가 큰 나라도 위협하게 될 장군이 나올 수 있는 지형이라 하여 산맥을 꿰었는데 산맥을 꿰을 때 금비둘기가 나왔다고 하여 비득재라 부른다.

□ 維鳩面 九溪里 석수골

- 산막 남동 쪽에 있는 마을로 이 곳에 대리석이 많아서 돌을 떠 가기

위해 석수쟁이들이 모여서 막을 치고 살았던 곳으로 석수쟁이들이 처음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석수굴이라 부른다.

□ 維鳩面 東海里 帝宮洞

- 동해동 북 쪽에 자리한 마을로 風水說에 東海里엔 四明堂 八大地가 있다 한다.

四明堂中 卦燈形의 명당이 지금의 帝宮洞 뒷산 이라고 하며 帝王이 나올 形局이라 하여 帝王洞, 帝宮洞이라 부른다.

□ 維鳩面 萬川里 玉花洞

- 〈萬年洞〉西 쪽 마을로 玉女峯 西 쪽 아래에 있고 玉女가 〈玉女峯〉에서 내려와 놀던 터라 해서 〈玉花洞〉이라 하였다 한다.

□ 儀堂面 德鶴里 은정골

- 옛날에 깊은 산속에 샘이 있는데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고, 또한 그 샘에서 은을 많이 캐냈다 해서 〈은정골〉이라 부른다. 깊은 샘이었으나 메워져서 지금은 작은 수원으로 남아 있다.

論 山 郡



[面積 · 人口]

面積：606.83 km²(耕地：228.0 林野：286.0 工場用地：0.7 其他：92.13)

人口：175,765 名 (’91. 9. 30. 현재)

[沿 革]

- 論山郡은 百濟時代의 黃等也山郡과 德近郡의 2郡에 속해 있었으며, 그 후 新羅時代에는 黃山, 尼山, 德殷, 石山の 4郡으로 改稱하여 불려오다가, 高麗時代에 들어 와서 다시 黃山을 連山, 德殷을 德恩으로, 石山을 石城으로 고쳐 불렀고, 朝鮮時代에는 德恩郡은 市津縣을 統合하여 世宗 때 恩津縣으로 改稱하였으며 尼山縣을 英朝 때 石城縣으로, 正祖 때에와서는 다시 魯城縣으로 名稱이 바뀌었고, 1914年 府郡面廢合때 恩津郡·連山郡의 全部와 素砂面을 제한 魯城郡과 石城郡 一部를 併合하여 論山郡이라 하여 上月, 魯城, 光石, 城東, 連山, 夫赤, 陽村, 豆磨, 伐谷, 可也谷, 九子谷, 恩津, 彩雲, 江景 論山の 15個面을 管轄하게 되었다.

1931年 江景과 1938年 論山을 各各 邑으로 昇格하고 1963年 九子谷面의 一部와 全羅北道 익산군 一部를 併合하여 鍊武邑을 設置하므로서 現在 3個邑 12個面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歴史的 特性

- 百濟의 古都 公州·扶餘와 隣接하여 燦爛한 百濟文化를 꽃피웠던 고장으로, 百濟 最後의 決戰場인 黃山벌과 階白將軍의 묘소가 所在하고 있으며 後百濟의 건원묘, 高麗太祖 왕건이 後百濟를 멸하고 세운 護國寺刹 개태사, 東洋最大의 石佛인 은진미륵 등 많은 文化遺跡을 保有하고 있으면서 기름지고 넓은 穀倉地帶를 背景으로 百濟 때부터 魯城, 連山, 恩津을 據点으로한 郡·縣등의 고을이 朝鮮末期까지 維持되어 왔으며, 現在는 國軍 정병의 搖籃인 第 2訓練所가 位置하고 있어 國家的으로 매우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곳이다.

㉒ 地理的 特性

- 論山은 忠南의 南部에 位置하여 全羅北道와 大田直轄市를 境界로하며 地形은 全般的으로 平坦하고 화강암이 發達되어 있는 地帶로서 東北端에서 南北으로 뻗은 鷄龍山 丘陵이 차별 浸蝕에 의해 老年期 地形을 나타내며 300M 以 内外의 잔구형 丘陵이 散在해 있다. 또 東南端에는 노령山脈의 한 줄기가 지나므로서 郡内에서 가장 높은 地帶를 形成하기도 하나 大部分 地形은 低平할 뿐만 아니라 中央을 徐流하는 論山川을 비롯하여 魯城川, 連山川 등이 錦江에 合流하는 地域에 肥沃한 論山平野를 形成하고 있다. 또 낮은 地形과 産業의 發達로 鐵道와 道路網 整備가 良好하여 道内에서 가장 交通이 便利한 地域으로서 大田直轄市의 背後都市 機能의 受容과 西海岸 開發의 背後地로서의 役割이 期待되는 곳이다.

[地域의 特記事項]

黃山 (天護山)

連山面과 伐谷面 그리고 豆磨面 境界에 있는 山이다. 높이가 386m, 山이 용마루같이 길게 6km 가량 南 쪽에서 北 쪽으로 뻗어 나갔으므로 누루기재라고도 하는데 百濟의 國運이 기울어 갈 때 階白將軍이 決死隊 5千을 이끌고 新羅軍 5萬과 決戰하던 場所가 黃山의 連峰 아래이며 高麗 太祖 왕건이 後百濟의 神劔을 一利川에서 크게 이기고 繼續 追擊하여 이 곳에 이르러 降伏을 받아내 後三國을 統一하여 高麗 왕조를 세우게 되었으므로 이 곳을 하느님이 도와주신 山이라 하여 天護山으로 고치고 山 아래에 開泰寺를 크게 지었는데, 이 절에는 千 余 名에 달하는 승려가 있었다 하며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국을 끓이던 가마솥은 지금도 保存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最大 직경 3m 높이 1m 용적 6m' 이나 되는 거대한 철솥이니 當時 이 절의 規模를 짐작할 수 있다.

[地名의 由來]

□ 論山

- 論山은 三國時代에 “黃山”이란 名稱이 이 地域을 代表하였는데 黃은 “누르다”의 뜻이고 山은 “메”란 뜻으로 누르메가 음운變化를 일으켜 늘메, 놀피로 변천되다가 다시 漢字化하면서 論山이란 名稱으로 바뀌

었다.

□ 論山邑 登華洞 皇華山

- 論山邑에서 서남 쪽 1.5km 地点에 있는 山. 둘레 840m의 옛 城이 산봉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데, 밑은 돌로 쌓고 그 위는 흙으로 덮였으며, 四方에 城門자리가 남아 있고, 성안에는 창고자리가 두 곳이 있으며, 또 등근꼴·네모꼴의 주춧돌이 놓여 있고, 흙잎 연꽃 무늬의 기와가 흙속에서 나왔는데 “갈라성(葛羅城)”이라 陽刻되어 있어서 百濟때 고적을 증명하여 주며, 돌칼·돌도끼도 나왔으며, 백제 때 가지 내현(加知奈縣) 곧 갈내(訖乃)뒤에 있으므로 訖乃城 또는 갈라성이라 하였는데 백제 제30대 의자왕이 이 곳에 와서 평평하고 큰 바위에 앉아 강을 내려다 보면서 놓고 그 바위를 皇華臺라 命名하였으므로 그 후부터 皇華山 또는 皇華山城이라 하였다. 또 李朝 때 山에다 烽燧臺를 두고 南 쪽으로 江景山 烽燧를 받아 북 쪽으로 니산봉수(魯城山)에 응하였다고 한다.

□ 連山面 花岳里 무주터

- 화악골 北 쪽에 있는 마을로 물이 늘 흘러서 가뭄에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 무주터 또는 걱정 없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무주리라고 하며 물이 항상 떨어진다고 하여 수락, 수락리라고도 부른다.

□ 恩津面 土良里 토양골

- 옛날에 땅을 많이 기르던 곳이다. 그래서 땅이 肥沃하고 꽃이 잘 자라서 土質이 좋다 하여 土良골, 또는 土良里라 부른다 한다.

□ 上月面 大村里 매봉재

- 대촌리에 있는 山으로 무네미(물넘이) 고개가 터져도 여기만 맷방석만한 재가 남는다 해서 매봉재라 한다.

□ 上月面 山城里 배너미고개

- 옥녀봉 위 쪽에 있는 고개로 신도내에 도움이 되면 배가 넘어 다니는 고개라하여 배너미 고개라 한다.

□ 上月面 石宗里 주내

- 상도리 용화사에서 발원하여 석종리에 이르러 대명리의 대명내를 합하여 두내, 주내, 주을천, 주천이 되고 지경리에 이르러 솔내를 합하여 노성천으로 들어가는 내로서 신도안이 도움이 되면 이 곳까지 배가 들어 오게 된다고 한다.

□ 上月面 寒泉里 寒泉

- 한 여름에도 찬 물이 나오는 고장이다. 옛날에 한양으로 오가는 나

그네들이 魯城縣 하도면에서 一泊하고 돌아 가야 선객의 멧이 난다는
 記錄으로 보아도 찬 물이 많이 나오는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찬 물이 많이 나온다 해서 寒泉이라 한다.

□ 上月面 月午里 서리골

- 魯城山城 바로 밑으로, 숲이 무성하고 계곡이 깊으며 물이 좋고 山
 의 地熱이 높아 몸이 쇠약한 몸을 治療했다 하는데 熱氣가 서리처럼
 늘 서려 있다 하여 서리골이라 부른다.

□ 上月面 上道里 水晶골

- 박살미 南東 쪽에 있는 마을로, 이 곳에서 水晶이 많이 나왔다 하여
 水晶골이라 부른다.

□ 上月面 淑眞里

- 옛 魯城郡 下道面 地域으로 鷄龍都邑이 되면 이 곳에 배가 드나드는
 나루가 된다 하여 淑眞골, 淑眞里라 부른다.

□ 鍊武邑 金谷里 닭다릿들

- 陸軍 第 2訓練所 鍊武臺가 있는 버덩으로 길이 25km, 폭 1km 가
 되는데 이 곳에서 옛적 말방울, 말굽쇠 따위가 많이 나오며, 정조 때
 異人 李書九가 全羅監司가 되어 이 곳을 지나다가 보고 칭찬하되,

“金鷄抱卵形으로서, 길 위로는 玉冠子가 서말이 나고 길 아래로는 걸보리 천석이 나리라” 하였는데 지금 陸軍訓練所가 되어 數千의 訓練兵이 아침에 나아갔다가 저녁에 돌아 오는 것이 되어 마치 병아리떼 같으므로 그 말이 맞았다고 한다.

※ 버덩 : 높고 편편하고 나무가 없어 풀만 난 땅

□ 光石面 栗里 횃방골

- 울리 東쪽에 있는 마을로 뒷 산에서 석회가 나와서 횃방골이라 한다.

□ 伐谷面 德木里

- 옛 連山郡 伐谷面 地域으로 늙은 떡갈나무가 있어서 나라에 變亂이 있으면 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 주어 德나무라 하였다 하여 그 이름을 따서 德木리라 부른다.

□ 光石面 利寺里 시계배미

- 光石面事務所에서 150m 地点에 位置한 400坪 남짓되는 田畓으로서, 地帶가 높아 천수로 平作하는 다른 田畓에는 이 논이 標準이 되는 田畓이라 한다. 즉 천수강우량을 測定하는 田畓으로서 여기에 모를 심을 수 있으면 光石 들 어디든지 모를 심을 수 있다고 하는 田畓으로서 시계배미라 한다.

□ 陽村面 山直里 뒷목

- 이 地域에 數百年된 떡갈나무가 있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를 당하면 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 주므로 德木이라 부르다 변하여 뒷목이라 부른다.

□ 陽村面 新興里 소금번지

- 신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별판에 있는데, 장마가 지면 인천내가 범람하여 마을까지 번져 들어 왔다 하여 소금번지라 부른다.

□ 可也谷面 釣亭里

- 釣亭里라는 마을 名稱과는 전혀 關係없는 地域與件을 갖고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1944年 8月 이 곳에 論山 塔亭貯水地가 竣工되고 이에 따라 淡水魚族이 豊富하게 되자 現在 全國 各地의 낚시꾼들로 초만원 을 이루고 있어 마을 名稱과 一致하고 있다.

□ 可也谷面 鍾淵里

- 옛 恩津郡 可也谷面 地域으로 北 쪽에 沼가 생기리라 해서 北沼 또는 鍾淵·鍾北이라 하였는데, 1914年 行政區域 廢合에 따라 소조리, 조정리 一部를 併合하여 종연리라하고 論山郡에 編入되었고, 1939년에 論山貯水地를 設置하여 마침내 北沼가 생기리라는 말이 맞았다 한다.

□ 連山面 松亭里 北鷄

- 地形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形局이라 하며, 검은 닭이 많은 마을이라 먹鷄라 부르다 변하여 北鷄라 부른다. 오골계가 많은 마을이다.

□ 連山面 表井里

- 옛 論山郡 白石面 地域으로 자갈이 많고 물이 적어서 가물면 샘이 말라 食水의 곤란이 많다 하여 表井里라 부른다.

□ 連山面 어음리 일음골

- 은골 北東 쪽에 있는 마을로 四方으로 높은 山이 둘러 있어서 마을을 識別하기 어렵고 해가 늦게 떠서 일찍 넘어가 그늘이 많이 지고 어두운 마을이라 하여 暗部落이라 부르다 변하여 일음골이라 부른다.

□ 夫赤面 新豐里 顏川말

- 옛부터 마을 이름이 顏川말로 불려오다가, 1944年 8月 論山 塔亭貯水地가 竣工됨에 따라 水面이 마을 바로 앞까지 形成되어 마을 사람들이 이 곳 貯水地 물에 얼굴을 씻을 수 있게 되어 地名과 一致하고 있다.

□ 夫赤面 塔亭里 錦城里

- 성안 北西 쪽 벌판에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이 곳에 장차 절벽같은
城이 쌓여지리라 하였는데 1931年 論山貯水地의 堤防이 높이 쌓여져,
과연 城처럼 되었다 하여 錦城里라 부르는 마을이다.

□ 夫赤面 新橋里 안골

- 아개울 안 쪽에 있는 마을로 百濟와 新羅의 激戰時 많은 住民들이
이 곳으로 避難왔다가 戰爭의 禍를 면하였다 하여 편안한 곳이라는
뜻으로 安谷, 안골이라 부른다.

□ 夫赤面 新豐里 풍덩마을

- 옛부터 마을 이름이 풍덩마을로 불려 오다가, 1944년 8월 論山 塔
亭貯水地의 竣工과 함께 마을이 完全히 물 속에 풍덩 잠기게 되어 地
名과 一致하고 있다.

□ 夫赤面 馬九坪里

- 이 곳은 本來 地名에 어울리게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와 비슷하게
생긴 연못이었는데, 日帝가 이 곳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夫赤面事
務所를 지었다 한다.

(日本人들은 양택思想을 重히 여기는 때문에 여겨짐)

그리고 이 곳은 現在 耕地整理가 되어 있어 말 아홉마리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먹이가 豊富한 地域이라는 地名과 어울리게 많은 量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 夫赤面 夫皇里 多五介

- 마을에 다섯 개의 고개가 있고, 이 마을에 감, 대추, 밤, 호도, 은행등 다섯 가지 과일나무가 잘 자란다 하여 多五介라 부른다.

扶餘郡



[面積 · 人口]

面積 : 668.09 km² (耕地 : 210.70 林野 : 323.96 工場用地 : 0.29 其他 : 133.14)

人口 : 116,888 名 ('91. 9. 30. 현재)

[沿 革]

• 扶餘는 百濟의 所夫里 또는 泗沘郡인데 제26대 聖王이 熊川에서 이곳으로와 都邑을 定하고 南扶餘라 하였는데, 제 31 대 義慈王 때 新羅에 占領되었으며, 新羅 제30대 文武王 12년(672)에 總管을 두었다가 제35대 景德王 때 扶餘로 고쳐서 郡이 되었으며, 高麗 제 8 대 顯宗 9년(1018) 公州에 속했다가 제19대 明宗 2년(1172)에 監務를 두었다.

朝鮮 제3대 太宗 13년(1413)에 改革에 따라 扶餘縣이 되었다가 제26대 高宗 32년(1895)에 郡이 되어 縣內, 大方, 草村, 蒙道, 道城, 公洞, 方生, 加佐, 淺乙, 松堂의 10個面을 管轄하고, 1914년 府郡面 廢合에 따라 道城面의 九龍里, 公洞面의 琴江里를 떼어 靑陽郡에 넘겨주고, 林川郡의 邑內面의 9個面, 鴻山郡의 郡內面의 8個面, 石城郡 縣內面의 4個面, 魯城郡의 素沙面의 일부, 公州郡의 曲火川面의 1개면, 韓山郡의 下北面의 1개면을 併合하여 扶餘郡이라하고 鴻山, 縣內, 草村, 恩山, 內山, 九龍, 外山, 南面, 林川, 世道, 場岩, 忠化, 良化, 玉山, 窺岩, 石城의 16個面을 管轄하였다. 1917年 縣內面을 扶餘

面으로 고치고 1960년 1월 1일 法律 제537호에 의하여 扶餘面을 邑으로 昇格하여 現在 1邑 15個面 191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㉓ 歴史的 特性

- 扶餘는 百濟 26대 聖王(538)때 부터 31代 義慈王(660)까지 6대 123년간의 百濟首都로 찬란한 民族文化의 꽃을 피운 由緒 깊은 歷史遺蹟의 都市이며 扶蘇山城, 聖興山城, 扶餘羅城, 定林寺址, 陵山里古墳群 등 수많은 文化遺蹟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古代 日本文化에 큰 影響을 끼쳤다.

㉔ 地理的 特性

- 扶餘는 忠南의 西南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車嶺山脈 末端部の 低山間 丘陵地帶로 錦江本流가 貫通하고 있으며 忠南交通의 요충지로 西海岸時代의 배후도시로서 役割이 기대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扶 蘇 山

扶餘邑內의 北 쪽에 자리 잡은 鎮山으로서 北 쪽에는 傾斜가 가파르고 바로 그 山麓을 錦江이 흐르고 있으며, 南 쪽은 緩漫한 傾斜가 市街地와

連續된 錦城山과 對頂하고 있다.

이 산의 連丘는 落花岩의 對岸인 부소산성과 對面하고 東 쪽으로 靑馬山, 南 쪽으로 南嶺을 連續하는 錦城山과 떨어져 있는 孤立한 산이다.

걸음으로는 나직한 野山으로 보이나 수목이 比較的 울창한 아담하고 아름다운 산이다.

山頂과 陵線을 利用하여 만들어진 百濟時代의 土城은 지금도 그 痕跡이 남아 있어 百濟都城의 中心 山城으로 宮城과 直接 通하는 秘苑 같은 印象을 준다.

荒廢한 殘蹟에서도 土城址는 역역히 엿볼 수 있으며 더우기 城門址와 迎月臺址, 送月臺址, 軍倉址 등이 있는가 하면 수개 치의 산지, 伽藍址와 近來 建立된 三忠祠·顯忠閣이 있고 泗泚樓, 百花亭 등은 詩人 墨客과 觀光客들의 감회를 새롭게 하는 바가 크다.

北岸 絶壁 奇岩인 落花岩과 百濟 當時 尼寺로 알려져 있는 阜蘭寺는 扶餘의 심장이 아닐 수 없다.

[地名의 由來]

□ 扶餘

- 古地名인 所夫里와 泗泚는 같은 뜻으로 東原, 新東京, 黎明源으로 풀이되며 이는 고구려의 一族이 남하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때이므로 새로운 터전에서 국가를 運營한다는 뜻에서 首都의 명칭을 新으

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통일신라 때 개칭된 扶餘는 백제가 원래 北扶餘族의 原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扶餘라 명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 窺岩面 羅福里

- 옛 淺乙面 地域으로 地形이 소라가 엮드린 形局이라 하여 驟伏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羅福리라 부른다.

이 곳에서 신석기 시대의 돌촉, 돌칼, 숫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 窺岩面 咸陽里

-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 쪼이면 마을 구석구석까지 웅달진 곳이 없이 고루 비치는 마을이라 하여 咸陽리라 부른다.

□ 窺岩面 金鳳里

- 외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로 금봉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 하는데, 金鳳抱卵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金鳳리라 한다.

□ 恩山面 琴公里 신터리-봉(산)

- 百濟때 金剛寺를 짓는데 그 規模가 어찌나 굉장하던지 일하던 일꾼의 신에 붙은 흙을 이 곳에서 털었는데 그 흙이 모이어 이 산이 되었다 한다.

□ 外山面 飛岩里 下飛

- 芝仙里 上飛 아래 쪽에 자리한 마을로 飛鴈洛地形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로 기러기가 아래로 날아 가는 지형이라 下飛라 부른다 한다.

□ 鴻山面 鴻良里 飛鴻山

- 산의 모양이 날으는 기러기처럼 생겼으며 산에는 飛鴻舍蘆의 명당이 있다 하여 飛鴻山이라 부른다.

□ 玉山面 大德里 차-골

- 大德里에 있는 골짜기로 앞으로 기차골이 뚫린다 하여 차-골이라 부른다.

□ 南面 松鶴里 四丞山

- 松鶴里 남 쪽에 있는 산으로 정승 네 명이 나오는 명당 자리가 있다 하여 사승산이라 부른다.

□ 忠化面 福金里 漁隱골

- 매까실 서북 쪽에 있는 마을로 은골, 上金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아늑하며 옛날 풍수지리설에 언젠가 漁隱翁이 많이 나타날 마을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북금저수지가 크게 생기면서 낚시꾼들이 꼭 漁隱翁

처럼 되었다 한다.

□ 良化面 笠浦里

- 錦江가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삿갓처럼 생겼다 하여 笠浦라 부르며 朝鮮時代 末에 30 여 년간 忠南에서 유일하게 해상시장이 열렸던 금강가 포구였다.

□ 良化面 水原里

- 本來 林川郡 洪化面 地域으로 물의 根源이 좋다 하여 수원골, 水原里라 부른다.

□ 良化面 内城里 錦城

- 황골 동 쪽에 있는 마을로 錦江 연안에 산성처럼 둘러 쌓인 데에 마을이 있다 하여 錦城里라 부른다.

□ 林川面 七山里

- 本來 林川郡 東邊面 地域으로 들 가운데 낮은 일곱 봉우리의 산이 있다 하여 七山里라 부른다.

□ 世道面 花樹里 윤치

- 마을 뒷 산의 지형이 꿩이 몸을 숨기는 形局이라 하여 隱雉라 부르다 변하여 윤치라 부르게 되었다.

□ 世道面 水古里 海村

- 수렁과 물이 많으며 넓은 들에 마을이 있다 하여 海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世道面 菁浦里 닭매

- 옛날 無學大師가 이 곳을 지나며 金鷄抱卵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닭매라고 부른다.

□ 草村面 眞湖里

- 本來 魯城郡 素沙面 地域으로 긴 湖水가 있었으므로 진물 또는 眞湖라 부른다.

□ 恩山面 新大理 사자봉

- 새터 앞에 있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사자처럼 생겼는데, 사자가 하늘을 바라보는 형국(獅子仰天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사자봉이라 한다.

□ 恩山面 龍頭里

- 옛 公洞面 地域으로 地形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머리, 또는 龍頭里라 부른다.

□ 恩山面 佳中里 미녀봉

- 가중리 남 쪽에 있는 산으로 옛부터 “玉女彈琴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미녀봉이라 불리워진다.

□ 內山面 珠岩里 鹿澗里

- 숙동 북서 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는(갈녹음수형) 형국이라 하여 녹간지라고 부른다.

□ 忠化面 靑南里 시남

- 큰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마치 신하가 上帝를 우러러 보는 形局이라 信仰이라 부르다 변하여 시남이라 부르게 되었다.

□ 忠化面 可化里 마차실

- 용골 서남 쪽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에 上帝奉朝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지고 있다.

□ 南面 金川里 鴈터

- 사당골 서북 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기러기가 앉은 형국이라 하여 鴈터라 부른다.

□ 窺岩面 窺岩里 自溫臺(바위)

- 수북정 밑에 있는 바위로 백마강가에 칼로 깎아 세운 듯이 서 있는데 사람이 4~5명 앉을 만한 바위로 百濟의 마지막 임금 義慈王이 王興寺에 불공하러 갈 때 먼저 이 바위에 올라 부처를 보며 절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돌이 저절로 따뜻해졌다 하여 自溫臺라 부른다.

□ 石城面 石城里 蓮花

- 양지뜸 남 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뒷 산이 蓮花浮水形의 명당 자리가 있다 하여 연화라 부른다.

舒 川 郡



[面積 · 人口]

面積 : 363.493 km² (耕地 : 50.13 林野 : 152.103 工場用地 : 0.8 其他 : 60.46)

人口 : 100,533 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때 舌林郡 또는 南陽郡이었는데 新羅 35代 景德王 15年(756) 西林郡으로 고치고, 高麗 第8代 縣宗 9년(1018)에 嘉林郡(現 扶餘)에 영속되었다가 그후에 監務를 두었으며, 第27代 충숙王 1年(1314)에 이 고을 사람 李彦忠이 忠宣王에게 功이있으므로 知西州事로 昇格되었다가, 朝鮮太宗 13年(1413)에 다시 舒川郡으로 改稱됐다.

1914年 郡 · 面 廢合에 따라 韓山郡, 庇仁郡을 統合하여 現在の 舒川郡으로 되었다.

1917년 南陽面을 舒川面으로 고치고, 1938年 西南面, 馬東面의 一部를 併合하여 長項邑을 새로 設置하고 이에따라 馬東面의 8個里, 西南面의 10個里를 併合하여 馬西面으로 改稱하였다. 1979年 舒川面을 邑으로 昇格시켜 現在 2邑 (舒川, 長項) 11面 (麟山, 馬山, 馬西, 文山, 庇仁, 西, 時草, 鍾川, 板橋, 韓山, 華陽) 172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歷史의 特性

- 由緒깊은 百濟文化圈으로 庇仁5층石塔, 文獻書院등 百濟文化遺蹟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전부터 물이 좋아 소곡주를 빚어 임금님께 進上하였고, 韓山 세모시와 忠節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㉕ 地理의 特性

- 舒川은 地理의으로 忠南 最西南端에 位置하고 全北과 道界를 이루며 車嶺山脈의 末端部가 郡 中央部까지 미치고, 南쪽은 準平原化하여 평탄한 내포, 湖南平野에 連結되며 이 平野地帶를 一名 舒川平野라 하며 米穀의 主產地이다. 또 西海와 연하여 漁類養食의 적지로, 또 錦江하구둑 完工과 群·長產業基地 建設로 西海岸時代의 主役으로서의 役割이 期待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韓 山 모 시

모시의 主生産地는 歷史의으로 忠南의 舒川·韓山·林川·扶餘등 一帶이며, 苧麻는 新羅때에 舒川의 乾之山에서 藥草를 캐던 老人이 처음 發見하였다는 說話가 있어 하나의 發生說話이긴 하겠으나 이미 三國時代以前에 삼베와 명주가 있었다고 하니 모시의 新羅發生은 自然스러운 事實

일런지도 모른다.

- 이것이 뿌리가 되고 또 自然과 地域的 與件이 適合한 關係로 그 地域이 모시의 生産地로 이어져 온 것이라 하겠으며, 모시풀은 多年生으로 대개 2m程度로 成長되며 1년에 3번 베어낼 수 있다. 지금 苧麻의 生産과 織造는 一定地域에서 限定되어 있고 그 織布는 “韓山모시”, “韓山세모시”로 널리 有名한데 最近에는 韓山極生苧라고도 表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시의 地域特性은 多分히 그 歷史由來에 根據한 것으로 지금까지 不變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다른 織布와 함께 이 地域 農家 手工業으로 그대로 傳承되고 있다.

모시의 실을은 모시대의 속껍질로 만들어 진다.

속껍질을 물에 담가서 진을 뽑아 부드럽게 하여 햇볕에 널어서 하얗게 바랜다음 다시 물에 적시어 치아로 실을을 하나하나 꼬댄다음 머리칼처럼 가는 실을을 한가닥씩 길게 이어서 씨줄과 날줄을 나라서 베를 메는데, 날콩가루물을 메기고 왕겨불에 말리면서 버메서 베틀에 진다. 모시織造에 있어서도 실을이 끊어지고 바스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一定溫度가 維持되도록 留意한다. 韓山모시는 값싼 化學纖維의 出現으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이를 아끼던 사람들을 애석하게 하고 있다.

韓 山 소 곡 주

韓山소곡주는 韓山面 丹上里 외 2개里에서 빚어져 1,300여년간 扶餘에 都邑을 定한 百濟의 王家에 進上했던 特産物로 指定되며 密造酒로 오늘날까지 내려오

고 있는데 그 맛이 독특하여 술을 잘들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 맛을 보면 자주 찾게 되는데 이러한 韓山소곡주의 製造 秘法은, 優先 찹쌀 1 말과 누룩 2근짜리 두 장을 분말하여 맑은 물에 담가 3日 만에 걸러낸 물에 술을 안 치는데 이 때 엿기름가루 3홉, 고추10개, 생강10뿌리, 들국화 막 핀것 한 주먹을 같이 넣어서 안친다.

이것을 밀술이라고 하며, 7日쯤 지난후 정히 걸러서 찹쌀과 맵쌀을 1대3 으로 곱게 빻아서 흰무리 떡을 만든 다음 가루누룩과 잘 섞어서 물 7 말을 부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00 日쯤 지난후 웃 술을 눌러 노란 술이 솟으면 술이 된다는 것으로 이 것이 바로 소곡주가 되는데, 이 술은 製造過程이 複雜하고 費用이 많이 들어 귀한 손님 接待用 및 名節 祭祀時에만 使用되어 오고 있다.

[地名의 由來]

□ 舒川

- 舒川이란 地名은 高麗末 모 縣監이 赴任하여 보니 이 고장이 비가 조금만 와도 넓은 들판이 浸水되어 收穫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道力으로 現 舒川邑 斗旺里 매바위 앞에서부터 三山, 花衿, 新松을 거쳐 長又灣까지 곧은 河川을 뚫어서 沃土를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도 이 고장을 곧은개(川)라고 하며 이 때부터 내가 펼쳐 나갔다고 하여

펼서(舒)字와 내천(川)字를 써서 舒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長項邑 松林洞 솔밭만들

- 알매재 洞쪽으로 자리한 마을로 솔만들, 간사지라고도 부르는데 1914年 갯벌을 開拓하여 마을을 만들었다. 옛 날에는 앞이 바다였는데 유독 소나무가 무성한 섬이었다 한다.
당시 한 道僧이 여기를 “들어앉을솔섬”이라 하여 솔만들이라 地名을 지어줬는데 그 후 그 말이 들어 맞았다는 마을이다.

□ 鍾川面 朗坪里 주래

- 남골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배가 뜨는 세상이면 마을이 크게 되고 또 배를 기다리는 마을이라고 하여 주래라고 부른다.

□ 鍾川面 都萬里 도마니

- 곱장골 西쪽에 자리한 마을로 風水地理說에 따르면 마을이 많이 들어서서 차츰 한마을 고을을 이룩할 地形이라 한다. 高麗 末葉에는 왜구의 侵入으로 마을이 全燒되어 朝鮮 初期에 다시 이룩된 마을이라 한다.

□ 板橋面 玄岩里 都來

- 玄岩里 中央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이 마을에 고을이 크게 들어설 거라고 전해져서 都來라고 불려 왔는데 現在 板橋市場과 面事務所 및

行政機關이 자리한 마을이다.

□ 韓山面 松山里 차돌배기

- 참새골 동북쪽으로 자리한 마을로 차돌배기라고 부른다. 마을에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이 있어서 차돌배기라고 부른다.

□ 舒川邑 花衿里

- 예로부터 “아름다운 옷”이 나오는 마을이라하여 花衿里라 하였는데 現在 “風井産業”이라는 비단옷감을 짜는 織造工場이 들어서 地名과 一致하고 있다.

□ 麒山面 華山里 무늬골

- 역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골짜기에서 물이 사철 나온다고하여 무늬골이라 부르며, 水出이라고도 불렀는데 변하여 문학골, 문학동이라고 부른다.

□ 麒山面 梨寺里 石洞

- 배질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다 하여 石洞이라고 부르는데, 옛날부터 石質이 좋아서 돌을 다듬어서 절구, 맷돌등을 만들었다. 또 마을 사람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던 풍습도 있었던 마을이다.

□ 舒川邑 花城理 대마골

- 魚隱마을 南쪽에 자리한 마을로 옛부터 마을에 蓮花浮水形의 明堂이 있다고 알려진 마을로 마치 연꽃이 물에 뜬 形局이라 한다. 연꽃이 가득 피어 있는 마을이라 하여 淡花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대마골이라 부른다.

□ 舒川邑 屯德里

- 옛 판산면 地域으로 地形이 둔덕으로 되었으므로 둔더기 또는 屯德里라 부른다.

□ 馬西面 竹山里

- 本來 舒川郡 西部面 地域으로 대밭이 많으므로 竹山里라 부른다.

□ 馬西面 松内里 水逆

- 승내 北쪽에 있는 마을로 錦江물이 이 곳 근처에서 逆水하는 마을이라 하여 水逆이라 부른다.

□ 麒山面 光岩里 빛고개

- 옛날에 방랑길에 나섰던 無學大師가 이곳에 이르러 地形을 살핀즉, 빛이 잘 쬘리고 땅 속에 빛이 서린 땅인 이 곳을 보고 놀라 이 곳을 빛 고개,

光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韓山面 溫洞里

- 本來 韓山郡 동하면 地域으로 더운 샘이 있었으므로 溫水洞, 줄여서 溫洞이라 부른다.

□ 韓山面 九洞里 九水洞

- 노랫골 洞쪽에 자리한 마을로서, 風水說에 따르면 領兵渡江形이란 地形으로 장수가 많은 군졸을 이끌고 아홉 개의 우물을 뻗뻗하도록 陣을 치고 있는 地形이라 하여 九水洞이라 한다.

□ 韓山面 馬楊里 강상구레

- 누에머리 南쪽에 자리한 마을로 江城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지관이 마을을 지나다가 하는 말이 땅위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나 땅속에는 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서 앞으로 큰 고을이 될 地形이라 하여 강상구레라 부른다.

□ 馬山面 芝山里 八芝

- 마을地形은 고리형(環形)으로서 피난처로 널리 알려졌으며 선비들의 낙향지로 으뜸으로 꼽는 신선지라 세상에서 태평한 곳이라 하여 八芝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馬山面 芝山里 갈물

- 지산리 中央에 있는 마을로 마을 부근에 갈마음수형의 明堂이 있다하여 갈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갈증을 느낀 말이 大川의 물을 먹는 형국이어서 마을이 점차 번창해 간다고 한다.

□ 時草面 仙岩里 그절매

- 생바위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산의 형태가 마치 게가 엎드린 것 같은 모양이라 한다. 게는 발이 열 개밖에 없으므로 이 마을에서는 家戶數가 10 호가 넘으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10 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10 호가 들어서 있는 마을인데 그이매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그절매라 부른다.

□ 板橋面 苧山里 모시울

- 산동 東쪽에 자리한 마을로 苧洞이라고도 부르는데 風水說에 따르면 玉女織綿形의 明堂이 있다고 전해지며 옛부터 길쌈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복하게 산다고 하여 모시울이라 한다.

□ 板橋面 板橋里 차굴

- 예전에 도승이 이 곳을 지나다가 앞으로 이 곳에 바퀴 네개 달린 수레가 다니게 될 것이라고 豫言을 하였다 하여 차굴이라 부르다 차굴이라

부르며, 現在 長項線 鐵道와 國道 4號線이 通過하고 있다.

□ 西面 酒缸里

- 本來 비인군 西面 地域으로 수렁이 많으므로 수랑골 또는 주항동으로 부르다가 변하여 酒缸里라 부른다.

□ 馬山面 桂東里 조개터

- 옷발골 南쪽에 자리한 마을로 그 地形이 조개와 같다고 하여 조개터 또는 蛤田이라고 부르며, 이 마을엔 기와집을 지으면 조개가 눌러서 숨을 못한다고 하여 기와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

또 바다쪽으로 防波堤와 모래사장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를 심어서 자라면 조개가 바다로 나갈 수 없어서 자연히 마을이 망한다고 하여 소나무를 자주 伐採한다고 한다.

□ 舒川邑 同山里 백토고개

- 원동산 北쪽에 있는 고개로 고개 위에 백토가 많이 있어서 백토고개라고 부른다.

□ 舒川邑 三山里 고살메

- 질매다리 南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全北 옥구군 개정면에 고살메라는 큰 산이 있었는데 옛날 큰 天地개벽시 暴風雨가 있을 때 錦江으로 떠내려

와서 이 곳에 자리하게 되어 全羅道에서 조곡과 세금을 받아 갔다는 傳說이 전해오는 곳이다. 마을산이 소의 형태이고 산을 파보면 황토흙이 나오다가 깊이 파인 바다의 빨흙이 나온다고 한다. 全北의 고살매가 떠내려 와서 이곳에 자리하였다 하여 고살매라 한다.

□ 舒川邑 新谷里 紙谷

- 새터 南쪽에 자리한 마을로 紙谷이라 부른다. 朝鮮時代に 종이를 만들어 生計를 維持하였다는 마을이다. 마을근처와 산에 닥나무가 많아서 종이를 만드는데 適切하였다 하며 이 곳 종이는 漢陽에서도 크게 알려진 종이였다고 한다.

保 寧 郡



[面積 · 人口]

面積 : 514.76 km² (耕地 : 137.96 林野 : 325.70 工場用地 : 0.26 其他 : 50.84)

人口 : 89,530 名

('91. 9. 30. 현재)

[沿革]

- 車嶺山脈의 줄기인 聖住山에서 南쪽으로 熊川面 海岸으로 뻗은 그 左右와 車嶺山脈이 鳥棲山에서 굽는 그 西쪽의 들과, 北쪽으로는 禮山郡 伽倻山까지 이은 들의 내포地域 아래 쪽에 자리한 地域이 保寧郡이다.

保寧은 三韓時代에 馬韓의 萬盧國이었고, 三國時代에는 百濟의 結己郡 新村이었으며, 新羅時代에는 潔城郡 新邑縣이라 하다가 高麗 제 6 대 成宗 14年(995)에 保寧縣이라 칭하였다.

朝鮮時代 保寧縣은 太祖 6年 (1,397)에 兵馬使를 두어 縣士를 겸하게 하다가 世祖 12年 (1466)에 津을 없애고 縣監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孝宗 6年 (1655)에 다시 保寧縣으로 되어 8個面을 管轄하였는데 제 26 대 高宗 33年(1896)에 地方 管轄 改編에 따라 保寧郡으로 改定되었다.

1914年 府郡面 統 · 廢合令에 의거 藍浦郡, 鰲川郡, 保寧郡의 3個郡을 統合하여 保寧郡이라 하고 10個面 110個里를 管轄하였다.

1963년에 大川邑으로 昇格하고, 1970年 嶺山面 聖住出張所 設置와 1971 周浦面 舟橋出張所 設置, 1983年 鰲川面 漁港出張所를 設置하였다.

1986年 大川邑이 大川市로 昇格分離와 더불어 聖住出張所가 聖住面으로, 1989年 舟橋出張所가 舟橋面으로 昇格되어 現在 11面(周浦, 舟橋, 鰲川, 川北, 靑所, 靑羅, 籃浦, 珠山, 嶺山, 聖住) 1個出張所(漁港)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㉞ 歷史的 特性

- 保寧은 옛부터 萬代榮華之地라는 明堂 터가 많다는 風水地理說에 따라 高麗末에는 中央의 巨物級 學者 · 政治家들이 落鄕하였으며, 朝鮮時代에는 保寧땅이 全國 10大 景勝地에 最優先 包含되었으며, 또 忠淸水軍節度使營이 設置되었던 西海岸의 要衝地로 옛부터 忠孝烈士가 많이 排出되었고 특히, 임진왜란時는 수 많은 義兵이 排出된 忠節의 고장으로 歷史가 깊으며 保寧이라는 文字 그대로 便宜함을 保全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다.

㉟ 地理的 特性

- 忠南의 西南海岸에 南北으로 길게 位置하여 北部는 鳥棲山, 中部에는 聖住山, 南部에는 月明山 등 東北部는 주로 山地이고, 長項線을 境界로 그 以西는 대체로 平地이며 그 사이는 南北으로 길게 山緣緩斜面이 발달되어 山地와 平地의 점이 地帶를 이룬다.

大川, 熊川, 舟橋川등의 流域에 平野가 발달되고 西쪽 海岸地帶에는 많은 干石地와 港浦口 및 섬이 있어 現在 開發이 期待된다.

[地域의 特記事項]

聖 住 山

聖住山은 車嶺山脈의 支脈으로 뺏어내린 山으로 大川市에서 東쪽으로 7 km 地點에 자리한 500町步에 달하는 山이다. 山은 保寧郡 嶺山面, 靑羅面과 扶餘郡 外山面에 걸쳐있는 山으로 높이는 680m가 된다. 風水說에 따르면 禮山의 伽倻山부터 西쪽으로 뺏어간 山脈이 聖住山에서 멎으며 그 안쪽 西海로 面한 들을 內浦라고 부르며 內浦에는 옛날부터 明堂이 많아 人物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한다.

高麗 以後부터는 人物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 많은 씨족이 자리잡게 되었고

같은 內浦에 속하면서 오서산 아래로부터 保守에 속하며 烏堅之間에 도참의 황금지로도 부르는 인맥을 가장 많이 받들고 있는 山이 聖住山이라 한다.

또한 內浦에는 明堂이 2 個가 있는데 北有二代 天下之地는 오서산 北쪽이고, 南有萬年榮華는 오서산 南쪽이라 하는데 도참설에는 南有萬年榮華之地는 聖住山이라 한다.

聖住山 뒷 편에는 白馬洗足形의 穴을 잡고 있는 扶餘의 金海 金씨가 산소를 잡고서 名山임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萬壽山이 있다.

현재 聖住山은 석탄이 많이 埋藏되어 있어서 鑛山으로 한 몫하는 山이기도 하다.

籃 浦 烏 石

籃浦石은 自古以來로 床石으로 有名한데 青名과 烏石으로 區別되며 熊川面, 嵎山面 一帶에서 生産된다.

籃浦石은 床石·碑石·石像등의 建築資料로 愛用되어 왔으며 文패·벼루·화분·玩具등의 石工藝品으로도 많이 利用되고 있다.

石質이 強硬해서 彫刻되는데는 많은 힘이들지만 風雨에 強하여 長久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의 聖佳寺에 있는 朗慧和尚白月菩提塔碑가 烏石으로서 1000余年의 세월이 흘러도 碑石에 새긴 글자가 한 자도 부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좋은 實例이다.

現在 保寧郡에서 唯一하게 特産物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熊川의 籃浦石(烏石)은 돌중의 돌로 크게 脚光을 받고 있다.

[地名의 由來]

□ 保寧

- 우리나라는 開國 이래 頻繁한 外侵과 內患으로 戰亂地域이 되지 않았던 곳이 별로 없으나 保寧(現 周浦面 保寧里)만은 한번도 外侵, 內亂, 政變 및 事變으로 因한 被害를 입은 적이 없으며, 이를 契機로 高麗時代 어느 儒學者가 “萬世保寧之地”라 自讚한것이 契機가 되어 保寧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熊川面 九龍里

- 옛 藍浦郡 熊川面 地域으로 아홉 마리의 용이 하나의 구슬을 다루는 形局(九龍爭珠形)이라 하여 九龍里라 한다.

□ 熊川面 小簗里 냇물

- 작은 황골 南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냇물이라 한다. 年水라고도 부르는 마을인데 땅을 파면 짭짤한 소금물이 나온다고 한다.

□ 周浦面 松鶴里 산고래(산고내)

- 대동 南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마을 들산에 사람의 뼈가 상했을때 약재로 쓰는 산골이라는 약석이 있다 해서 산고래 또는 散古乃라고 부른다.

□ 川北面 長隱里 동이점

- 진구지 서쪽에 동이점이 있다. 이 마을의 논 지층에는 질이 좋은 점토가 많이 있어 옛날에 옹기를 구워 냈다 한다.

□ 川北面 洛東里 날금점

- 옛날에 금이 많이 나오던 마을이라 날금점이라 한다.

□ 川北面 長隱里 맹이

- 마을 지형이 마치 매화꽃이 떨어져 있는 듯한 梅花落地形의 明堂이 있다고 하여 맹이, 매조, 매향리라고 부른다.

□ 靑羅面 內峴里 휘유고개

- 원자울 서남쪽에 있는 고개를 휘유고개라 부른다. 이 고개에서 흰 흙(백토)이 많이 나온다 해서 백현리라고도 부르며, 300여년 전에 한 장사가 바윗돌을 운반하다가 이 고개에서 후유하고 쉬었다 하여 휘유고개라고도 부른다.

□ 靑羅面 蘿院里

- 새말 南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아홉 용이 목을 지키는 地形

이라 하여 구룡목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구룡목이라고 부른다.

□ 靑所面 聖淵里 淸淵마을

- 烏棲山 기슭에 位置한 部落으로 高麗末 때부터 淸淵마을(맑은 못)로 불리어 왔는데 1976년에 淸淵 貯水地가 築造되어 地名과 一致하고 있다.

□ 靑所面 新松里 소룽굴

- 원안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한 지관이 이 곳을 지나다가 산세가 마치 소가 누운 것처럼 생겨서 심신을 가다듬을 사람이 많이 나와서 크게 대성할 곳이라 지목하여 소 누운굴이라 부르라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며 그 후 변하여 소룽굴이라 한다.

□ 嶧山面 龍水里 水弦(물줄)

- 마을 뒤로 山이 있는데 어데서인지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하여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水弦이라 부르며 保寧댐 建設로 언제나 물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聖住面 開花里 은골

- 개화리 하개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은동이라고도 부르는 마을인데 산에 접하여 아늑한 마을이라 은동, 은골이라고 부르며 옛날에 은 광

산도 있었다 한다.

□ 鰲川面 외연도리 황도

- 흙과 돌이 누런 색을 띠어 섬 전체가 누렇다 하여 황도라고 부른다.

□ 鰲川面 校城里 소로구지

- 외옹 북쪽으로 자리한 마을이다. 용이 바다 쪽으로 나가기 위하여 웅크리고 앉아 있는 마을이라서 마을이 크게 된다고 하며 용수가 땅 속에서 솟아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여 서룡곡 또는 서룡곶이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 川北面 洛東里 洛西

- 洛東 서쪽에 있는 마을로 洛西洞이라고도 부르는데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때 달 빛에 비치는 정경이 아름다운 마을이고, 西山에 기우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 낙서라고 한다.

□ 鰲川面 外煙島里 大靑島

- 황해 外煙島 북서쪽에 떠 있는 섬으로서 푸른 돌이 많은 섬이라 靑島라 부르며, 크고 푸른 돌 섬이라 하여 大靑島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川北面 鶴城里 五龍洞

- 마을에 五龍爭珠形의 明堂이 있다 하여 五龍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鰲川面 蘇城里 東門밖

- 소성 동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東門밖, 東門外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성문 밖 동쪽에 자리해 있는데 성터 자리 아래 부분에 화석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 鰲川面 葛峴里 蓮亭洞

- 칩머리 북동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蓮亭洞 또는 연젓골이라고 부른다. 마을에 蓮花淨水形의 明堂이 있다 해서 蓮亭洞이라고 부르는 마을이다.

□ 川北面 弓浦里 원적골(온천동)

- 궁포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 적부터 원적골 샘샘에서 약수가 나왔다해서 이 곳을 약수터라 했는데, 이 샘에는 溫泉에서 나는 水草가 돌고 겨울에도 이 샘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눈이 내려도 1/5밖에 안쌓이며 눈보라가 내리는 겨울에도

溫和하기 때문에 溫泉洞이라고 일컬어진다.

□ 靑所面 竹林里 紅桃源

- 靑所面 所在地에서 약 5km 北쪽의 산간마을을 紅桃源이라고 한다.
이 곳은 오서산의 낙맥인 아차山을 지고 앉아서 桃花落地를 實感케 하였다고 한다.

□ 聖住面 聖住里 먹방골

- 朝鮮時代に 瑞山서 鐵의 原料를 날라다 이 곳에서 주철을 했는데, 나무를 때어 많은 그을음이 나와 그 그을음을 利用하여 먹을 만드는 골이라서 먹방골이라 하였다. 지금도 먹방이라는 골이 있고, 주철을 한 흔적도 있으며 現在는 炭田地帶로서 옛 이름 그대로 검은 땅의 먹방이 아닌가 한다.

青 陽 郡



[面積 · 人口]

面積 : 469.39 km² (耕地 : 117.47 林野 : 307.84 工場用地 : 2.13 其他 : 41.95)

人口 : 53,621 名

('91. 9. 30. 현재)

[沿 革]

- 靑陽은 百濟時代에는 古良夫里縣이라 하고 新羅 景德王때에 靑武 또는 靑正이라 改稱하여 任城郡에 속하였음. 高麗 初에 現 郡名 “靑陽”이라 하였고 縣宗 9년(1018)에 天安府에 속하였다가 그 후 洪州에 이속하였음. 朝鮮 太祖 4년(1395)에 監務를 두었다가 太宗 13년(1413)에 地方制度 改定에 따라 縣監이라 하였다.

縣宗 5년(1664)에 定山縣에 併合하여 定陽이라 칭하였다가 10년 후인 縣宗 15년(1674)에 定山과 分離하고 靑陽縣을 復說하여 朝鮮 末까지 洪州鎭管에 속하였다.

한편 定山은 百濟時代 悅己縣으로 豆陵尹城이라고도 하였는데 新羅 景德王때에 悅城이라 개칭하여 扶餘郡에 領縣 되었다가, 高麗 初에 定山이라 개칭하여 縣宗 9년(1018)에 公州에 속하였다가 후에 監務를 두었으며, 朝鮮 太宗 13년(1413)에 縣監이라 하였고 縣宗 5년(1664) 靑陽縣과 併合 定陽이라 하고 縣宗 15년(1674) 靑陽과 分離 定山縣을 復設하여 公州鎭管에 영속되었다.

高宗 32년(1895)에 靑陽郡과 定山郡으로 되었다가 1914년 府郡面

廢合에 따라 靑陽郡과 定山郡을 併合하여 靑陽郡이라 하고 10個面 115個里가 되었으며 1979년 靑陽面이 靑陽邑으로, 1987년 赤谷面이 長坪面으로, 斜陽面이 南陽面으로 개칭되어 현재 1읍(靑陽) 9個面(雲谷, 大峙, 定山, 木, 靑南, 長坪, 南陽, 化成, 飛鳳)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 歴史的 特性

- 청양군은 금속병용기 시대의 유물, 유적이 집중되어 있으며 군사상의 요충지로서 백제시대의 우산성, 두릉이성, 지곡리토성등이 있으며 백제 멸망 후에는 백제 부흥군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신라시대 고찰인 장곡사와 조선조에는 효자, 열녀, 유학자가, 구 한말에는 홍주의병(민종식대장)과 태안의병(최익현선생)을 주도하는 등 충·효와 예학이 뛰어난 고장이다.

㉡ 地理的 特性

- 청양군은 충남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車嶺山脈 줄기의 七甲山을 중심으로 동쪽에 4個面, 西쪽에 5個面 1個邑으로 짜여진 전형적인 山村地域으로서 수려한 산과 계곡과 들로 명당이 많다 하여 별 陽字를 붙여 靑陽이라 불렀다 하며 최고봉인 도립공원 칠갑산의 준령과 해풍을 막듯 오서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통오달인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서해안 時代의 배후도시로 기대가 크다.

[地域의 特記事項]

七 甲 山

道立公園으로 指定된 名山으로서 海拔 561 m로 大德峰과 3 兄弟峰을 중심으로 大小諸峰과 여러 溪谷을 形成하여 靑陽郡의 分水嶺을 만들고 있어 여러 河川이 이 七甲山에서 發源한다.

산중에는 森林이 우거져서 景觀을 이루고 있으며 長谷寺, 定慧寺 等 名刹이 있으며 道林寺址가 殘存하여 往時の 佛字가 엿보이고 있으며, 이 산의 중간허리를 國道 36 號선이 貫通하고 있으며 貫通된 大치고개에는 勉旃 崔益鉉 先生의 銅象이 있다.

七甲山은 佛教에서 萬物生成의 七大根源인 地, 水, 火, 風, 見, 識, 空을 들어 十干支의 으뜸인 “甲”字를 따서 七甲山이라 명명하였다고도 하며 甲字型으로 明堂이 7 個 所가 있다하여 七甲山이라 하였다는 由來도 있다.

[地名의 由來]

□ 靑陽

- 古地名인 “古良夫里”의 夫里는 “벌” “벼루”의 轉音으로 江岸또는 平野의 지명에 쓰이던 古語이며 古良은 靑을 뜻하므로 古良夫里와 靑武(靑正)은 같은 뜻으로 靑陽은 고려초에 靑武의 靑字와 山勢秀麗하고 明堂이 많다하여 靑 陽子를 붙여 靑陽이라 불렀다한다.

□ 靑陽邑 軍糧里 군량동

- 구시터 동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군량동, 군량골이라고 부른다. 이조때부터 軍糧을 쌓아 두었던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옛날의 토성도 자리한 마을이다. 옛날의 구전에 따르면 고리섬에 물이 가득 차면 이 마을을 통해서 화성면으로 물이 넘어 간다 하여 무넙교라고도 불렀고, 마을 입구에는 배가 드나들었다 하여 넉배라고도 불렀으며 넉배에서 산알등으로 토성을 쌓고 화성을 거쳐 대천으로 군량미를 날랐다 한다.

□ 靑陽邑 邑內里 빙곶재

- 읍내리 2구 북쪽 산기슭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빙곶재라고 부른다.

창들로 넘어 가는 등성이에 자리한 마을로서 등성이에 신라때부터 겨울에 어름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쓰는 빙고가 있었다 하여 빙곶재, 빙곶현이라고 부른다.

□ 靑陽邑 靑水里

- 옛 서하면 地域으로 산골이 되어 많은 물이 늘 흐른다 하여 청수골, 청수동, 靑水里라 부른다.

□ 靑陽邑 赤樓里

- 옛 남상면 地域으로 흙 빛이 붉고 누르다 하여 누레기 또는 赤樓里라 부른다.

□ 大峙面 炭井里 (숯골)

- 대치면에 숯골 또는 탄정리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옛부터 ‘석탄 또는 숯을 쏟아내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리어져 왔다.

그런데 이 곳 청양 광업소에서 무연탄을 캐내고 있어 이름과 현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 곳 칠갑산 일대는 자연산물의 보고(寶庫)로서 주변에는 금, 은, 납, 구리, 아연, 텅스텐, 플리브텐, 무연탄, 흑연 같은 것이 생산되고 있으며 금은 구봉광산과 삼광광산에서, 텅스텐은 청양광산에서, 무연탄은 청양탄광, 운곡탄광, 대소탄광에서 생산되고 있다.

□ 大峙面 廣金里 냉천

- 칠갑산 준령 동남방 끝으로 황금리 안에 있는 웅달샘을 냉천이라고 부른다.

물이 차고 약효가 있는 샘이라 냉천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한 노파가 이 곳 부근에 암자를 짓고 불도를 닦고 있는데 하루는 꿈에 “지금 물을 먹지 말고 지금의 샘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바위가 있으니 그

아래를 조금만 파보면 약수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 노모가 꿈에 나타난 대로 그 쪽으로 가서 바위 아래를 파 본즉 물이 나왔는데 물이 어찌도 차고 또한 약효가 있는지 그 후부터 냉천약수터라 한다. 지금도 피부병 환자들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드는 샘이다.

□ 大峙面 九峙里 구재

- 마을 주위가 長林으로 둘러 쌓인 것이 마치 병풍을 두른 것 같다고 하는데 四方으로 계곡을 이루고 있어 이 마을로 들어서려면 아홉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해서 구재 또는 구터라 부른다.

□ 大峙面 柿田里 舞仙洞

- 독락정 북쪽의 커다란 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로 그 형국이 마치 仙女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무선동이라 부른다.

□ 大峙面 五龍里

- 옛 동상면 地域으로 용내, 용바위, 용왕물, 청룡날, 용뽕병등 용이 사는 곳이 다섯이 있으므로 五龍골 또는 五龍里라 부른다.

□ 大峙面 水石里 下光

- 이 마을은 아래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와서 장차 크게 될 사람이

배출될 것이라 하여 下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大峙面 水石里 牛金山

- 소가 누운 형국이므로 우금산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곳에서 사금을 캐내서 우금산이라는 이름이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

□ 定山面 鶴岩里 마근골

- 학바위 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마근골이라고 부르며, 地形이 마을을 막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 이 마을은 북쪽이 산으로 옥풍처럼 둘러 싸여서 기후가 온화하며 마을이 비산비야에 자리하고 있어서 모시와 삼을 재배하는데 상지로서 신라때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모시와 마(삼)을 재배하여 생업으로 삼았었다. 그래서 이조때만 하여도 한양에서 모시하면 정산을 가르쳤고 정산에서도 유근동의 것을 최고품으로 생각하였다 한다. 산골에 자리하였으나 기후가 매우 온화한 곳이다.

□ 定山面 松鶴里 飛鳳골

- 松鶴里 南쪽에 있는 마을로 飛鳳抱卵形의 明堂이 있다 하여 飛鳳골이라 부른다.

□ 靑南面 東江里 창강나루

- 외동 앞으로 나루가 있는데 이 나루를 창강나루라고 부른다.

이조때 나라의 창고가 있어서 군량이 있었는데 나루를 건너며 군사적으로 크게 활용될 나루로 주목이 되던 나루다.

□ 大峙面 酒亭里

- 酒亭里는 일명 술골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 곳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대치양조장이 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술 맛이 좋아 성업중이며 어찌면 술골에 양조장이 들어선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靑南面 泉內里 용바위

- 천둥 동쪽으로 강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 부른다.

용바위에는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물결이 솟구치는데 이 곳엔 용이 살고있다 한다. 이 곳에선 수차 용이 승천했다 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여기에 사는 용이 노한 탓이라고 여겨 옛날에는 고을 현감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한다.

지금도 한해가 심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바위다.

□ 靑南面 上場里 용잔말

- 반룡동과 막골사이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용잔말이라고 불리

우는 마을이다. 산세를 타고 용이 승천을 위해 땅속에서 기도를 하는 곳이라 하는데 풍수설에 따라 용잔말, 용정말이라 부르고 있다.

□ 長坪面 美堂里 미당장터

- 미당리에 있는 장터로서 3일, 8일에 장이 서는데, 장으로선 크며 옛날부터 널리 알려진 장이다. 미당장터를 또한 닳바골이라고도 부르는데, 풍수설에 따르면 이 곳의 地形이 배와 같고 마치 배가 닳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장터엔 아무데나 옛날에는 우물을 못파게 하였는데 배 밑창에 우물을 파면 배가 바다에 갈아얕게 됨으로 그렇게 하였으며 배가 닳을 내리고 있는 그 쪽으로 우물을 파게 하였다 한다.

□ 南陽面 梅谷里 소란

- 매곡리의 산 속으로 가다 보면 소란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산 속에 자리한 마을로써 지형이 소가 풀을 뜯는 형국이라 소뎨발이라고 불렀는데 변하여 소란이라고 부른다. 매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南陽面 金井里

- 本來 남하면 地域으로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百濟 의자왕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 하여 金井里라 부른다.

□ 南陽面 溫直里 斜陽峙(고개)

- 溫直里에서 扶餘郡 은산면으로 넘어 가는 고개로 百濟 의자왕이 金井里에 있는 금정의 물을 길어다 먹는데, 금정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 가지고 부여 궁중에 바치고 돌아올 때 이 곳에 이르면 해가 기울었다 하여 斜陽峙라 부른다.

□ 南陽面 九龍里 오룡골

- 九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로 다섯 마리의 용이 구슬을 다루는 形局(五龍爭珠形)이라 하여 오룡골이라 부른다.

□ 化城面 九在里 어재동

- 마을의 地形이 고기가 노는 形局이라 하여 魚在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마을 앞에 못이 있었는데, 메워진 것을 1949년에 다시 마을 앞에 파놓았다.

□ 化城面 山亭里 제비고개

- 모듬내 서남쪽에서 화강리로 넘어 가는 고개를 제비고개라고 부르며 고개에 제비형국의 명당이 있다 해서 제비고개라고 부른다.

□ 化城面 長溪里 金鷄洞

- 저부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金鷄抱卵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금계통이라 부르며 금닭이 알을 품고 있어서 아들을 얻은 아낙네가 天神께 정성을 드리면 그 아들이 크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 飛鳳面 江亭里 가칠미

- 새재 서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가칠미라고 부르며 마을앞에 펼쳐진 들을 개뜰이라 하였으며, 옛날에 이 곳까지 강물이 들어와 바다와 통해서 배가 왕래하였다 한다. 지금도 땅을 파 보면 나무 배 조각이 나오는 들이 갯가였다 해서 갯뜰이라 부른다. 그 당시 높은 자리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집이 일곱집이 있었고 그 가옥 칠호의 마을이 어찌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은 이 마을을 가르켜 가칠미라 부르며 극찬한 마을이라 한다. 집 일곱채의 마을이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 후 또한 가칠호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주동이라고도 부른다 한다.

□ 飛鳳面 中墨里 알봉산

- 중묵리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알처럼 생겼다 하여 알봉산이라 하며 비봉산의 봉이 알을 품은 形象이라 하여 풍수사들이 많이 드나든다고 한다.

□ 飛鳳面 長在里 만가대

- 마을과 그 부근의 터가 넓고 비옥한 땅이어서 萬家が 들어 앉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萬家垔라 부른다.

洪 城 郡



[面積 · 人口]

面積 : 421.53 km² (耕地 : 162.0 林野 : 212.0 工場用地 : 0.1 其他 : 47.43)

人口 : 105,469 名

('91. 9. 30. 현재)

[沿 革]

- 三韓時代에는 馬韓의 54國中 監系卑 離國과 驪盧國에 속해 있다가 百濟때 牛見縣이었으며 統一新羅時代에는 伊山郡내의 目牛縣이었음.

高麗 成宗14년(995)에 運州라 稱하고 縣宗3년(1012)에는 洪州로 改稱하고 州知事를 두었다. 공민왕 7년(1358)에는 牧으로 되어 牧使를 두고 공민왕 20년(1371)에는 5郡14縣을 管轄하였다.

朝鮮 縣宗8년(1667)에는 縣으로 되어 洪陽縣으로 改稱하여 27個面을 管轄하다가 이 후 高北, 高南을 각각 上道面, 下道面으로 나누어 29個面이 되었다.

高宗 32년(1895) 忠南을 公州府와 洪州府로 나누고 洪州府에서는 22郡을 管轄하였으며, 이 때 洪州府內의 洪州郡은 20個面을 管轄하다가 建陽元年(1896)에 洪州郡이 되었다.

1914년 行政區域 廢合에 따라 4個面을 靑陽郡으로 넘겨주고, 州南 · 州北의 2面을 合하여 洪陽面으로, 雉寺 · 洪天 · 大監의 3面을 合하여 洪北面으로, 洪安松 · 金洞 · 番川의 3面과 松枝谷面 일부를 合하여 洪洞面으로, 坪面과 松枝谷面 일부를 合하여 金馬面으로, 鳥史 · 酉谷 ·

城枝의 3面을 合하여 長谷面으로 古南上道 · 下道を 合하여 葛山面으로 縣內 · 龍川을 合하여 結城面으로 廣川 · 躬耕의 2面을 合하여 廣川面으로, 구항화산 · 斗岩의 2면을 합하여 구항면으로, 銀河 · 加山の 2面을 合하여 銀河面으로 上西 · 下西의 2面을 合하여 西部面으로 고쳐서 11개 面을 管轄함. 1941년 洪陽面을 洪城邑으로 1942년 廣川面을 廣川邑으로, 각각 昇格하여 現在 2邑 9個面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歷史的 特性

- 洪城은 萬海 韓龍雲, 崔瑩將軍, 成三門등이 배출된 忠節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으며 고려 공민왕때에는 牧使가 行政責任을 맡는 고을로 昇格되어 인근의 平澤, 靑陽, 牙山, 唐津등 14개 郡에 병마절제사를 두는 등 忠南西部地域의 行政 및 軍事的 중심지였으며 찬란한 민족문화의 꽃을 피운 유서깊은 고란사, 용봉사, 마애석불 등이 있으며 백야 김좌진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의 生家가 있다.

㉒ 地理的 特性

- 忠南 西海岸邊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으며 交通上으로는 天安-洪城-長項, 天安-洪城-瑞山으로 연결되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는 등 四通八達의 교통의 중심지이며 서해안 시대를 맞아 群 · 長 産業基地開發, 安眠島國際休養觀光地開發 등을 考慮할 때 배후기능을

分擔하는 도시로서의 役割이 期待되는 등 洪城은 開發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洪州義士塚

洪城邑 大校里에 地方文化財 第4號로 指定되어 있는 洪州義士塚은, 1905년 乙巳條約(을사조약)이 強制로 체결되어 國權이 日人の 손으로 넘어갈 때 義憤을 참지 못한 전 이조 참판 閔宗植이 채광목, 이만식 등과 중심이 되어 의병을 일으켜 洪州城 싸움터에서 殉國한 數百名の 義兵들의 遺骸가 합장되어 있는 墳墓이다.

義兵長 閔宗植은 1906년 3월 의병을 모아 남포와 보령 등지의 日軍을 습격한 후 홍주성을 공략하여 다시 탈환하였으나 왜군의 공격을 받아 10여일 격전끝에 중과부적으로서 마침내 조양문(東門)이 파괴되고, 의병 수백명이 전사하여 시체가 대교리 일대의 야산과 남산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한다. 40여년간 방치되어 오던 유해를 1949年 郡民의 精誠으로 이 곳에 合葬하여 후세인들에게 선인들의 애국충절의 큰 뜻을 전해 주고 있다.

龍 鳳 山

험준한 모습으로 홍성의 북방을 가로막고 있는 용봉산은 해발374m의 홍성의 명산으로 홍성에서 덕산까지 30리를 일자로 뻗어 있는데 북쪽은 수암산(秀岩山)이라고 한다. 산세가 용의 형상에 봉화의 머리를 닮았다는 이 산은 경치가 뛰어나 많은 등산객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용봉사란 고찰(古刹)이 있다.

사찰 입구 암석에는 마애불(磨崖佛)이 있고 용봉사 북편 산북 50m 지점에 마애석불이 있는데 국보 제355호로 지정되어 있다.

[地名의 由來]

□ 洪城

- 홍성이란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結城郡 10개면, 保寧郡, 鰲川郡, 靑陽郡, 德山郡, 大興郡 各 一部를 편입하여 洪城郡이라 하였는데 洪城郡의 洪 字와 結城郡의 城 字를 따서 洪城이라 불렀다 한다.

□ 洪城邑 大校里

-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대간동과 교동의 이름을 따서 대교리라 하였는데, 대교리라는 이름답게 홍성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인근에 홍

성여고, 홍성여중 등 많은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 洪城邑 松月里

- 마을 앞에 내가 잔잔하게 흐르고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형상이 달처럼 생기고 마을에 큰 소나무와 큰 바위가 많이 있어 소나무 松 자와 地形이 달과 같다 하여 달 月 자로 마을 지명이 내려 오고 있다.

□ 洪城邑 鶴鷄里

- 옛날에 마을 시냇가에 鶴이 많이 날아 오고 마을 뒷산에는 金鷄抱卵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鶴 자와 鷄 자를 합하여 鶴鷄里라 하고 지금도 내려 오는 명당 자리를 찾고 있다 한다.

□ 洪城邑 南長里 함박골

- 남산 북쪽 기슭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함박골이라고 부르고 함박골에 있는 우물을 함박우물이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지금의 南長里 2구 함박골에 작은 庵子가 하나 있었고 그 庵子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을 함박우물이라고 불렀었다. 이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이 부근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우물로 몸을 닦으며 100일간 지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 해서 지성을 드리곤 하였다 한다. 또한 가뭄이 심할 때는 洪州 원님이 이 샘에서 祈雨祭를 지내면 꼭꼭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있는 샘이다.

□ 洪城邑 月山里 月溪마을

- 月山 東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월계라고 부르며, 洪州의 鎮山으로 부르는 日月山 溪谷의 고은곡에 고은산수와 함께 자리한 마을이라 月溪라고 부른다.

□ 洪城邑 新城里 배암성

- 든별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꽃봉산이란 산이 마을을 두르고 있고 산의 협곡이 뱀과 같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사성골 또는 배암성이라 부르며 이 마을에 長蛇追蛙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洪城邑 龜龍里 龜山

- 구룡리 북편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을 龜山이라고 부른다. 산의 모양이 거북이가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라 龜山이라고 부르는데, 龜山은 山勢가 좋아서 명당 자리가 많다 하여 옛부터 地官들이 자주 드나들던 산이며 옛부터 名官들의 墓地로 많이 선택되었던 산이다. 아래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도 山名따라 龜山이라고 부른다.

□ 廣川邑 新津里 다진

- 新津里에는 다진이란 부락이 있는데 이 마을을 다나라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마을까지 배가 와서 그 때 강물에 떠 있는 배의 돛대가 마

치 꽃처럼 보였다 하여 단애라 불렀으며 그 후 변해서 지금은 다나래,
다진, 다나루라고 부른다.

□ 廣川邑 内竹里 죽전

- 廣川邑 内竹里에는 内竹, 竹田이란 2개 部落이 있는데 内竹部落은 이
조초기부터 대나무로 유명하다 하여 대밭(竹田)이라 칭하였다 하며 竹田
도 그런 이유에서 붙여진 지명으로 생각된다.

□ 廣川邑 雲龍里 雲洞

- 구룡洞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구름이 끼면 그 운치가 형용할
수 없이 곱다하여 雲洞이라 부른다.

□ 廣川邑 佳亭里 감골

- 廣川邑 佳亭里 시곡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작은 자연부락이 있는데 감
골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감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라 감곡, 柿谷, 감나무
골, 감골이라고 부르며 마을이 수려하다 하여 佳柿谷이라고 부른다.

□ 廣川邑 甕岩里 노동

- 廣川邑 甕岩里에는 노동이란 部落이 있는데 노동이란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수만 항구의 하나로 인근에 웅암포가 위치하고 있는

데 과거에는 해수가 노동부락에 넘나들었으며 그로 인해 갈대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다. 따라서 부락명을 갈대골이라 불렀고 지금도 일명 갈따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명인 노동의 첫째글자는 갈대라는 뜻이라 한다.

□ 廣川邑 烏棲山

- 內浦를 막아주는 방벽으로 성인이 산다는 산이다. 성인이 새를 몰고 놀러 앉은 산이라 오성산이라고 부르다 변하여 오서산이라 부르며, 사실은 충청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두번 째로 지적되어 가끔 운다는 전설도 전해 오는 산이다.

□ 洪北面 中溪里 洪川

- 돌담 안 동북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洪川이라고 부른다. 月山里 龍鳳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냇물이 이 곳에서 합류하여 큰 내를 이룬다 해서 洪川이라고 부른다.

□ 洪北面 新井里 풍덕골

- 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부근 水源이 좋아서 어느 해나 풍년이 든다 하여 풍덕골이라 부른다.

□ 洪東面 月懸里 鍾懸

- 개월 북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뒤에 鍾懸峯이라는 100m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모양이 鍾을 닮아맨 형국이라 하여 鍾懸이라 부른다.

□ 洪東面 求精里 金盤陽

- 동막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金盤처럼 생겼다고 하며 또한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金盤陽이라 부른다.

□ 長谷面 花溪里 沃溪

- 꽃밭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風水說에 따르면 마을의 山水가 수려하여 큰 인물이 나올 곳이라 하여 沃溪라 부른다.

□ 長谷面 山城里 瀋溪

- 원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뒷 산에는 돌이 많고 마을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瀋溪라 부른다.

□ 銀河面 柳松里 버드재

- 덕달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이 뺄어 내린 곳에 마을이 있으며 옛 날부터 버드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라 하여 버드재 또는 유현이라 부른다.

□ 結城面 琴谷里 海倉마을

- 結城面 琴谷里 해동마을에는 해창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이씨조선 초기에 정자머리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었으며 이 창고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다 하여 海倉이라 일컬어 오고 있다.

□ 西部面 陽谷里

- 이조말엽 結城郡 하서면 地域으로 양지바른 골짜기가 되므로 陽谷리라 부른다.

□ 葛山面 富基里 붓골

- 富春山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서 풍수설에 따르면 장수가 말을 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북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형국이라 장수가 나올 명당이 있는 마을이라 한다.

□ 葛山面 雲谷里 가오티

- 마을에 다섯 가호가 넘으면 마을에 天災가 따른다 하여 다섯 가호만 거주하는 마을이라 하여 가오티라 한다.

□ 葛山面 吹笙里

- 마을에 仙人吹笙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吹笙리라 부르게 된 마을이다.

□ 葛山面 鰲頭里

- 옛 고남하도면 地域으로 地形이 자라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자라머리 또는 鰲里라 부른다.

□ 葛山面 新安里 九城

- 아홉 봉우리가 성같이 둘러 있다 해서 九城, 구성골이라 부른다. 이씨조선 초엽에 이성계가 이곳의 비옥한 땅과 들을 풍수설에 따른 王都로 지목되는 장소라 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외따로 떨어져서 아쉬워 하였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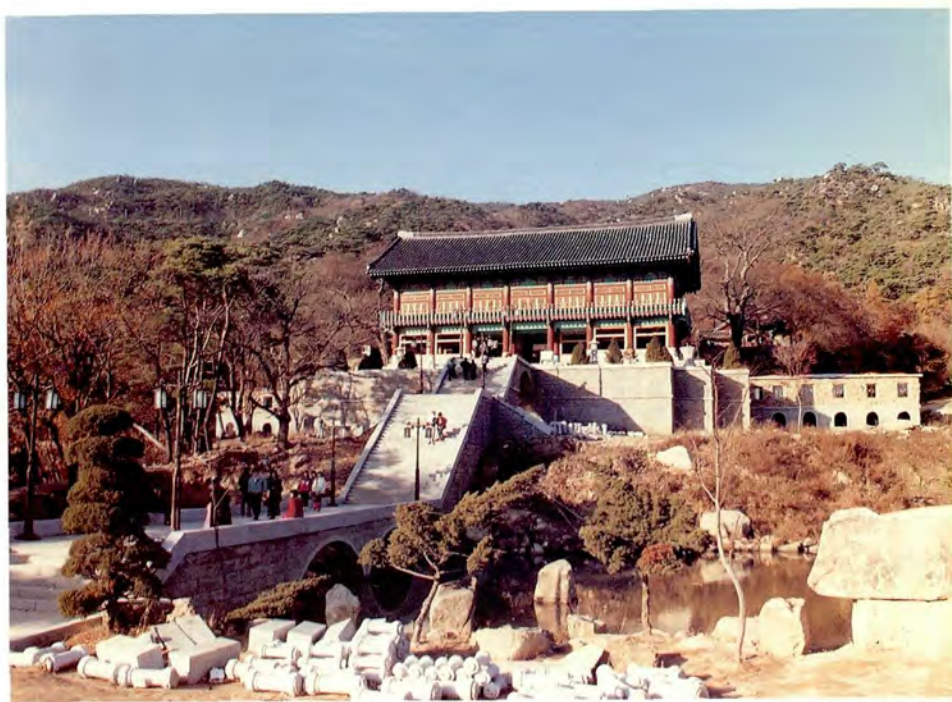
□ 龜項面 麻溫里 溫洞

- 마근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마을이 온화하다 하여 온동, 온배미라 부른다.

□ 龜項面 胎封里

- 왕실의 명맥을 묻는 태의산은 산 높이가 낮고 명산이 아니면 왕실의 태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구항에 옛날 왕실의 태를 묻는 산이 있는데 왕자형의 명산이어서 그 곳에 왕실의 태를 묻었다는 소문이 나자, 그 산에다 태를 묻으면 자손이 잘 된다 하여 여러 사람이 태를 묻었는데 그 후로 그 산을 태봉산이라 하고 그 동네를 胎封里라 하였다 한다.

禮 山 郡



[面積 · 人口]

面積：541.2km²(耕地：195.6 林野：257.3 工場用地：0.3 其他：88.0)

人口：132,503 名

('91. 9. 30. 현재)

[沿 革]

- 禮山郡은 禮山郡, 德山郡, 大興郡 各 一圓이 병합된 지역으로 이 중 核心인 禮山郡은 本來 百濟의 烏山縣이라 하여 金烏山에 治所를 두고 新羅 景德王때 孤山으로 改稱하였으며 任城郡의 領縣이 되었음.

高麗 太祖 2년(919) 현재의 禮山으로 고치고 懸宗 9년(1018) 天安府에 소속되었다가 朝鮮 太宗 3년(1413)에 縣監이 되어 9個面을 管轄하였음.

高宗 32년(1895) 地方 官制 改正에 依하여 天安郡의 新宗面을 編入하고 1914年 府·郡·面 廢合에 따라 德山郡의 縣內面의 10個面과 大興郡의 邑內面의 7個面과 公州郡 新上面의 8個里와 新昌郡 南上面의 5個洞里와 汚川郡 合北面의 2個里, 洪州郡 高南下道面의 多個里, 青陽郡 西上面의 一部를 併合하여 禮山郡을 設置하고 任城, 插橋, 大述, 新陽, 光時, 大興, 鷹峰, 德山, 鳳山, 古德, 新岩, 吾可의 12個面으로 改稱하였다.

1917年에 任城面을 禮山面으로 고치고 1940년 禮山面을 邑으로 昇格하였고 또한 1973년 插橋面을 邑으로 昇格하여 現在 2邑 10面 177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歴史的 特性

- 禮山은 百濟文化圈에 속해 있어 찬란한 民族文化의 꽃을 피운 유서깊은 역사유적을 간직한 곳으로 수덕사의 대웅전, 任存城, 예산 사면석불, 남연군묘, 추사 고택, 윤봉길 의사 사적지등 소중한 문화유산외에 1910년 호서은행이 설립될 정도로 충남 서부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다.

㉒ 地理的 特性

- 예산은 지리적으로 충남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잘 발달된 구룡지와 예당저수지, 무한천, 삼교천의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비옥한 예산평야를 바탕으로 선진 농업군으로 발전하면서 덕산온천등 천혜의 관광 자원과 충남 서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서해안시대 배후의 휴양관광지로 도약해가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德 崇 山

德山面 사천리 도립공원 德崇山은 높이 495m로서 호서의 금강산이라 일컬어 질 만큼 산의 자태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이다. 상봉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계곡 물은 기암 사이를 흘러 내려 폭포나 연못을 이루며 노수 고목이 우거져서 깊은 계곡을 이루는데 이

계곡물가에 크고 작은 암자와 누대가 여기 저기 자리 잡고 있다.

덕숭산 산정에서의 조망은 예산, 홍성, 당진, 서산 지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경관이 장관을 이룬다. 명산에는 그에 어울리는 유서깊은 절이 있는데 덕숭산에도 명성 높은 수덕사가 자리 잡고 있다.

수덕사는 백제 29대 법왕 원년(599)에 지명법사가 창건, 근세에 송만견 선사가 주석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친 수도 선장이다.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건립된 대웅전은 국보 제 49호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유명하다.

[地名의 由來]

□ 禮山

- 예산이란 지명은 고려 태조 2년에 오산성(烏山城)에 덕(德)과 예절이 바른 유민(流民) 500명을 선발하여 안집(安集) 시키면서 예절 바른 유민을 뜻하는 “禮”자와 오산성의 “산”(山)자를 따서 “禮山”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실제 강인한 성품으로 예를 높이 받들고 문(文)을 숭상했으며 의(義)를 지키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절의 고장으로 그 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 禮山邑 大回里 무너미

- 담박골 위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무너미라고 부른다. 대

홍면 대를리의 물이 거꾸로 넘어 댄 마을로 흐른다 하여 물넘어라고 부르던 마을인데 변하여 무너미, 무네미라고 불리지고 있으며 대회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禮山邑 禮山里 쌍소나무배기

- 현 군청의 동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쌍소나무배기라고 부른다. 쌍송동, 쌍수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쌍소나무가 서 있다 해서 쌍소나무배기라고 부르고 있다.

□ 禮山邑 禮山里 용바위

- 금오산에 용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바위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 해서 용바위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무기가 백년 수도하는 바위라고 전해지고 있다.

□ 禮山邑 新禮院里 황소바위

- 황소가 누운 것 처럼 생겼다 해서 황소바위라고 부른다. 풍수설에 따르면 명당 자리가 있다는 지형에 바위가 있어서 정기를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황소바위에서 앞으로 梅花落地形의 명당을 찾아서 그 중간지점 자갈 위에 황토가 있는 자리를 발견만 하면 팔정승이 나온다고 해서 지관들이 옛날부터 많이 찾은 장소라고 한다.

□ 禮山邑 新禮院里 용곡리

- 新禮院 동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용곡리라고 불리고 있음. 용골이라고도 부르는데 골짜기가 수려하여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골짜기에서 용이 올라 갔다 하여 용곡리라 불리워지고 있다.

□ 禮山邑 倉所里 서두물

- 마을에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形局이 서생원(쥐)의 머리같다 하여 서두실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지런하다는 상징이 된다. 서두물 바깥 쪽에 자리한 마을은 서전리라고 부르고 서두실 안 쪽으로 자리한 마을은 내소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삼교천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까지 새우젓배가 드나들던 곳이기도 하다.

□ 禮山邑 水鐵里

- 조선시대 말엽 예산군 금평면 地域으로 무쇠가 많이 난다 하여 무쇠골 또는 水鐵里라 부른다.

□ 插橋邑 插橋里 삽다리

- 插橋川에 옛날에 가설되었던 다리를 삽다리라고 불렀다. 쇠으로 다리를 놓았다 하여 쇠다리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삽다리라고 불렀는데 그 다리 부근에 있는 마을을 다리 이름을 따서 삽다리라고 부른다.

□ 插橋邑 龍洞里

- 마을 地形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머리, 용두리가 변하여 龍洞里라 부른다.

□ 插橋邑 沐里

- 옛 대덕산면 地域으로 찬 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沐浴을 하였다 하여 沐里라 부른다.

□ 插橋邑 新里 五相里

- 뒷내 남쪽에 있는 마을로 다섯정승이 날 명당이 있다 하여 오생이, 오상리라 부른다.

□ 大述面 麻田里 武城里

- 냇물이 성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하여 武城里라 한다.

□ 大述面 花川里 텃굴

- 花川里 꽃밭으로 이어진 들에 자리한 마을로서 풍류객들이 누구나 한번 살기를 원하는 마을이라 텃굴이라 부른다.

□ 新陽面 貴谷里 밀무리

- 옛날에 황해의 밀물이 이 곳까지 들어 왔는데 그 포구였다 하여 밀무리라 부르며 충남에서 가장 뛰어난 蟹伏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 新陽面 時旺里 불운동

- 新陽面 시왕 동쪽으로 위치한 마을로 불운리라고도 부른다. 구름이 필요없이 항상 청운을 자랑하는 산과 들에 자리하는 마을이라 불운동, 불운리라고 부른다.

□ 新陽面 晩士里 晩士洞

- 新陽面 晩士리에 있는 마을로 옛날부터 지형이 아름다워서 인생을 소요하기 좋은 곳이라 많은 선비들이 모여 들어 자리를 정했던 마을이다. 선비들이 만년을 즐기는 마을이라 만사동이라 부른다. 현재 이 마을에서 대학 교수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 新陽面 西界陽里 두련이

- 마을에 蓮花浮水形의 명당이 있으며 두견새가 자주 찾는 마을이라 두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新陽面 西界陽里 걸치기

- 풍수설에 따르면 蟹伏形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로서 예로부터 이

곳에 정착한 농부들이 들에서 격양가를 소리 높여 부르며 태평을 누렸다 하여 격양이라고 부르다가 변하여 글치기, 이어 걸치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光時面 九禮里

- 本來 대흥군 일남면 地域으로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지다 하여 구레골, 구레, 九禮里라 부른다.

□ 大興面 校村里 召泉

- 향교말에 딸린 마을로 召泉이란 마을이 있다. 옛날부터 샘물이 좋은 우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 들었던 마을이라 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샘이 사람을 따르는 마을이란 뜻으로 召泉이라 불렀다 하는데 시인 묵객이 자주 드나 드는 마을이었다 한다.

□ 大興面 葛申里 葛里

- 葛申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칙이 많아서 흉년에 칙뿌리를 캐 먹었다는 한 농부의 전설로 전해 오는 마을이다. 칙과 칙뿌리가 많은 마을이라 葛申이라고 부른다.

□ 大興面 金谷里

- 本來 大興郡 근동면 地域으로 금이 많이 나므로 쇠울, 金谷里라 부른다.

□ 鷹峯面 雲谷里

- 本來 大興郡 외북면 地域으로 팔봉산 밑 골짜기가 되어 구름과 안개가 늘 끼므로 구름실 또는 雲谷里라 부른다.

□ 鷹峯面 朱令里

- 本來 大興郡 외북면 地域으로 붉은 고개인 朱嶺이 있으므로 주령, 주랭이, 朱令里라 부른다.

□ 鷹峯面 蘆花里

- 본래 大興郡 외북면 地域으로 갈대가 많이 있었다 하여 갈울 또는 노동이라 부르다 묵석리를 병합하여 蘆花里라 부른다.

□ 德山面 杜洞里 魚隱골

- 향교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고기가 쉬는 형국이라서 오래 전부터 선비들이 정하는 명당이 있고 어은동, 어은골이라 부른다.

□ 古德面 夢谷里 굼실

- 夢谷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꿈이 많은 골짜기 아래로 마을이 생겼다 해서 몽곡 굼신이라고 부르는데, 꿈이란 풍수적 해석에 따른 마을로서 명당과 안식처가 많은 지역이란 뜻이다.

□ 古德面 用里

- 옛 도용면 地域으로 地形이 용수처럼 생겼으므로 용수말 또는 용수, 龍里라 부른다.

□ 新岩面 宗敬里 용골

- 이 자연부락의 동쪽에 텃봉산이 있고 그 산이 서쪽으로 둥글게 이어져 서쪽에 용꼬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 삼태미(소코리) 形局을 이루고 있다. 이 부락은 삼태미 형국을 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 곳에 사는 주민은 큰부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삼태미는 물건을 담아서 차면 버리는 물건으로 地形이 삼태미 形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 자연 도로 나가는 형편이 되어 돈을 벌면 이 마을을 떠나야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마을에 대한 풍수지리설이 전래되고 있다.

瑞 山 郡



[面積 · 人口]

面積 : 561.27㎢ (耕地 : 185.98 林野 : 308.48 工場用地 : 6.02 其他 : 60.79)	
人口 : 92,592 名	('91. 9. 30. 현재)

[沿 革]

• 百濟時代에 基郡이라 稱하여 오다가 新羅 景德王 때에 富城으로 改稱하였으며, 高麗 忠烈王 10년(1284)에 瑞山으로 改稱하고 同 34년에 瑞山牧으로 昇格하였다가 忠宣王 2년(1310) 瑞寧府로 降하고 其後知瑞州事로 또 降하였다. 朝鮮 太宗 3년(1413)에 瑞山郡으로 되었으며 正祖 9년(1785)에 大山의 15個面을 管轄하였다.

1914년 부령 제 111호로 서산군과 태안군의 利園의 13個面, 海美郡의 雲山の 9個面, 汚川郡 馬山面の 일부와 洪州郡 高南, 上道面の 각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瑞山郡이라 하여 20個面을 管轄하다가 1957년 법률 제 465호로 大湖芝, 貞美面 2個面을 唐津郡으로 넘겨 주고 1986년 安眠島 古南 出張所가 古南面으로 昇格되었다.

1989년 법률 제 4050호로 瑞山邑이 瑞山市로 昇格 分離와 泰安邑의 9개면을 泰安郡으로 分離시킴으로서 현재 10個面(仁旨, 浮石, 八峯, 地谷, 大山, 星淵, 音岩, 雲山, 海美, 高北) 125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歷史的 特性

- 瑞山은 歷史的으로 行政的으로 부침을 거듭해온 地域이며 일찍부터 中國과의 海上交通 요지로 부각되어 中國대륙의 佛敎문화를 받아 들였으며 中國 육조시대의 불상과 백제 특유의 기법이 가미된 마애석 불등이 있고 특히 운산면 용현리의 마애삼존불상은 국보 제 84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서산은 많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간월도의 굴부르기군왕제, 창리의 영신제등 풍어를 축원하는 어민의 향토 민속 문화가 잘 전승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㉒ 地理的 特性

- 瑞山은 忠南의 西北端 泰安半島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半島 中心部の 화강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정편암계 地質로 되어 있다.
地形的 大部分이 저산성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간만의 차가 심한 리아스식 해안은 간척 및 수산자원 개발에 유리한 여건이며,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삼성, 극동, 현대등 석유화학단지 및 정유사가 입주하여 가동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서해안 개발 시대를 앞두고 산업 입지 여건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서해안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海美邑城

李朝 太宗 7年 忠淸道에 兵馬節度使營을 2個所에 設置하고 한 곳은 德山에 두었다가 같은 太宗 18年에 海美로 옮긴 後에 築城한 石城으로서 完成時期는 成宗 22年(1491) 辛亥로 돌에 새겨 있는데 周圍가 약1,800m요 高가 5m이며 瓮城이 한 곳 雉牒 즉 銃眼이 380이고 東門, 南門, 西門의 세문이 있으며 城廓도 옛모습을 完全히 保存하고 있어 史蹟 第 116號로 指定되어 있다.

忠武公 李舜臣 將軍이 兵使營에 勤務한것은 宣祖 12年 10월에 公의 나이가 35歲로 訓練院 奉仕로 있다가 忠淸兵使의 軍官으로 赴任하였다가 이듬해인 庚辰 7월에 全羅道 鉢浦水軍萬戶로 滯任하기까지 10個月間이었다.

이 兵馬節度使營은 兵營으로 設置된지 233年 뒤인 孝宗 2年에 淸州로 옮기고 海美에는 兼營將을 두어 縣監이 營將을 兼하게 하였다가 이 兼營將도 肅宗 19年에 溫陽으로 옮기고 海美에는 文官 縣監을 配置하였더니 같은 肅宗 38年에 또 다시 溫陽의 兼營將을 海美로 復舊시키어 李朝末年까지에 이른 것이다.

이 海美營을 湖西左營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忠淸道에 軍營이 5個所 있었는데 公州는 湖西右營이요 海美는 湖西左營이요 洪州는 湖西前營이요 忠州는 湖西後營이라 한 까닭이다.

[地名의 由來]

□ 浮石面 大頭里

- 本來 마산면 地域으로 地形이 큰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한머리, 大頭리라 부른다.

□ 浮石面 渴馬里

- 옛 마산면 地域으로 큰 벌판이闊이를 이루었으므로 갈마곶, 갈마지, 갈마리라 부른다.

□ 浮石面 月溪里 興千골

- 옛부터 이르기를 “한 골짜기에 집이 千戶가 들어 앉아 달을 보면 흥하리라”라는 계시와 함께 처음 마을이 생겼다는 마을로서 千戶가 들어앉아 榮樂을 누릴 마을이라 하여 흥천골이라 부른다 한다.

□ 大山面 獨串里 黃金山

- 400년전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황금산에 황룡이 살았고 연평도에는 청룡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무렵 황금산 앞 바다는 바가지로 물을 퍼도 고기가 건져질 만큼 황금 어장이어서 연평도의 청룡이 몹시 탐을 내고 있었다. 이 마을에 활 잘 쏘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밤 꿈에 황룡이 나타나 「내일 새벽 연평도의 청룡이 쳐들어와 고기를 물고 가려 하니 내일 내가 청룡과 싸울 때 청룡을 쏘서 죽이라」고 부탁을 하여, 다음날 새벽 청년은 황룡의 부탁대로 청룡을 겨냥해서 활시위를 당겼으나 화살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만 황룡을 맞아 죽게 했는데 승리한 청룡은 고기떼를 물고 연평도로 가버렸는데 그날 밤 청년의 꿈속에 나타나 황룡은 「내가 이번에는 졌지만 400년 뒤에 다시 황금을 물고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사라졌다는게 黄金山の 전설인데 현재 大山油化콤플렉스의 등장 등으로 한낫 돌산이 黄金山으로 변모되었음은 황금산의 전설과 시사해 볼만하다.

□ 星淵面 海城里

- 마을 地形이 바다가 성처럼 둘러 싸여 있다 하여 海城里라 부른다.

□ 雲山面 安好里

- 본래 해미군 이도면 地域으로 기러기가 많이 온다 하여 安好里라 부른다.

□ 浮石面 江秀里 배짚말

- 아랫강수 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의 地形이 玉女가 베를 짜는 형국이라 배짚말이라 부르다 변하여 배짚말이라 부른다.

□ 八峯面 虎里

- 옛 문현면 地域으로 地形이 범의 머리처럼 생겼으므로 범머리, 虎里라 부른다.

□ 地谷面 舞將里 부장골

- 풍수설에 따르면 이 곳에 武將이 나올 명당 자리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장골이라 부른다.

□ 地谷面 桃星里 개목

- 시드물 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명당 자리가 있다는데, 그 명당 자리가 목에 있다고 하여 개목이라 부른다.

□ 地谷面 中旺里 旺山

- 中里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묘를 잘 쓰면 천하를 호령하는 王이 나올 명당지가 있다 하여 旺山이라 부른다.

□ 大山面 大竹里

- 옛부터 전해지는 구전에 이 곳에 언젠가는 큰 대나무숲이 들어 선다는 口傳이 있는데, 口傳과 같이 대나무는 아니지만 큰 공장이 들어서 공장의 굴뚝이 대나무밭과 같이 서있다.

□ 大山面 大竹里 宿虎地

- 마을 地形이 범이 자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宿虎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大山面 大路里 물안이 마을

- 대산면 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옛부터 “물안이”로 불리어 왔는데 1972년에 바다를 막아 농경지를 조성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를 막아 “물을 안고 있는 마을”이 되었다.

□ 大山面 大山里 國守峰

- 望日山の 최고봉(306m)의 이름이 國守峰으로 이 곳은 하늘을 감시하여 나라를 지키는 봉우리란 뜻으로 구전되어 오는데 현재 하늘을 감시하는 공군부대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다.

□ 大山面 大山里 물니산

- 산에 金龜沒泥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沒泥山이라 부른다.

□ 大山面 花谷里 大湖池

- 옛 선현들이 唐津郡 石門面과 瑞山郡 大山面 花谷里 사이의 바다가 내륙으로 깊이 들어와 호수形局이라 하여 大湖池라는 所地名을 지

있다 하는데 지난 '87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8km의 防潮堤를 造成하여 大湖池가 조성됨으로써 大湖池라는 지명과 일치하고 있다.

□ 雲山面 院坪里 大聖

- 원벌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風水說에 따르면 聖人이 나올 명당 터가 마을에 있다 하여 大聖이라 부르며 큰 人物이 나올 만한 고장이라고 전해지는 마을이다.

□ 雲山面 巨城里 巨山里

- 거성리 중앙에 자리한 마을로 큰 산을 지고 앉아 있는것 같은 지형의 마을이라 하여 巨山里라 부른다.

□ 海美面 石浦里

- 本來 海美郡 南面 地域으로 뒤에는 돌이 둘러 있고 앞에는 개가 있으므로 돌개 또는 石浦라 부른다.

□ 海美面 機池里

- 옛부터 住民들의 口傳에 비행기들이라고 전하고 있었고, 언젠가 이 마을에 큰 기계가 들어 설 곳이라고 전해 오는데 지난 '88년도에 공군기지(비행장)로 선정되어 지명과 일치하고 있다.

□ 海美面 造山里

- 本來 海美郡 東面の 地域으로서 海美邑을 위하여 조그마한 산을 만들고 숲을 길렀으므로 造山이라 하였다 한다.

□ 海美面 億垞里 億垞

- 군갯들 남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 앞에 들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億垞라고 부른다.

□ 音岩面 遊溪里 서산시 상수도

- 서산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소탄산이 있고, 그 옆으로 도비산이 있다.

옛날에는 이 산 주위가 모두 바다였는데, 소 한마리가 앓을 만큼 물위로 보이던 산이 손탄산이고 되박 하나 엮어 놓을 만큼 물위로 보이던 산이 되박산이다. 이 되박산은 그 이름이 차츰 변하여 지금은 도비산이라고 한다.

소탄산 아래에는 옛날부터 풍수지리상 매화낙지(梅花落地)의 명당자리가 있다고 전해 왔다. 그래서 수 백년 동안 많은 지사(地師)들이 그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서산시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물은 유제리에서 끌어가고, 급수시설은 음암면 신장리 2구 매립동과 서산시 수석동에서 하게

되었다. 급수시설 둘레에는 전주를 세우고 전등을 달아 밤에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 매화꽃이 피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 것을 보고, 구학문을 한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매화낙지라고 하며 수백년 동안 찾던 명당 자리인 매화낙지를 서산의 상수도가 차지했다고 한다.

泰安郡



[面積 · 人口]

面積：466.71 km² (耕地：147.39 林野：251.76 工場用地：3.8 其他：63.76)

人口：83,500 名

('91. 9. 30. 현재)

[沿革]

- 百濟때 省大兮縣이라 稱하였고 新羅 景德王때에 蘇泰라 改稱하여 富城郡(瑞山郡) 領縣으로 되었고 고려 忠烈王 10년에 泰安郡이라 改稱하였으며 朝鮮 太宗 16년(1416) 復郡되어 郡內, 東一面 및 14個面을 管轄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瑞山郡에 編入되었다.

1973년 泰安面이 泰安邑으로 昇格, 1980년 安眠面이 邑으로 昇格, 1986년 安眠邑 古南出張所가 古南面으로 昇格되었다. 1989년 1월1일 법률 제 4050호에 의해 泰安邑, 安眠邑과 古南面, 南面, 近興面, 所遠面, 遠北面, 梨園面을 管轄하는 泰安郡으로 다시 復郡되어 現在 2邑 6個面 65 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㉑ 歴史的 特性

- 泰安은 百濟時代에 省大兮縣, 新羅時代에 蘇泰, 高麗時代에 泰安이라 칭하다 1914년 瑞山郡에 통합되는 등 주변 부족국가의 여건 변화속

에서 歴史的 明滅을 거듭해왔다.

古大國家로 진입 이전 馬韓時代에는 臣蘇塗國이라 칭할 만큼 태안은 三韓時代에 祭天儀式的 중심지인 동시에 蘇塗의 宗主國이었으며 특히 독립투사인 沃坡 李鐘一 선생을 배출한 태안은 오늘날의 새마을 운동인 新村 호국정신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㉔ 地理的 特性

- 충남 최서북단에 위치한 저산성 구릉지대로서 삼면이 황해에 접하고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간만의 차가 심해 간척 및 수산자원 개발에 천혜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며 10개에 이르는 해수욕장과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안면도를 비롯, 11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조화를 이루며 산재하고 있어 전국에서도 으뜸인 자연 그대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서해안 개발에 편승, 중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무한한 개발 가능 적지로 지목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태안해안 국립공원

1978년 안면도와 태안반도 일대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밀싹히 키가 큰 海松이 마음을 사로잡는 안면도·만리포·연포·몽산포·방포·학암포 등 수많은 해수욕장, 북주봉·국사봉·남국사봉등의 정겨운

산봉 및 학암·떡바위·할머니바위 등 모양도 다채롭고 전설도 끈끈한 기암,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의 대표적인 이 일대의 들쭉날쭉한 해안 풍경이 더 없이 아름답기만 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임해 휴양지로서의 이 일대는 250여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공원 면적은 육지가 38.6km², 해상이 290.3km²에 이른다. 또 안면도는 남북 길이 24km, 해안선이 232.5km의 큰 섬으로 육지와 다리가 놓여 자동차도 건너 다닐 수 있어 해안 관광에 큰 몫을 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泰安

- 泰安이란 地名이 문헌상에 나타난 最高의 기록은 三韓時代인 馬韓의 54개국중의 하나인 臣蘇途國이다.

이 후 百濟時代에는 蘇泰縣으로 命名되다가 고려 忠烈王때에 이르러 元나라의 恩寵(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李大順에 의해 泰安으로 고쳐져 지금의 郡格인 知郡事로 昇格되어 朝鮮時代까지도 그대로 因襲되어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서산군에 合郡되어 태안면으로 格下되었다가 1989. 1.1 서산군에서 복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泰安邑 長山里 貴實

- 正果 남쪽에 자리한 마을로 옛날부터 형세가 좋고 명당 터가 있다고 하여 貴實이라 부른다.

□ 泰安邑 長山里 팔학골

- 장산 동쪽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로 여덟 마리의 학이 사방에서 날아드는 형국이라 하여 팔학골이라 부른다.

□ 泰安邑 平川里 피내기(升糶)

- 사기실 앞의 태안정미소 주변 마을로 피(升)로 곡식을 판다는 뜻에서 피내기(升糶)란 마을 이름이 생겼는데 현재 이 곳에 정미소가 자리하고 있다.

□ 泰安邑 仁坪里 興仁

- 무소산 동쪽 인평리2구에 위치한 마을로 앞으로 德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될 것을 예언하여 불인 마을이라 전한다.

□ 泰安邑 漁隱里 彈洞

- 마을 지형이 風水地理說에서 볼때 玉女彈琴形이라 하여 탄동이라 부르는데 중앙에 玉女를 중심으로 좌측에 馬木山(이 馬木은 거문고

줄을 받치는 나무 이름인데 지금은 雁足이라 한다)이 있고 우측에는 祥마루(산동성이), 그리고 앞에는 歌作골이 있다. 이와 같이 彈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비된 지형이라 하여 거문고를 타는 마을, 즉 彈洞이라 부른다.

□ 安眠邑 正堂里 眞泉洞

- 정잇골 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에 좋은 물이 나는 찬 샘이 있어서 眞泉洞이라 부른다.

□ 安眠邑 中場里 길유지

- 마을에 자연적인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못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농사를 짓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어 다른 마을보다 항상 부유하게 사는 마을이었다 하는데 길한 못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길유지라 부른다.

□ 古南面 古南里 佳景州

- 이 곳의 자연 환경이 다른 마을에 비하여 매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마을 앞에 탁트인 바다가 있어 이 곳을 오가는 어선들의 모습이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으며 또한 마을은 아늑한 것이 새의 둥지같고 주변 환경이 빼어나 생활하기에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佳景地, 변하여 佳景州라 부른다.

□ 古南面 古南里 九梅

- 古場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이 아홉 개의 丘陵으로 쌓여 있다 하여 구피라 부르다 변하여 九梅라 부른다, 일설에는 이 마을 입구에 아홉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었다 하여 九梅라 부른다.

□ 遠北面 防葛里 소리섬

- 장구섬 서남쪽에 있는 섬으로 玉女가 장구를 메고 이 섬에서 소리를 내는 形局이라 하여 소리섬이라 부른다.

□ 遠北面 防葛里 둔월리(遁月里)

- 샘골넘어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 곳은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 싸인 분지의 좁은 골이므로 달이 머리 위에 떠 올랐을때 잠깐 볼 수 있을 뿐 질 때까지 오랫동안 볼 수 없으므로 달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하여 달이 숨은 마을, 즉 둔월리, 둔위리라 부른다.

□ 遠北面 磻溪里 승무굴(僧舞谷)

- 닛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의 지형이 마치 僧侶가 고깔 쓰고 長衫 입고 춤추는 것 같이 보인다 하여 승무굴이라 부른다.

□ 遠北面 將臺里 삼군말

- 장대문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마치 三軍을 거느린 듯한 峰 아래에 자리해 있다 하여 삼군말이라 부른다.

□ 遠北面 大基里 가장굴

- 큰 터굴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風水地理說에서 볼 때 이 곳에 吉地의 名堂으로서 가장 좋은 장소라 하여 佳場洞, 가장굴이라 부른다.

□ 遠北面 梨谷里 龍昇

- 옛날 이 마을에서 龍이 승천했다 하여 용승이 마을이라 이름하였다 하는데 이 마을은 다른 동네에 비하여 매우 앞서 가는 번창한 마을이다.

□ 梨園面 社倉里

- 옛 태안군 北一面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社倉(租稅를 거둬들이는 倉庫)이 있었으므로 社倉里라 부른다.

□ 梨園面 社倉里 苔浦

- 사창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 곳에서 파래가 많이 생산된다 하여 苔浦라 부른다.

□ 梨園面 内里 萬垌

- 내리의 북쪽끝에 자리한 마을로 萬垌란 글자 그대로 앞으로 만채의 집이 세워질 터라는 뜻에서 萬垌라 부른다.

□ 梨園面 内里 수억말(數億)

- 후망산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으로 이 마을에서 수억원이 나온다는 뜻에서 수억말이라 불렀다 하는데,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이웃의 萬垌란 지명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 加露林灣

- 태안군 북쪽 해안에 있는 灣으로 북쪽으로는 트였으나 동남쪽으로는 반도에 연연한 육지로, 서쪽으로는 가느다란 곳 원이반도로 가려져 있다. 태안은 중국의 蘇州와 그 경치가 비교된다 하여 신라때는 蘇州로 불렸었다. 그리고 소주 북쪽의 灣 즉 加露林灣은 蘇州湖라고 부르다가 그후 황해와 내륙지방보다는 이슬이 많이 내리는 湖水라 하여 가로림호, 加露林灣이라 부른다.

唐 津 郡



[面積·人口]

面積：589.56 km²(耕地：257.14 林野：254.21 工場用地：0.29 其他：74.92

人口：135,638 名

('91. 9. 30. 현재)

[沿 革]

- 三韓의 成立과 더불어 馬韓에 豫속되고 百濟時代에는 海軍, 唐津에 別守지현, 新平에 사평현을 두었다가 통일신라시대 景德王 16년(757)에 지명을 모두 당나라 식으로 고쳤는데, 이 때 海軍을 海성군으로 別守지현을 당진으로 사평현을 신평으로 고쳤으며 고려 縣宗 9년(1018)에 連州(洪城)에 속하였다가 예종 원년(1106)에 監務를 두었다.

朝鮮 태종 13년(1413)에 현감이 되었으며 고종 32년(1895)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唐津郡이 되어 郡内面, 東面, 南面, 上大面, 下大面, 高山面, 外孟面, 内孟面의 8個面을 管轄하였으며, 1914년 府令 제 111호 郡·面廢合에 따라 汚川郡의 邑内, 馬山, 松岩, 昇山, 松山, 甘泉, 倉宅, 竹林, 加和, 縣内의 22個面과 海美郡 一道面의 2個里와 禮山郡 新宗面의 2個里의 一部를 병합하여 唐津郡으로 하고 驪背, 高大, 石門, 馬岩, 松山,

順城, 泛川, 合德, 松嶽, 新平面의 10個面으로 改編하여 管轄하였다.

1917년 馬岩面을 昞川面으로, 1928년 蟻背面을 唐津面으로 1942년 泛川面은 牛江面으로 고치고 1957년 法律 제 456호에 의하여 瑞山郡 大湖之面과 貞美面 전체를 편입하여 12개면이 되었다.

1963년 唐津面이 邑으로 昇格, 1973년 合德面이 邑으로 昇格하였으며 현재 2邑 10面 149個里를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㉞ 「歷史的 特性」

- 唐津은 唐나라와 文物 交流 창구였던 關係로 性理學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豫學의 기틀을 세운 龜峰 宋翼弼 외에도 李宣茂, 李祥 등 유명한 학자가 많으며 당진 향교, 면천 향교가 아직도 유학의 맥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가 우강면 솔피에 있고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이 당진군 송학면에 정착하여 소설을 쓰고 계몽을 했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상록문화제를 여는 등 충남 서북부지역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㉟ 地理的 特性

- 충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동은 아산만, 서는 서산군, 남은 예산군과 접하고 북은 10개면 일대가 남양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에 접하고 있으며 최근 삽교천 방조제, 대호방조제의 완공과 더불어 공단시설 유치

및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등으로 인한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插橋川 防潮堤

唐津郡 新平面 雲井里와 對岸인 牙山郡 仁州面 文方里 돌출부를 가로막은 방조제를 삽교천 방조제라 부른다. 길이가 3,360m이며 폭 168m, 높이 12~18m의 土石混成堤이며 防潮堤에 附設된 6連 12門의 排水閘門을 갖추고 있다. 76년 12월 착공하여 79년 10월에 삽교호를 준공하여 3,400만톤의 담수를 確保하게 됨으로써 삽교천지구 24,700 ha에 관개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농업용수, 防潮堤로 인한 40km의 육로단축, 인근 유적지와 연결된 새로운 관광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地名의 由來]

□ 唐津

- 統一新羅 第 42代 景德王 16년에 지명을 모두 唐나라 식으로 고쳤는데 이때 古地名인 伐首只縣을 唐津이라 命名하였다.

그 이유는 唐과의 交通 要地로서 나루 내지는 浦口(現高大面 唐津浦里) 역할을 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朝鮮 高宗 32년(1895년)에 地方管制 改正時에 唐津郡이라 불렀다 한다.

□ 唐津邑 邑内里 舞袖洞

- 무시울이라고도 하는데 地形이 춤추는 形局이라 하여 舞袖洞이라 불리운다 하며 또는 마을에 있는 안산이 天人舞袖形으로 옛날 어떤 사람이 움집을 짓고 5살 먹은 아들과 어렵게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대사(스님)가 찾아와 동냥을 주었더니 고맙게 여겨, 명당자리를 알려 주고 여기에 묘를 쓰면 富者가 된다고 하면서 상식은 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춤추는 形局이라 상식을 하면 무거워서 대사가 춤을 못추기 때문이라 한다.

후에 그대로 하니 富者가 되었다 하여, 그후 舞袖洞에는 8富者가 생겼다 한다.

□ 唐津邑 大德里

- 옛 東面은 地城으로 산이 사방으로 둘러 싸서 다락처럼 되어 외적의 侵入이 전혀 없어 크게 덕이 있는 곳이라 大德里라 부른다.

□ 唐津邑 九龍里

- 이 마을의 地形이 구렁이처럼 생겼다하여 九龍里라 하며 또는 아홉

龍이 여의주를 다투는 形局(九龍爭珠形)이라 하여 九龍里라 부른다.

□ 唐津邑 牛頭里

- 옛 군내면 地城으로 地形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소머리 또는 牛頭里라 부른다.

□ 唐津邑 大德里 樓洞

- 상송 남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다락처럼 아늑하게 생겼다 하여 樓洞이라 부른다.

□ 唐津邑 龍淵里 鉢山

- 안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 쌓여 바리 그릇처럼 생겼다 하여 鉢山이라 부른다.

□ 唐津邑 元堂里 正雁

- 원당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기러기 형국이라 하여 正雁이라 부른다.

□ 合德邑 島里

- 옛 덕산군 배방면 지역으로 넓은 들 가운데 섬 처럼 마을이 있다.

하여 섬말, 島里라 부른다.

□ 合德邑 素素里

- 옛 洪州君 合北面지역으로 合德 못을 이룬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 하여 소소골, 소소리라 부른다.

□ 高大面 瑟項里

- 마을 지형이 비파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생긴 이름으로 琵琶目的 서쪽에 玉女峰이 있어 玉女彈琴形의 명당이라는 風水地理說에서 전해 진다.

□ 高大面 琵琶項里 양산골

- 사읍 서쪽 끝에 있는 마을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막혀서 양지 바른 곳에 위치 했다 하여 양산골이라 부른다.

□ 高大面 龍頭里

- 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 줄기의 모습이 마치 龍과 같이 생겼다 하여 용머리, 龍頭里라 부른다.

□ 高大面 龍頭里 珠洞

- 셋말 잣배기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龍의 여의주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리해 있다고 하여 珠洞이라 한다.

□ 高大面 眞館里

- 옛 당진군 上大面 지역으로 백제때 이 곳이 당나라로 통하는 나룻길이 되어서 공인을 도와주는 館이 있었으므로 眞館里라 부른다.

□ 高大面 唐津浦里 海倉

- 온동 북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조선시대때 바닷가에 조세 공납을 하던 해창이 있었던 곳에 마을이 자리했다 하여 海倉이라 부른다.

□ 石門面 橋路里 다릿길

- 오래 전에 석문면 교로리에 거주하는 형과 대산면 삼길포에 사는 의 좋은 아우가 다릿돌을 놓기로 하고 형과 아우는 서로 한 덩어리의 돌이라도 더 깔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밤새 돌을 깔아 다음날 먼동이 트면서 두형제는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후일 이러한 유래로 인하여 다릿길, 교로리라 하였다 하는데 1984년 大湖防潮堤가 건설되어 瑞山郡 大山面 삼길포와 배를 타고 왕래하던 곳이 堤防이 築造됨에 따라 橋路里라는 지명과 一致하고 있다.

□ 石門面 長古項里

- 옛 內盟面 지역으로 地形이 장고의 목처럼 생겼다 하며 장고목, 장고항이라 부른다.

□ 石門面 三峰里

- 옛 內盟面 지역으로 세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하여 三峰里라 부른다.

□ 石門面 三峰里 곰개

- 대삼봉 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뒷산이 곰처럼 생기고 앞에 바다가 있으므로 웅포, 곰개라 부른다.

□ 石門面 三花里

- 본래 당진군 外孟面 지역으로 마을 지형이 세 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삼꽃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三花里라 부른다.

□ 石門面 蘭芝島里

- 난지도는 백사장이 깨끗하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近海는 北西風이 불때에 높은 파도가 밀려 오므로 海難事故가 자주 일어나는 行路로 알려져 있다.

특히 朝鮮時代에 京倉으로 운반하던 遭倉이 선박이 많이 航海하던

때에는 큰 위협을 주었다 하여 이 섬을 難芝島라 했는데, 難芝島라 했기 때문인지 계속하여 海難事故가 일어나 漢字를 蘭芝島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大湖芝面 沙城里 蚬來

- 사기소 서남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거미가 집을 짓는 형국이라 하여 지래라 부른다.

□ 大湖芝面 沙城里 城浦

- 옛 해미군 서면 지역으로 갯벌이 城처럼 마을을 둘러 싸고 있다 하여 城浦라 부른다.

□ 大湖芝面

- 대호지면은 1957년 11월에 정미면(貞美面)과 함께 서산군(瑞山郡)에서 당진군으로 이관된 面이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방조제(防潮堤)를 축조하여 간척지로 변화였다.

대호지면은 정미만(貞美灣)에 임해 있는데, 태안반도(泰安半島)의 개발 계획에 따른 간척 공사가 있었고, 지금은 미답(美畚)으로 바뀌었다.

방조제가 축조됨에 따라서 큰 호수가 형성되어 大湖芝面이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大湖가 되기 전에 이미 大湖芝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또한 이 간척지에 딸린 섬으로 “도비도” (搗飛島：唐津郡石門面)도 벼를 찧는다는 “도” (搗)자가 붙은 지명인데, 벼를 찧는다는 뜻의 섬 이름이 이미 간척지 계획도 되지 않은 수백년 전에 붙여진 것이 신비스럽다.

□ 大湖芝面 赤鼠里

- 옛 해미군 서면 지역으로서 늙은 쥐가 밭에 내리는 形局(老鼠下田形)이라 하며 붉쥐 또는 적서리라 부른다 하는데 이 일대의 土色이 유난히 붉다.

□ 大湖芝面 赤鼠里 仙女洞

- 마을 뒤에 있는 황새봉에서 仙女가 놀다가 하늘로 올라 갔다고도 하며 또 학이 仙女를 등에 싣고 하늘을 날오는 형국이라 하여 仙女洞이라 부른다.

□ 大湖芝面 長井里

- 부락의 형태가 길게 立地하고 있으며 옛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르지 않는 우물이 솟아 있어 長井리라 부른다.

□ 大湖芝面 長井里 가루고개, 지내산고개

- 장정리에서 송전리로 넘어가는 가루고개 밑에 있는 마을, 渴牛飲水

形명당이 있음. 여기에는 지네와 금계포란 형국에 얹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大湖芝面 棐李里 溫井골

- 이 지역에 겨울에도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골이 있다 하여 溫井골이라 부른다.

□ 大湖芝面 馬中里 子母山

- 마중리에 산봉우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높고 또 하나는 낮은데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하여 자모산이라 부른다.

□ 貞美面 大鳥里

- 옛 해미군 염솔면 지역으로 地形이 황새처럼 생겼다 하여 황새울, 대조곡, 대조리라 부른다.

□ 貞美面 大鳥里 배다리

- 냉전골과 벌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로 전에 이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닿았었다고 하여 배다리라 부른다.

□ 貞美面 升山里 대숲골

- 옛날에 커다란 대나무 숲이 많이 있었다 하여 대숲골이라 부르며,
瑞山郡 大山面 大竹里의 대단위 공장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 볼때
시사하는 바 크다.

□ 貞美面 德馬里 德谷

- 덕마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自然의 덕이 많아서 農事가 잘 되는 계
곡이라 하여 德谷이라 부른다.

□ 貞美面 德馬里 병목안

- 덕실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병목 같이 생겼다 하여
병목안이라 부른다.

□ 貞美面 德三里 德石

- 염장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가 덕석을 입고 누운 形局이라 하여
德石이라 부른다.

□ 貞美面 天宜里 宿龍골

- 마릿돌 안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龍이 누워서 잠을 자는 形局이라
하여 宿龍골이라 부른다.

□ 貞美面 天宜里 幼犢벌

- 마릿돌 동쪽 벌판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어린 송아지가 노는 형국이라 하여 幼犢坪, 幼犢벌이라 부른다.

□ 貞美面 山城里 뒷박골

- 산성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되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며 땅이 비옥해서 한 되를 심으면 백 되가 생기는 땅을 가진 마을이라 하여 뒷박골이라 부른다.

□ 汚川面 文峰里

- 옛 汚川郡 昇仙面 지역으로 붓끝같이 생긴 筆鋒이 있어 文峰리라 부르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文筆家가 많이 난다고 전해진다.

□ 汚川面 票寺里 拂舞洞

- 해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부처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拂舞洞이라 부른다.

□ 汚川面 松鶴里 大鳥洞

- 안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하여 大鳥洞이라 부른다.

□ 順城面 城北里 鳳巢山

- 순성면 백석리, 봉소리, 성북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아홉 마디를 이루었으며 봉이 깃들이는 형국이라 하여 鳳巢山이라 부르며, 이 산줄기에 萬代榮華之地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진다.

□ 順城面 白石里

- 본래 汚川郡 竹林面 지역으로 흰 돌이 많이 있으므로 흰돌이라 부르다 변하여 白石里라 부른다.

□ 新平面 上梧里 쪽지머리

- 마을 지형이 마치 玉女가 쪽을 낀 형국이라 하여 쪽지머리라 부른다.

□ 新平面 上梧里 靑衿

- 당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玉女가 뜯는 거문고 소리가 잘 들린다 하여 聽琴이라 부르다 변하여 靑衿이라 부른다.

□ 新平面 寒井里

- 본래 洪州郡 懸內面 지역으로 차디 찬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다 하여 찬우물, 寒井이라 부른다.

□ 松嶽面 機池市里

- 옛 汚川郡 昇山面 지역으로 틀처럼 생긴 못이 있었으므로 틀모시, 기지시라 하였으며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명하다.

□ 松嶽面 金谷里

- 옛 汚川郡 草川面 지역으로 예전에 쇠(鎗)가 많이 났다 하여 쇠울, 金谷里라 부른다.

□ 松嶽面 桃源里 황새골

- 마을 지형이 마치 황새가 우렁을 찍어 먹는 형국이라 하여 황새골이라 부른다.

□ 松嶽面 靑衿里

- 風水地理上 玉女彈琴形이 되어 玉女가 거문고를 뜯는 소리를 듣는 곳이라 하여 聽音里라 했는데 변하여 靑衿里라 부른다.

□ 松嶽面 漢津里

- 본래 漢州郡 新北面 지역으로 牙山灣의 나룻가이므로 大津, 한나루, 한진이라 하였으며, 이조때 瑞山, 洪州, 保寧, 韓山 등지에서 서울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 松嶽面 光明里

- 본래 汚川郡孫洞면 지역으로 햇빛이 잘 드는 마을이라 하여 光明里라 부른다.

□ 松山面 佳谷里

- 본래 汚川郡 倉宅面 지역으로 지형이 袈裟처럼 생겼다 하여 가삿골, 가곡리라 부른다.

□ 松山面 佳谷里 城九尾

- 두명개 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지형이 성처럼 굽이를 이루었다 하여 성굽이라 부르다 변하여 성구미라 부른다.

□ 松山面 芙谷里 飛燕

- 녹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제비가 나는 형국이라 하여 飛燕이라 부른다.

□ 松山面 道門里 鵲洞

- 한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까치집처럼 생겼다 하여 까치울 또는 鵲洞이라 부른다.

牙 山 郡



[面積 · 人口]

面積 : 465.2 km² (耕地 : 203 林野 : 203.5 工場用地 : 1 其他 : 57.7)

人口 : 104,020 名

('91. 9. 30. 현재)

[沿 革]

- 百濟때는 湯井郡에 屈直縣 · 牙述縣에 속했으며, 新羅때는 湯井郡 視涼縣 · 陰峰縣에 속한 地域이었다. 高麗때는 溫水郡 新昌縣 · 仁州縣에 속했으며, 朝鮮時代 初葉에는 溫昌 · 溫水 溫陽縣과 新昌縣 · 牙山縣에 속했었다. 朝鮮時代 末葉에는 牙山郡, 溫陽郡, 新昌郡 이었고 1914年 行政區域 改編때 牙山郡에 溫陽郡의 5個面과 新昌郡의 郡内面의 4個面과 天安郡, 禮山郡의 一部를 併合하여 12個面을 管轄하는 牙山郡이라 하였다.

1986年 溫陽邑이 溫陽市로 昇格 分離되면서 '90年 鹽峙面이 鹽峙邑으로 昇格되었다.

現在 1個 邑(鹽峙) 10個 面(靈仁, 仁州, 屯浦, 排芳, 松岳, 湯井, 道高, 新昌, 仙掌, 陰峰)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㉔ 歷史的 特性

- 조선조 以前에 牙山, 溫陽, 新昌 3個縣으로 分할 되었던 것을, 1914

년에 併合하여 牙山郡이라 稱하여 現在에 이르며, 성웅 이순신을 필두로 洪可臣, 孟思誠, 尹潛善 大統領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人物을 배출한 地域으로, 溫冷의 合理的 地帶라고도 풀이되고 있으며,

牙山灣防潮堤와 挿橋川防潮堤의 完工으로 地形이 바뀐 牙山 地域에는 歴史的으로 貴重한 遺蹟地가 많다. 高麗時代 高宗때의 仙遊道 王宮地가 仙掌面에 있고, 百濟建國에 따른 米지홀이 仁州面 밀두리로 추측되고, 性理學講堂, 孟思誠의 杏壇, 李忠武公의 일이 담긴 顯忠祠와 묘소가 있어 많은 遺蹟地를 갖고 있는 고장으로 불리워 지며, 옛부터 溫泉과 더불어 觀光地로서 牙山의 名聲을 더 하고 있다.

최근 西海岸開發時代를 맞이하여 牙山港 建設등 牙山産業基地의 背後地로서 發展이 期待되고 있다.

㊤ 地理的 特性

- 牙山郡은 忠南의 西北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首都圈 近接 地域으로서 차령산맥의 지맥인 광덕산 연봉이 동남으로 길게 뻗어나 대체로 저평하고 曲橋川, 無限川등의 河川이 유역의 비옥한 平野에 관개用水를 供給하고 있어 農業이 발달되었고, 郡의 東部地域의 丘陵地帶에서는 牧畜業도 성하다. 또, 長項線과 國道가 天安에서 갈라져 郡의 中央을 東西로 橫斷하다가 郡의 西部地域에서 南으로 뻗으며, 기타 道路가 南北으로 發達되어 陸上交通이 便利한 地域이다.

[地域의 特記事項]

顯 忠 祠

牙山郡 鹽峙面 白岩里 防華山에 자리 잡고 있는 顯忠祠는 1704年 이 곳 유생들이 李忠武公의 精神을 받들고자 李朝 숙종께 祠堂세우기를 上疏하여 1706年 朝廷의 許諾을 받아 사당을 建立하였다. 그 이듬해 숙종께서 顯忠祠 액자를 下賜하심에 顯忠祠라 불리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32年 李忠武公 遺族保存會와 東亞日報社가 中心이 되어 顯忠祠를 再建하고 落成式과 李忠武公 影幀奉安式을 舉行하였다. 1966年 故 朴正熙 大統領의 分付에 따라 顯忠祠 聖域化事業이 着手되어 本殿, 遺物館, 古宅, 舊本殿 등의 諸般 施設을 一新하고, 1967年 史蹟 第 155號 「牙山 李忠武公 遺墟」로 指定하였다.

年間, 100여 萬名の 參拜客들로 붐비는 顯忠祠에는 國寶 第 76號로 指定된 亂中日記, 壬辰狀草, 書簡帖을 비롯해 寶物로 指定된 長劔, 腰帶 등 많은 遺物이 遺物展示管에 保存되어 있다.

牙 山 湖

溫陽에서 西北쪽으로 約 17km 地點에 있는 牙山湖水는 東洋 最大의 人工湖水로 有名하다.

仁州面 貢稅里에서 京畿道 平澤郡 玄德面 松管里를 連結하는 牙山防潮堤는 1970年 12月 着工하여 2年 3個月만인 1973年 2月에 完工한 人工淡

水湖이다.

京畿道와 忠南을 잇는 總길이 2,564m가 되는 牙山防潮堤는, 淸日戰爭의 激戰地로 널리 알려진 牙山灣을 가로막는 10m×6m의 巨大한 排水閘門 12連이 設置되어 있다.

이 排水閘門을 열었을 때에 쏟아지는 물줄기는 가히 壯觀으로서, 봄·가을 찬 바람이 나기 전까지 이 곳을 찾아 모여 드는 觀光客과 避暑客들은 항상 超滿員을 이루고, 넓고 잔잔한 湖水와 시원한 바다바람, 그리고 숭어, 게등 여러 가지 생선이 관광객들의 口味를 돋군다.

[地名의 由來]

□ 牙山

- 牙山이란 地名은 靈仁面, 仁州面, 鹽峙面의 3個面의 境界 地域에 所存한 靈仁山頂에 이 地方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그 형태가 “어금니형”으로 생겨서 어금니 “牙”字에 “山”字를 붙여 朝鮮時代 以後 牙山이라 불렀다 한다.

또 다른 說로는 古地名인 牙述도 牙山과 같은 뜻으로 “述”은 수리로 峰을 意味하며 山과 峰은 類似한 것이므로 牙山이란 地名의 由來는 牙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 鹽峙邑 江清里

- 本來 牙山郡 삼서면 地域으로 돌이 많이 있어서 뒤에 있는 영인산의 물이 이 곳에 이르면 속으로 흘러서 내가 늘 말라 있으므로 간천동, 강척골이라 부르다 변하여 강청리라 부른다.

□ 松岳面 首谷里

- 本來 溫陽郡 남상면 地域으로서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에 아픈 머리를 감으면 特效가 있다 하여 머리서리가 변하여 首谷리라 부른다.

□ 松岳面 江長里 지례

- 마을 地形이 지라와 같다 하여 지례라 부르며 마을에 玉女織錦形의 明堂이 있다 한다.

□ 松岳面 坪村里 월구리

- 다라미 東北쪽에 있는 마을로 地形이 반월형이라 이 곳에만 달빛이 뚜렷하게 비친다 하여 월굴리라 부르다 변하여 월구리라 부른다.

□ 松岳面 東花里 분토골

- 상서리 中央에 있는 마을로, 飛鳳歸巢形의 明堂 자리가 있으며, 분토가 많이 난다 하여 분토골이라 부른다.

□ 排芳面 世出里

- 옛 동상면 地域으로 排芳山 東쪽이 되는데 이 곳에 世出將相之地의 明堂이 있다하여 世出리라 부른다.

□ 排芳面 回龍里

- 本來 溫陽郡 동상면 地域으로 地形이 回龍顧祖로 되었으므로 回龍리라 부른다.

□ 排芳面 長在里 蓮花洞

- 연화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蓮化浮水形の 明堂이 있다 하여 蓮花洞이라 부른다.

□ 陰峯面 銅岩里

- 옛 동일면 地域으로 마을 앞에 구리바위 (구리빛이 나며 두드리면 쇠소리가 남)가 있어서 銅岩리라 부른다.

□ 屯浦面 鳳在里 鳳林마을

- 鳳在里 西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의 모양이 鳳皇처럼 생겨서 飛鳳投林形の 明堂이 있다 하여 鳳林이라 부른다.

□ 仁州面 密頭里

- 밀물이 들어오는 머리쪽에 마을이 있다 하여 密頭里라 부르며 沸流百濟가 建國될 때 세운 미추홀이 이 곳 密頭里라는 說이 있다.

□ 仁州面 傑梅里

- 옛 신흥면 地域으로 들 가운데 새로 개척된 마을인데 굉장히 넓은 황무지라는 뜻에서 傑梅里라 하였다 한다.

□ 仁州面 冷井里

- 옛 일서면 地域으로 찬 우물이 있었다 하여 冷井里라 부른다.

□ 仙掌面 宮坪里 五龍洞

- 宮坪里에서 가장 큰 마을로 五龍爭珠形의 明堂이 있다 하여 五龍洞이라 부른다.

□ 仙掌面 佳山里 소파닛골

- 삼봉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금광 터가 있었다.

□ 道高面 鄉山里 佳鄉里

- 들 가운데 있는 마을로서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佳鄉里라 한다.

□ 道高面 新堰里 구숫골

- 궁말 東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地形이 말의 턱이통인 구유와 비슷하다 하여 구수동, 구숫골이라 한다.

□ 新昌面 佳德里 德洞

- 거미 西쪽 넘어에 있는 마을로 사방으로 산이 둘러 있는 높은 지대로 산의 덕을 보는 마을이라 하여 덕디, 덕동이라 부른다.

□ 新昌面 新谷里 여무시

- 마을 뒷산의 지형이 마치 소가 누운 형국이고 또 소의 여물통과 같다하여 여무실이라 부르다 변하여 여무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靈仁面 牙山里 鶴橋山

- 학다리 뒤에 있는 山으로, 모양이 아름답고 秀麗하여 그 산 밑에 사대부가 많이 살았으므로 有名한데, 현재 영인국민학교의 소유가 되어서 그야말로 학교 산이 되었다.

天 安 郡



[面積 · 人口]

面積：553 km²(耕地：174 林野：317 工場用地：1.6 其他：60.4)

人口：102,873 名

('91. 9. 30. 현재)

[沿革]

- 三韓時代에는 目支國, 百濟時代 때는 大木岳郡과 甘買縣, 그리고 高句麗의 蛇山縣 木川縣 지역이 지금의 천안군 領域이다.

統一新羅時代에는 大麓郡과 自城(安城)의 領域이었다.

高麗 太祖때는 東兜率과 西兜率을 合하여 天安府를 設置하고 天安都督府를 두었으며 成宗때 歡州로 改稱 하였다가 顯宗 때 다시 天安이라 複稱하였다. 26대 忠宣王 2年(1310)에 寧州로 고쳤다가 31대 恭愍王 11年 (1362)에 다시 天安府가 되고 李朝 太宗 13年(1413)에 寧山郡으로 고쳤다가 3년 후 다시 天安으로 하였다.

朝鮮時代 末葉 高宗 32年에 毛山 · 頤義 · 德興의 3個面은 牙山郡에, 신종면은 예산군에 편입시키고, 1914년 木川郡의 9個面, 稷山郡의 8個面, 牙山郡의 一東面의 票林里와 삼북면의 中旺里 일부, 全義郡 大西面의 力德 · 內三川 · 外三川の 3개리, 北面의 驛里일부, 平澤郡 東面일부와 그 外에 주변의 지역을 편입하여 天安郡이라하여 木川의 13個面 171개리를 관할하다가 1920년 寧城面을 天安面으로, 城上面을 稷山面으로 고치고 1942년에 葛田面을 並川面으로 고쳤으며, 1953년에

天安面을 邑으로 昇格하고 1963년 天安市 昇格으로 勸城面이 天安市에 병합하는 동시 군의 이름을 天原郡이라 개칭하였다가 1991년 다시 天安郡으로 復稱되어 현재 2읍(聖居, 成歡) 10面(豐歲, 廣德, 木川, 東, 修身, 笠場, 成南, 北, 並川, 稷山)을 管轄하고 있다.

[地域의 特性]

㉓ 歴史的 特性

- 三韓時代에 目支國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天安郡은 百濟가 처음 도읍한 慰禮城 지역으로서 柳寬順, 李東寧, 金時敏, 趙炳玉 선생 등 忠孝烈士가 많이 배출된 忠節의 고장으로 柳寬順 祠宇, 3.1운동의 시발지인 아우내 장터 등의 유적지가 있으며 지난 87년 애국선열들의 일을 재조명코자 온 국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문을 연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어 충절의 고장으로서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㉔ 地理的 特性

- 天安은 忠南의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예로부터 三南교통의 중심지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저산성 구릉지의 고른 발달로 과수 · 축산 · 특용작물 등 고소득 중심의 영농 적지일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산업입지 여건이 유리하여 수도권 압출의 역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地域의 特記事項]

廣德胡桃(광덕호도)

상사(上寺)부락 호도는 지금부터 약 700여년 전 고려 충열왕(忠烈王) 16년(1290년) 9월에 영밀공(英密公) 류청신(柳淸臣) 선생이 원(元) 나라로부터 왕가(王駕)를 모시고 돌아올 때에 열매와 묘목(苗木)을 가져와 묘목은 광덕사의 경내(境內)에 심고 열매는 천안군 광덕면 매당리 향저(鄉邸) 뜰 앞에 심은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그 후 거의 700년 동안 선생의 후손과 지역 주민들이 부지런히 심고 정성껏 가꾼 결과 호도나무는 차령산맥의 골짜기마다 무성하게 번성하여 오늘날에는 우리 고장의 명물이 된 것이다.

호도(胡桃)는 이름이 여러가지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나무는, 호도, 호두, 또는 당추자, 당초자라 하며 열매는 호도육, 핵도인, 핵도(核桃), 강도, 하마라 등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관혼 상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과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콩팥, 염통, 허파, 지라등을 튼튼하게 하며 뇌를 맑게하고 살결을 곱게 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고르게하여 노쇠를 방지하는 한약제로 쓰이고 있으며, 영양가가 높아 변비, 기침등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무는 크기가 최장(最長) 20m나 크며 수령(樹令)도 400~500년이나 되는 장수 거목으로 판자(板子)가 단단하고 나무의 결과 무늬가 아름다와 목공예의 자재로도 많이 이용되어 우리나라 가구 공예의 격조(格調)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인사(人士)들이 호도전래사적비 건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성스런 뜻과 애향심을 모아 호도나무를 처음 심었던 광덕사 경내(境內)에 호도전래사적비(胡桃傳來史跡碑)를 1981년 11월에 세웠다.

흑 성 산 (黑城山)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에 있는 흑성산은 근래에 독립기념관이 들어서서 국가적 성역이 된 곳이다.

높이 519m의 흑성산은 풍수지리상 서울의 외청룡이 된다고 하며 산 꼭대기에는 둘레 739보의 옛 성터가 있다.

흑성산의 본래 이름은 ‘검은성(儉隱城)’이다. 이 검은성을 중심으로 김시민, 박문수, 김좌진, 이동녕, 유관순, 이범석, 조병옥 등 많은 구국열사가 배출되었으며 일제 때 ‘검다’는 뜻을 그대로 옮겨서 ‘흑성산’으로 바꾼 것이다. 본래 ‘검(儉)’은 단군 왕검의 ‘검’처럼, 임금을 나타내는 옛 말이다.

이 곳은 풍수지리상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즉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의 명당 길지로서 ‘좌우동천 승적지(左右洞天勝敵地)’라 하였다.

여기서 좌우동천 승적지는 석천리의 승적(勝敵)골과 지산리의 승적골을 말하는데 석천리 승적골은 5목(덜목, 제목, 칩목, 사리목, 돌목)의 사이에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있기 때문이며, 또 지산리의 승적(勝敵)골 역시 매우 아늑하여 옛부터 피난처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이 곳에 독립기념관이 들어 서게 된 것과 관련하여 암행어사 박문수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죽자 그의 묘소를 지금의 독립기념관 자리에 정하였는데 이때 어느 유명한 지관(地官)이 이 곳은 2~3백 년 후에는 나라에서 요긴하게 쓸 땅이므로 그때 가면 이장을 해야 되니 이 자리보다 십리 남쪽 모처에 쓰라고 권하여 지금의 북면 은석산에 묘소를 정하였다고 한다.

과연 ‘검은성’이라는 이름대로 국가적 사업에 의한 독립기념관이 흑성산록에 들어서서 풍수지리상 명당 길지인 이 곳이 제 구실을 다한 셈이다.

[地名의 由來]

□ 成歡邑 安宮里 佳龍

- 마을 地形이 佳人이 龍을 타고 하늘을 나는 形局이라 하여 佳龍이라 한다.

□ 成歡邑 栗金里 쇠일

- 金谷, 금굴리라고도하며 밤개울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고려때 원나라에서 이 곳애와 금을 많이 캐 갔다고 하며 울금광산이 있었고 금이 많이 나왔다 한다.

□ 成歡邑 梅珠里 매곡

- 마을에 梅花落地形의 명당이 있다 하여 梅谷이라 부른다.

□ 成歡邑 梅珠里 세프니

- 광주리 서쪽 길동성이에 새로 생긴 마을로, 이 일대가 사금이 많이 나왔다 한다. 또는 진동, 신촌이라고도 부른다.

□ 聖居邑 所牛里 鳴牛里

- 所牛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어미 소가 새끼 소를 부르는

形局이라 하여 鳴牛里라 한다.

□ 聖居邑 料芳里 芬芳里

- 분방이라고도 하며 요방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토기의 원료인 점토가 생산되던 곳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시 요동, 분방동, 수월리를 합하여 요방리라 하였다.

□ 聖居邑 松南里 소दै이

- 마을 지형이 마치 솔뚜껑처럼 생겼다 하여 소दै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송남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聖居邑 五色堂里

- 本來 직산군 이남면 地域으로 옛날에 오색구름이 끼어 있었다 하여 五色堂이라 부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막거리를 합하여 五色堂里라 부른다.

□ 聖居邑 天興里 三道바위

- 큰 바위가 길게 가로 누워 있어서 세 골짜기의 물이 각기 이 바위를 거쳐 흐르게 되었는데 북쪽에 일음이 많이 일면 경기도가 풍년이 들

들고, 가운데는 충청도, 남쪽에 얼음이 얼면 경상도가 풍년이 든다 하여 三道바위라 부른다.

□ 聖居邑 松南里 송당부락

- 배가 물 위를 떠 있는 형이라 하여 우물을 파면 배의 밑을 뚫은 것과 같아서 배가 가라 앉아 부락이 불길하다 하므로 옛날에는 샘 파는 일을 부락에서 꺼려 했다고 한다.

□ 北面 陽谷里

- 비록 산중이나 넓게 뻗어서 양지 바른 곳이라 하여 벼장골이 변하여 陽谷里라 부른다. 또는 배장골, 변정이라고도 한다.

□ 北面 梧谷里 梧桐村

- 마을 뒤에 봉황산이 있는데 봉황새는 오동이 아니면 깃들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梧桐村이라 하였다 한다.

□ 北面 上東里 문다라니

- 마을이 사방으로 산에 둘러 싸여 있어 문을 단 대문 안처럼 아늑하다 하여 문다라니라 부른다.

□ 修身面

- 옛 충청좌도 청주목 地域으로 들이 넓고 물이 깊다 하여 水深面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修身面이 되었다 한다.

□ 修身面 鉢山里

- 옛 청주군 수신면 地域으로 地形이 바릿대처럼 생겼다 하여 바리미 또는 鉢山里라 부른다.

□ 修身面 長山里 우걱골

- 마을의 地形이 삼태기 같이 우묵하게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숲속에는 쇠뿔 같은 형국이라 하여 우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北面 銀芝里 銀石山

- 산이 땃순같이 수려하고 수석이 아름답다 하여 銀石山이라 부른다.
해발 456m로 산록에는 朴文秀어사 묘와 신라 文武王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銀石寺가 있고 정상에는 이조때의 祈雨壇이 있다.

□ 並川面 並川里 아우내 (九溪)

- 구계(九溪), 아내, 아우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있어 아내장이라 흔히 부른다. 치랏내와 병천천이 합쳐지게 됨으로 두물이 어울린다고

하여 아내라 하기도 하고, 구계(九溪), 아홉 내에서 온 아우내라고도 한다. 구계라고 하는 것은 철이 이 내에서 생산 되므로 철내의 옛 이름이다.

□ 並川面 龍頭里

- 本來 목천군 이원동면 地域으로 산에 대가 많이 있었으므로 죽림리라 하였는데 효종때 학자 秀堂 柳莢의 묘소를 모신후 청룡의 머리가 된다 하여 龍頭里라 부른다.

□ 並川面 佳田里 강당골

- 창평 이씨 묘와 제학공의 제단이 있는데 창평 이씨는 충무공 김시민의 외조부이며 제학공은 안동 김씨의 증시조이다. 이 자리가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이며 명나라 명사 두사충(杜師聰)이 소점인데 말이 물을 마시는 형이라 하며 은(銀) 세말을 폐백으로 주었다고 전하여 온다.

□ 並川面 龍頭里 芝靈里

- 매봉산 밑에 있는 마을로 산이 에워 싸고 물이 돌아 흘러서 인걸이 많이 날 땅이라 하여 芝靈里라 하였으며 “인걸은 芝靈”이란 말과 같이 地名에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인걸이 배출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셈이다.

□ 並川面 梅城里 공시미

- 마을이 풍류를 타고난 지역에 자리하여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청청하고 공정하게 산다하여 公心이라 부르다 변하여 공시미라고 부른다.

□ 東面 竹溪里 오미기

- 마을 뒷산의 형국이 뱀새와 같으며 마을 지형이 오목하다 하여 오미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東面 花德里 道明(도명골)

- 도명리라고도 불렀으며 화청리 동쪽에 있으며 마을이 아늑하게 생겼으므로 두명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도명골이 되었다고 하는데 금동 불상이 출토되었으며 옛 집터가 많다고 한다.

□ 稷山面 愁歇里

- 옛 서변면 地域으로 高麗 태조 왕건이 이 곳에 있는 원집에 쉬면서 동쪽으로 성거산을 바라보다가 오색구름이 엉기어 있음을 보고 神仙이 사는 곳이라 근심이 풀리어 잘 쉬어 갔다 하여 시름세 또는 수홀이라 한다.

□ 笠場面 耆老里

- 本來 직산군 이동면 地域으로 산수가 좋아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壽를 한다 하여 耆老, 耆老里라 부르며, 1914년 사장동, 동산말, 숲거리를 병합하여 기로리라 하였다.

□ 笠場面 柳里

- 本來 직산군 삼동면 地域으로 地形이 버들가지처럼 생겨서 앵소유지의 形局이라 하여 버들아지 또는 柳里라 부른다.

□ 笠場面 侍壯里 술샘(우물)

- 수리고개에 있는 샘으로 샘물에 술 기운이 있어서 목마른 사람이 마시면 갈증이 풀리고 요기가 되었다 하여 술샘이라 하는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껏 마시기 위하여 우물을 더 파니 술 기운이 없어졌다 한다.

□ 笠場面 山井里

- 옛 직산군 삼동면 지역으로서 산 밑에 좋은 우물이 있어서, 이 물을 먹고 앓은 병이가 걸어 가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 났다 하여 산우물이라 부르다 변하여 산정리라 부른다.

□ 廣德面 院德里 쇠내골

- 금내곡, 삼천리, 원터 동남쪽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 쇠와 금이 많이 나왔다 하여 쇠내골이라 한다.

□ 木川面 石川里 쌍가마골

- 은과 철이 생산되어 은을 생산하는 가마와 철을 녹이는 가마 둘이 있었으므로 가마가 두개 있었다고 하여 쌍가마 골이라고 한다.

□ 木川面 校村里 물아래 물위

- 용연저수지가 생기기 이전 옛날부터 조상들이 불러 오기를 저수지 제방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을 물위, 아래쪽은 물아래라 불리어 왔으며 물위 사람·물아래 사람으로 구분 하기도 하였다. 저수지가 생기고 보니 옛 어른들이 선견지명이 있어 불리운 것 같다.

□ 木川面 泉亭里 다리실 (橋項)

- 다리실(橋項)을 안다리실, 바깥다리실이라 하는데 이 곳에 부락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며 경부고속도로가 뚫려 항이 생기더니 목천 인터체인지가 생겨 그 위로 다리가 놓여져 교항 다리실이 되었다. 옛날 누가 橋項(다리실)이라고 명명했는지 탄복할 따름이다.

□ 東面 長松里 무너미

- 장송리에서 송연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낮아서 장송리의 물이 송연리로 넘어 간다 하여 무네미라 하였는데 1946년 이 후로 장송리의 물을 이 고개를 넘겨 송연리 들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옛 어른들이 선견지명이 있어 놀라운 것 같다.

[附 錄]

○ 風水地理理論

1. 風水의 概要
2. 風水地理說의 歷史
3. 風水地理說의 基本原理
4. 陰宅風水理論
5. 陽宅風水理論

○ 風水用語解說

風水地理理論

1. 風水概要

風水地理說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風水書들이 風水地理說의 要諦를 한마디로 表現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어떤 一書에서는 風水란 陰과 陽이라는 두 概念 사이에 머무는 것이니 陰·陽의 奇妙함을 꿰뚫어 알 때 사람 사이에 地仙으로 행세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 하여 그 要諦를 陰陽이라 하였으며, 또 風水의 法術은 得水가 으뜸이요 藏風이 그 다음이라 하여 風水하는 방법으로 平洋의 地勢에서 得水의 땅이 제일이고 山龍인 경우의 藏風되는 땅이 그 다음이라 하였다. 또다른 風水書에서는 地理의 理法에서는 坐向 方位에 대한 것이 論理를 세우는 처음이라 하여 方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국내 학자들의 研究 論文에 나타난 風水說의 정의는 墓相과 家相으로 吉凶禍福을卜하는 迷信, 土地에 대하여 일종의 形而上學的인 神祕靈妙한 實在를 인정하여 都邑·宮宅·陵墓의 땅을卜相하고 人間에 미치는 吉凶禍福의 영향을 논하는 일종의 觀相學, 風水의 基本 構成要素는 山·水·方位의 세가지이며, 그 本質은 天地의 生氣를 地脈을 媒介로 享受함으로써 人生 幸福을 구하는것, 地形에 대한 體系의인 지식으로 傳統科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등 이외에도 무수한 例가 제시되고 있다.

결국 風水地理說이란 陰陽五行論과 周易의 思考를 論理의 기반으로 한 일종

의 方術로 그 基本的 構成 要素는 山·水·方位이며 실제로서는 龍穴砂水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韓國的 思惟體系인 것으로 風水를 理解하고 있다.

2. 風水地理說의 歷史

人間이 地表를 占有하여 生活을 영위해온 이래 地理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地理學的 思考를 하지 않고 살아온 種族은 없을 것이다. 時間과 空間의 문제는 人類 出現 혹은 人間의 出生과 함께 피할 수 없이 직면하는 課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居住地域의 風土에 적응하며 살아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地理的 思考를 成熟·發展시켜 어떤 形態를 갖춘 論理로 構成하여 갔을 것이다. 따라서 그 論理는 風土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地域的 差異를 보이게 된다.

風水說 역시 그와 같은 地理的 思考의 成熟·發展된 論理體系中 하나이다. 中國에서 發生하여 그 곳에서 理論의 確立을 본 뒤 우리나라에 도입된 風水說은 다른 地域의 地理的 思考와는 매우 다른 本質的 要素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그 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住居選定이나 聚落立地의 방법뿐 만이 아니라 죽은 者의 永眠의 場所를 찾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의 獨創的인 文化現象이라고 할 만하다.

왜 그들이 죽은 뒤의 居所位置에 까지 크게 신경을 썼을까 하는 것은 屍身의 처리풍습과 風水發生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따라서 初期 人類가 죽은 자를 어떻게 취급하였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現在 알려져 있는 최초의 확실한 埋葬은 최후의 間氷期에 행해진 것이다. 여기서 原始人들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마음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考古學的 發掘 예에 의하면 原始人들이 죽은 者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와 형식으로 死者를 보살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後代에 갈수록 그 의식과 절차, 부장물들은 그 복잡성을 더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상징코자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죽음의 처리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의례, 그리고 觀念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법은 다양했지만 기본적으로는 埋葬이 주된 관습이었다. 시체의 埋葬은 결국 軟部를 썩히고 뼈를 보존한다는 기본정신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愛着·尊敬 혹은 靈魂에 대한 崇仰등 정신적 입장의 결과이며 이 것이 더 발달하면 肉身 전부를 보존하려는 인공 미이라로 발전되기도 한다.

따라서 屍體의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枕向은 東枕과 南枕이 기본이었으나 東枕이 압도적이었으며 이 것은 해가 뜨는 방향과 햇빛이 뜨겁게 비쳐 주는 방향이 다시 生命을 復活시킨다는 思考의 반영인듯 하다.

三國時代를 거쳐 新羅末期까지의 古墳出土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에는 엄격한 形式이 있었고 死者에 대한 뚜렷한 의도와 어떤 종류의 希求가 깔려 있는 듯하다. 특히 고구려 古墳壁畫가 4세기 후반 이래로 발달, 처음에는 生活圖·風俗圖 위주이다가 6세기로 들어 가면 四神圖(靑龍, 白虎, 朱雀, 玄武)가

차차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風水의 도입이라 볼 수는 없어도 風水의 思考의 基本觀念은 마련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된다.

이것이 구체적인 理論體系를 갖게 된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체로 戰國時代末期에 와서 風水의 觀念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B.C 4~5세기경의 이 시대에는 점성가, 마법사, 문인, 제사등이 왕궁의 궁정을 메우는 형편이었다. 이들은 개인의 문명은 물론 國運을 좌우하는 大事件이나 戰爭에 대한 징조 같은 것들을 天體의 運行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思考와 관련하여 漢代에 이르러서는 특히, 陰陽說이 導入되어 완전한 風水原理를 정돈하게 되며 그리하여 風水의 經典인 青鳥經이 편찬되었다.

中國의 風水思想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물론 陰陽五行思想이라든가 四神獸 신앙과 같은 것은 三國時代에 유행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墳墓壁畫上에 四神의 圖가 그려져 있으나, 실제 그 時代의 墳墓·宮宅의 制를 보면 아직 風水說의 영향은 받지 않은것 같다. 따라서 風水思想의 傳來는 新羅統一以後 唐과의 文化的 交流가 빈번하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던 風水說은 그 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俗信과 부합되는 과정에서 陰宅風水 위주로 크게 변질되어 소위 風水圖識의인 思考觀念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朝鮮朝에 이르러서는 초기 奠都 및 主山 결정 문제로 世宗朝까지 분분한 風水論議가 있었으며, 風水說의 유행은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듯한데 世宗때 主山 문제로 禮曹參判 權瓘과 世宗간의 다음과 같은 風水論議는 그 時代의 風水說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權蹈가 主山을 옮겨야 된다는 論議에 강력히 반대하여 周公, 孔子, 司馬溫公, 朱文公등 大賢을 거론하며 그들도 地理에 대하여 말한 바 없고 司馬溫公은 擇葬之說의 그릇됨을 極論한 바 있는데 그 와 같은 誕妄·不信의 說로써 國事를 論함은 부당하다고 長言을 올려 간하니 이에 世宗은 그가 그의 아버지인 權近을 葬할 때에도 과연 地理法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일부 儒臣들 사이에 강력한 風水排斥論이 등장하고 風水說은 民間信仰化하여 일반 민간에서 葬墓에 치중하는 術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明堂, 名穴, 吉地를 찾아 父母를 둘러싼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發生되었다.

丁茶山은 牧民心書에서 지금 風水에 현혹되어 山의 空穴이 없으면 平地에서 別格으로 穴을 지어 良田沃土가 폐하여 墓地가 되니 玉土는 날로 줄어 든다고 지적하였다.

그외 남의 所有地에 몰래 父祖의 屍體를 묻는 暗葬, 他人의 山野墓地를 교활하게 침탈하는 偷葬, 權勢를 등지고 강제로 뺏는 勒葬, 副葬品도둑, 屍體모독등은 물론이고 移葬의 성행으로 인한 經濟的 부담도 막중한 것이었다.

이에 實學者의 風水否定論은 날카롭게 핵심을 찌러 楚亭 朴濟家は 北學議에서 風水說 자체의 허망함과 根據없음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否定論의 대부분이 風水論理體系 그 자체에 대한 本質的인 비난이 아니라 그로 인한 관습, 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現代 諸關聯科學의 風水思想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첫째, 迷信으로 규정지어진 術法的 입장에서의 追孝·發蔭을 주된 목적으로

한 術師 部類의 接近

둘째, 歷史學에서 주로 羅末・麗初와 高麗時代 및 麗末 朝鮮初의 정치, 사회상을 그로써 解釋하고자 하는 接近

셋째, 東洋哲學 내지는 思想史 分野에서 易을 根本으로 陰陽五行, 理氣, 干支등을 분석하여 風水說의 本質을 理解하고자 하는 接近

넷째, 建築學 및 環境學 分野에서 空間構成의 形態의, 傳統建築思想的 景觀認識의 측면에서 그의 合理性을 導出코자 하는 接近

다섯째, 民俗學, 國文學 分野에서 風水・圖讖, 샤마니즘, 新興宗教등이 未分化된 狀態에서 現況調査와 그 解釋을 시도한 接近

여섯째, 地理學에서 그의 합리성이나 立地論의 妥當性 여부를 분석한 接近 등이 있다.

3. 風水地理說의 基本原理

風水의 目的은 地力에 의하여 人生의 發達과 幸福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 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王都의 地氣가 왕성해야 한다는 王都風水說, 住宅을 吉地에 정해 행운을 추구하는 陽宅風水說, 祖上의 묘를 吉地에 구해 가문 혈족의 융성을 위한 陰宅風水說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陽宅, 陰宅風水說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陰宅風水가 조상의 墓를 吉地에 구해 자손의 번영을 꾀하려는 것으로, 이는 땅속에 흘러 다니는 生氣에 感應받음으로써 避凶發福할 수 있다는 眞穴을 찾는 데 있다. 風水說의 基本原理는 이와 같은 眞穴을 찾아 내는 過程과 方法을 추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땅속의 生氣가 가장 충만한 곳이 眞穴이 되고, 이 眞穴을 찾는 것이 風水의 목적이므로 生氣가 머문 곳을 찾는 原理가 風水原理라는 論理가 成立된다.

그러나 生氣는 말로 전할 수 있는 쉬운 概念이 아니다. 生氣가 聚注한 眞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眞龍을 찾아야 하는데 眞龍의 출발은 崑崙山(히말라야 山脈과 티벳고원 북쪽에 있는 산)으로 이 산은 天地를 진호하는 鉅物이며 여기서 흘러나온 龍脈은 마치 사람의 목뼈-등뼈-다리뼈로 이어지는 중심뼈대와 같아서 그에 연결될 것을 요구하며 이 것이 연면히 이어져 穴場까지 닿게 된다. 이 龍脈의 흐름을 찾는 방법을 看龍法이라 한다.

龍은 穴處에 오게 되면 砂城이란 이름으로 穴의 주위를 둘러싸 藏風을 하는 形局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藏風法이라 하고, 역시 生氣의 聚止를 목적으로 하는 河川을 요구케 되는데 이를 得水法이라 하여 중시한다. 砂城에 둘러 쌓인 明堂을 구했다 하더라도 穴處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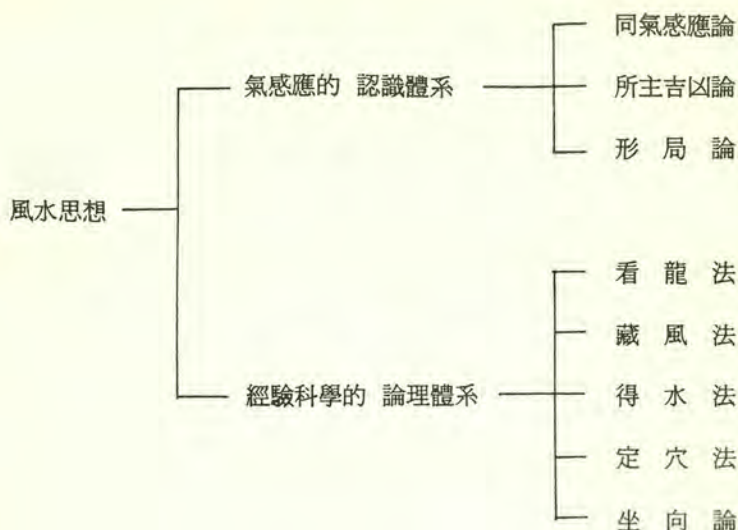
한치의 차이로 穴의 眞假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定穴法이라 한다. 그리고 陽宅의 경우 主建物이 놓이는 位置, 陰宅의 경우 屍身을 놓히는 방향을 결정하는 方法을 坐向論이라 한다.

결국 風水說의 原理는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砂城의 형세를 人身이나 禽獸의 모양에 類感시켜 發福의 종류를 결정케 되는데 이를 形局論이라 하며 世間에 알려진 風水는 여기에 집착된 것이 비교적 많다.

4. 陰宅風水理論

陰宅風水는 크게 두가지 體系로 구분된다. 하나는 땅에 이치를 논구한 經驗科學的 論理體系이고 다른 하나는 地氣가 어떻게 人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를 밝힌 氣感應的 認識體系 부분이다.

이것을 간단히 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同氣感應論

동기감응론이란 부모나 祖上의 遺骸가 받은 氣는 子息과 後孫에게 전달된다는 것으로 살아 있는 사람은 항상 몸을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氣가 필요하다. 사람은 食欲과 呼吸을 통하여 필요한 氣를 흡수하지만 天氣와 地氣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人氣로 화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氣는 그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뼈가 땅속에 묻혀 받는 地氣는 자기 자신이 쓸 곳이 없어 자연히 자기의 分身인 子息에게 그 氣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論理이다.

따라서 幸·不幸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遺骨과 자식과의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모의 本骸가 땅속의 生氣에 닿으면 부자사이에 感應이 생겨 生氣의 效果가 子孫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감응의 예로 아무리 嚴冬雪寒같은 찬 바람이 휘몰아쳐도 立春이 지나 雨

水가 되어 봄기운이 서리게 되면 뽕뽕 언 땅속에 묻혀 있는 씨앗이 움트울 채비를 차리는 것처럼 氣運과 機微는 그 윗대에서 물려 받은 自然의 法則을 그대로 물려 받는다는 뜻이다.

또 다른 예로 唐나라 현종때 궁궐에 매달려 있는 구리종이 바람도 없는데 땡그렁 울렸다. 훗날 알아 보니 종을 만든 구리를 캐낸 멀리 있는 구리광산에 그 시간에 지진이 나서 광산 전체가 울렸다는 것이다. 쇠붙이까지도 제 根本을 이같이 따르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르러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하는 例證인 것이다.

이러한 屍體와 땅속 生氣 사이의 生氣感應과 父子간에 있어서의 同氣感應이 感應論이다. 따지고 보면 生氣感應, 同氣感應의 兩者는 실은 同氣感應이란 하나의 理致로 歸着하는 것이다. 萬物은 땅을 어머니로 하여 생긴다. 사람도 역시 이 땅이 가진 生氣의 產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人體 특히 人體의 精髓라 하는 뼈는 땅속의 生氣와 同氣이어야만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땅은 부모이고, 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같다. 따라서 生氣에 찬 땅은 幸福한 運命의 부모의 품이다. 여기서 사람을 埋藏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墓에 의해 人生의 幸福과 發展을 求하려 함은 부자간에 있어서의 同氣感應의 原理에 따라 땅을 부모로 하여 그 땅에 埋藏하는 屍體를 아들로 하여 부자간의 同氣感應을 예상한 것이다. 埋藏된 시체와 땅을 아들과 부모사이의 부자간의 同氣感應으로 認定하여 부모의 屍體를 땅의 아들로 認識함으로써 땅속의 生氣感應이 地上의 살아 있는 자에게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陰宅風水說의 주된 요점은 부모의 屍骸를 媒介로 하여 現

在 살아있는 사람에게 福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同氣感應의 理致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說明으로는 同氣感應論을 납득할 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現在의 科學的 方法으로는 明快하게 설명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說明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자체가 없는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임응승신부 저 수맥과 풍수 참조)

道眠의 境地에 이른 참된 風水地官은 어떤 무덤을 보면 그 무덤의 子孫의 운세를 알아 맞춘다(道眠: 風水理論에 통달하고 그 철리를 깨달아 山水의 形勢 判斷에 틀림없는 錯誤도 일으키지 않는 地官) 그것이 어떻게 可能한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고 있는 現在까지도 風水思想이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關心을 갖는 사람이 많아 하나의 學問으로 발돋움하려는지도 모른다.

2) 所主吉凶論

소주길흉론이라는 用語는 지금까지 풍수분야에서 독립시켜 사용한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의 出典은 명나라 초기에 徐善繼, 徐善述 형제가 쓴 “人子須知資孝地理學”이란 책의 내용중 「二十四龍所主吉凶」이란 표현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는 사람과 관계되는 風水理論을 綜合하여 표현하는 경우에 적용하였다.

所主吉凶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수사상의 철저한 倫理性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모든 풍수설에서 예외없이 지적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易文言傳”에 나오는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이라거나 「明穴·吉地는 반드시 積善·積德을 하여야 차지할 수 있다」거나 「아무리 당대 최고의 名風水를 巨金을 들여 초빙해서 좋은 땅을 잡은들 그 땅을

쓸 사람이 생전에 惡行을 많이 했으면 소용없는 虛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런 예들이다.

살아계신 부모 보기를 빗장이 대하듯 하던 사람이 돌아가신뒤 부모의 뼈를 富貴를 구하는 밀천으로 삼아 온갖 짓을 다하여 眞穴을 구해본들 그것은 헛일 일 뿐이다.

3) 形 局 論

좋은 땅은 좋은 산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법이다. 이 산이 왜 좋으냐를 알아내는 技術的인 方法은 經驗科學의 論理體系의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실제 산을 보기 위하여 산에 들어가 보면 문헌에서 배운 이론대로 산이 떠올라 주지를 않는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때 그 산의 생긴 모양을 사람, 짐승, 조류, 파충류, 기타 여러가지 물체에 빗대어 봄으로써 보다 분명히 그 所應됨을 알아보자는 術法이 形局論이다.

唐나라때의 유명한 풍수가 卜應天이 지은 유려한 필체의 地家書인 “雪心賦”에서 「物은 人, 物, 禽, 獸의 類로 미루어 헤아릴 수 있고, 穴은 形으로 말미암아 취한다」고 갈파한 바와 같이 분명치 못한 山川形勢를 사람, 물체, 날짐승, 들짐승, 뱀무리 등의 형상에 유추하여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地勢概觀과 吉凶을 떠 올릴 수 있는 것이다.

形局論은 宇宙萬象이 有理有氣하며 有形有像하기 때문에 外形 物體에는 그 形象에 상응한 氣象과 氣運이 內在해 있다고 보는 觀念을 原理로 삼는다.

따라서 風水說에 있어서 保局形勢와 山穴形體에 따라 이에 所應되는 精氣가 그 땅에 凝聚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形局論의 理論의 原理이다.

4) 看 龍 法

위의 세가지 術法이 설명에 어려움이 많은 氣感應의 認識體系라면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들은 經驗的이고 技術의 性格이 강한 經驗科學的 論理體系라 할 것이다.

風水는 땅의 生氣를 받자는 地理學인데 이 生氣가 흐르는 通路가 산이고 山을 龍이라 부른다.

看龍法이란 그 산의 精氣의 源泉인 崑崙山, 白頭山으로부터 잘 이어져 있는지 병들었거나 죽은 龍(山)은 아닌지, 또 복스럽고 순하며 生氣를 가득 품은 山인지 등을 파악하는 術法이다. 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氣乘風則散 界水則止) 그래서 氣를 모으는 방법을 風水라 부른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氣는 山에 의하여 감싸인다. 그러므로 山은 중요하다. 山을 오래 다닌 사람은 風水의 術法을 몰라도 氣를 끌어 모으는 山은 잘 안다. 風水에서 看龍法이 풍수를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한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그런데 龍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脈이 통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脈은 人體의 生氣가 흐르는 根源通路이다. 脈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蘆花에 지나지 않는다. 脈이 통해야 살아 있는 신체이다. 그렇다면 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함인가?

脈이란 사람의 몸에서 血의 理致가 나뉘어 길으로 몸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그 脈을 보아 사람의 健康 程度를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龍脈도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부득이 그것이 길에 드러나 움직이는 山을 보아 땅의 좋고 나쁨을 진단하는 것이다.

風水에서 山勢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단적인 예로 “산이 좋으면 우수한

인제가 나고 산이 나쁘면 우매한 인간이 난다(山淸人秀 山濁人愚 自然地理)”는 말로 山勢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擇理地의 저자 李重煥도 사람이 그 住居를 택함에 있어 山의 形勢가 매우 중함을 말한 바 있는데 이 것이 바로 風水 看龍法인 것이다.

5) 藏 風 法

靑龍과 白虎등 砂에 둘러쌓인 穴前의 땅을 明堂이라고 한다. 이때 穴 바로 앞의 평탄한 땅 즉, 山所의 경우 墓板, 住居地의 경우 主建造物의 앞뜰을 內明堂이라 하고, 이 보다 더 앞쪽으로 내명당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평지를 外明堂이라 부른다.

穴과 明堂은 風水의 全體系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로, 位階上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明堂에 자리잡은 穴場을 잡는 것이 목적인 風水에 있어서 明堂주위의 地形 地勢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風水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된다.

明堂주변의 地勢에 관한 風水理論을 통칭하여 藏風法이라 하며 결국 藏風法을 통하여 定穴도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실제로 都邑이나 陰宅 혹은 住宅(陽宅)을 相地(땅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함에 있어서는 藏風法이 바로 要諦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葬書에 의하면 葬者는 生氣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生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風水라는 말이 생겼듯이 風水의 法術은 물을 얻고 바람을 막는 방법을 얻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람을 막는 것(防風)

이 아니고 불어서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바람을 끌여 들여 간수하자는 것(藏風)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明堂 주위에 산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게 된다. 즉 穴場 주위를 산이 둘러 싸고 그 중앙의 凹地에 陰陽二氣의 結合과 生氣의 活動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 藏風法이다.

6) 得 水 法

龍은 물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춘다. 물이 흐르는 곳에 龍宮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龍이 멈추는 곳에 穴이 있다. 흐르던 氣가 그것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陰陽說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宇宙에 가득차 있는 氣를 太極이라 한다. 太極은 陰과 陽으로 갈라지는데 山은 陰이고 물은 陽이다. 산은 움직임이 없으니 陰이고 물은 끊임없이 流動하니까 陽이라는 것이다. 물론 細分하면 山에도 陰陽이 있고 물에도 陰陽이 있다. 이 陰과 陽이 만나서 融合하면 새로운 氣가 생긴다. 이 새로운 氣가 사람에게 天福을 내려준다는 것이다.

물은 山水陰陽에 必須構成要素이며 山은 사람의 신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血脈과 같다는 이유에서 得水法을 藏風法보다 上位의 概念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身體인 山의 生長枯榮은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血脈같은 水流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人體의 健康 與否가 血脈에 의존하는데, 이 血脈이 正常的으로 循環하고 순조로우면 건강하고 반대로 불규칙적이면 반드시 疾病에 걸리는 것처럼 山水도 이와 같이 水와 山이 합쳐지지 않으면 山의 吉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風水에 있어서 水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7) 定 穴 法

藏風과 得水가 適格임이 인정되면 明堂은 결정된 셈이다. 이 明堂중에서도 穴處를 찾는 방법이 定穴法이다.

穴은 風水에서 要諦가 되는 장소이다. 穴은 陰宅의 경우 屍身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生氣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며 陽宅의 경우 居住者가 실제 삶의 대부분을 얹혀 살게 되는 곳이다.

朱子는 그의 山陵議狀에서 “소위 定穴의 法이란 鍼灸術에 털끝 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風水의 穴이 人體의 經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하였다.

經穴이란 經絡에 존재하는 孔穴이란 뜻으로 經脈의 出, 注, 過, 行, 入 한 곳의 모든 곳의 모든 점을 孔穴이라 일컫는데, 氣穴의 榮衛現象이 반응하는 經絡의 路線중에서도 特定한 위치에 生理的 또는 病理的 반응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을 말한다.

鍼灸는 모두 이 孔穴의 部位에서 實施하게 되므로 孔穴의 部位를 잘 알아 月藏 月府와 身體의 각 部位에서 일어나는 病原과 經絡孔穴과의 鍼灸關係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침뜸술의 要訣이 되며, 風水에서 穴을 정하는 定穴法의 어려움도 이로 미루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穴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生氣의 所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生龍은 死龍이 되고 吉局은 凶局이 되니 결국 破滅에 이르게 된다.

볼록렌즈나 오목거울에서 빛을 一點에 모으는 焦點에 穴을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眞穴은 앞에 아름다운 朝山과 案山이 있고 明堂이 바르고 水局이 모여들듯 흐르고, 뒤에는 樂山이 솟아 鬼星을 버티고, 左右의 靑龍白虎가 有

情하고 전호(纏護)가 일싸안고, 주변 山勢는 十道眞結法에 맞게 調和를 이루며 界水가 그 分畧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곳에 있다.

이러한 術法은 수 없이 많지만, 요컨대 나쁜 자리를 피하고 좋은 땅을 찾는 것인데 慾心이 動하면 生氣가 숨는 법이라, 일반적으로는 凶地를 피하는 방법에 主안점을 두는 것이 正道이다.

地下水脈을 피하는 일은 가장 좋은 避凶의 예가 될 것이다. 地下水는 地表로부터 끊임 없이 물을 供給받기 위하여 계속적인 破壞作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地下水脈위에 建物を 세우면 벽이 갈라진다. 또 나무도 풀도 자라지를 못한다. 철근 콘크리트가 금이 갈 정도의 힘이니, 그 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산다면 그 사람이 견디어 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또 산소를 그 위에 모시게 되면 同氣感應論에 의하여 그 子息들에게 凶事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런 자리를 피하자는 것이 風水定穴法의 목적인 것이다.

8) 坐 向 論

坐向論은 方位에 관계된 術法으로 가장 어려운 風水技術이다. 坐向은 局面全般이 一定한 形局으로 坐定되었을때 前開後閉, 즉 穴의 앞쪽으로 트이고 穴의 뒤쪽으로 기댈 수 있는 選好性方位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기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感覺器官으로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波長들이 지나간다. 地磁氣에 의한 磁力線은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원래 0.5Gauss의 磁力線이 공기중에 지나는 것이지만, 빌딩이나 기타 人工建造物에 의하여 아파트 중에서는 그 절반인 0.25~0.26Gauss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身體에 異常을 誘發시킨다.

또 이것은 사람이 어느 방향에 가장 오래동안 露出되어 있느냐에 따라 받아

들이는 정도에 큰 차이가 생긴다. 철새는 視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磁力線을 感知하여 길길을 찾는 것이 실험 결과 밝혀져 있다. 아직 확연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人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은 밝혀져 있는 셈이다.

5. 陽宅風水理論

陽宅이란 산 사람들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것으로 風水에서는 陽宅三要訣을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 법을 따르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天地理致에 맞아 부귀가 약속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천과 궁색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1) 陽宅三要訣

陽宅三要訣이란 집터를 사거나 집을 살때 또는 집을 지을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중요 포인트를 말하는 것인데, 집의 대문, 안방, 부엌위치와 형태 방향을 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가. 背山臨水

집은 산을 등지고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것으로 집의 정원이 도로보다 낮으면 흉가로 보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도로는 물을 의미하므로 浸水를 뜻한다.

나. 前低後高

主建物이 높은데 위치해야 하며 庭園과 행랑채는 낮아야 한다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경사진 곳의 뒤쪽의 축대를 쌓고 남향집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경사도에 따라 주위 환경과 집 자리가 불안정하게 되어 공기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며, 공기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정신이 불안해지고

허약한 사람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지에서는 부속건물과 담장이 주건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큰 인물이 난다는 것이다.

다. 前窄後寬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테면 출입하는 곳이 좁으면서 정원에 들어서면 건물에 비하여 정원이 넓어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다.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집 주위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기가 부드러워지면 땅의 정기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2) 陽宅三要訣에 의한 좋은 집 選擇要領

첫째로, 좋은 집에 대한 概念은 따뜻해야 한다.

風水가 自然의 攝理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임을 감안한다면 陽宅에서 風은 적절한 공기의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하는데, 기온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방향이 남향이어야 하고 집은 북쪽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뜻해진다. 또 자연적으로 따뜻하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번째로,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生氣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는다. 모든 生物은 햇볕을 필요로 하는데 같은 햇볕이라도 氣가 일어나는 아침 햇볕을 받아야지 저녁 햇볕은 오히려 生氣를 잃게 하는데 西向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뿐 아니라 건물 자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교회 건물같이 뾰족한 것은 특수한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가정집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세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明堂이라도 사람이 쓸 수 있을때 명당이지 이용 가치가 없는 명당은 이미 명당이 아니다. 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도 오고 복도 들어오며 교통의 중심지는 商圈이 발달하고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道路에 인접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도 敷地 延長과 같은 위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垆地의 四面중에서 최소한 한 면만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道路의 交叉點으로 코너가 되는 대지이다. 風水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陽宅三要訣에서도 말했듯이 陽宅에서는 도로를 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만나는 곳에 生氣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다섯째는, 집앞의 全景이 좋아야 한다.

活動의 根源地이며 成長의 搖籃인 住宅의 전경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精神的인 安定과 情緒的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 건전한 思考를 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건전한 사고의 사람은 정신적 疾患이 없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다음은 나쁜 집이란 어떠한 곳을 말하는지 나쁜집 가려내는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막다른 골목집은 좋지 않다.

陽宅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므로 막다른 골목집은 물을 막은 것과 같다. 물을 막았다는 것은 水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水力에 무너지므로 패가를 의미한다.

두번째, 生土가 아닌 埋立地는 좋지 않다.

땅의 氣는 岩盤을 타고 흐르며 生土로 이어진다. 따라서 風水理論에서는 땅의 氣는 生土에만 있는 것으로 看做하며 埋立地위의 住宅은 氣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陽宅의 原則論일뿐으로 현재 都市計劃上 埋立地는 상당히 많으며 그 집내서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埋立地보다는 生土가 좋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나무 뿌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의 生氣를 나무가 받아 居住者들에게 무익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落雷의 위험이 있으며 벌레들이 들끓어 病을 옮길 우려가 있다. 또 집이 나무 그늘에 가려 항상 습하고 陰地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네번째, 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미신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집을 사기전에 망한 이유를 찾아 보면 틀림없이 집의 座向이나 대문의 위치, 안방, 부엌등의 配合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마당에 연못이 있으면 좋지 않다.

단독주택에서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다면 그 집터는 바로 水脈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고일 수 있는 濕地임으로 좋지 않다. 마당에 연못이 있을 경우 조금만 管理를 소홀히 하면 물은 썩게 마련이고 썩은 물은 疾病을 유도하기 쉽다. 이런 집들의 식솔들은 대부분 신경통을 앓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여섯째, 既存 두집을 담을 터서 한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이것은 출입문이 두 개임을 뜻한다. 風水에서 물은 모든 氣, 또는 道路, 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氣가 들어와 쌓이지 않고 나가버릴 우려가 있으니 문이 두 개면 주인이 둘이 되어서 집안 꼴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 집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다.

風水理論에서 한 穴場에 둘을 넣지 말라는 格言이 있는데 이는 陽宅에서 合葬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의 氣를 둘이서 받으면 그만큼 양이 반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제가 이웃에 살면 남자들은 형이나 동생에게, 즉 잘되는 쪽에 의지하게 되며 동서간은 시샘을 하게 되어 형제가 和睦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덟째, 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대문은 물의 입구를 뜻하므로 안방이 直水가 되어도 좋지 않고 부엌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있어서도 外人이나 來訪客의 눈에 안방이 들여다 보이면 見物生心 盜難의 우려가 있고, 부엌이 바로 보이면 여자가 外部와 연결되어 음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홉째,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基礎工事が 不實하다는 것을 뜻하며 背水가 안된 집이니 붕괴 우려가 있다.

열째,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方向이 나쁘다는 뜻이며 그늘이 진다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든 것과 같다.

3) 住宅으로서의 아파트의 生活與件

대부분의 아파트는 國土利用이라는 측면이나 都市計劃上 風水地理的 條件을 갖추지 못한 길다란 直線形 일자 構造를 이루고 있어 골목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물론 아파트의 좌향에 따라 여러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건물의 方位를 잘못 선정하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대신 더운 바람이, 겨울에는 그 반대로 추운 바람만 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를 지을때 지형의 배치 관계로 북서향이 된다면 겨울에는 추운 북서

풍을 정면으로 맞게 되고 여름의 시원한 동남풍은 뒤쪽이 되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골목바람은 殺風이라 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청년들에게는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그것도 시원하지 않아 팔을 밖으로 내놓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는 그러한 바람에도 감기가 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殺風에 오래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아파트는 실내 온도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평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하기 보다는 과온상태로 지내기 쉽다.

사람은 氣候에 따라 性格이 형성되는데 사계절을 같은 온도에서 지내게 되면 성격이나 체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꽃도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서 자라야 아름답고 四季가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가 단단하듯이 사람도 기후 변화가 있는 곳에서 시달려야 건강하다는 것이다.

4) 아파트의 風水的 로얄층

아파트의 경우 地氣의 영향면에서 살펴볼때 고층아파트의 上位層들은 땅의 精氣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 또한 지상에는 地磁氣體系에 의하여 무수한 磁力線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非正常的인 狀態가 된다.

보통 지상에는 0.5Gauss정도의 자력선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에 의하여 차단된 현대 건축 공간에서는 0.25Gauss정도로 그 힘이 줄어든다. 이것을 자석에 의하여 보충하여 줌으로써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82.10.14일자 조선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연합통신 보도가 게재

되어 있다. “53세의 중공군장교 유진은 주치의로부터 2천년 전의 한방기록에 적힌 자석의 신비한 효능을 처방받고 자석신발을 신음으로써 고혈압, 신경성피로, 현기증, 악몽, 불면증, 耳鳴, 기억상실, 두통, 식욕부진증세 등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자력의 힘에 의지하여 신체 및 정신증세를 일소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해 오던 방법이다.

明堂에 묻힌 祖上의 좋은 氣가 後孫에 미친다는 陰宅의 同氣感應論을 생각할때 아파트 상위층에 살면서 땅의 氣를 못받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해 볼때 아파트의 로얄층은 1-2층이다. 1-2층이 땅의 氣를 받는 것은 물론 위험으로부터 피할 때도 아래층이 더 안전한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높은 곳(상급자, 상류, 최고급등)을 너무 좋아하는 관습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로얄층이 1-2층이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나무의 높이 다시 말해서 식물이 자랄수 있는 높이가 바로 생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지상으로부터 2-3층 높이 이상은 生物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더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등성이에 있는 나무가 골짜기에 있는 나무보다 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공기가 흩어지는 곳은 공기가 모이는 골짜기보다 나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5) 住居空間은 1인당 5坪이 適當

과학적으로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공간은 5坪이다. 아파트의 경우 5인 가족일때 理想的인 專用面積은 25坪이면 充分하다. 그러나 요즘 호화 아파트는 식구에 비해 너무 넓어 空虛하게 만든다. 옛부터 식구에 비해 규모가 큰 집을 “빈방에는 귀신이 있다”고 하여 경계했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

의 지혜였던 것 같다.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얼마 동안은 精神衛生에 좋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생활이 계속 유지되면 정신이 해이해져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진다.

적당한 긴장만이 사람을 생기있게 해주는 것이다. 한예로 동해안으로부터 바닷고기를 실어 나를때 물통에 넣고 출렁거리며 그대로 싣고 오면 고기들이 거의 瀕死狀態가 되어 商品으로서의 價値를 잃기 일쑤이나 고기의 天敵인 낚지를 몇마리 통속에 같이 넣어가지고 운반하면 고기들이 생생하다는 이치와 같다.

6) 집안에 분수·어항 설치하면 좋지 않다.

물은 五行가운데 陰에 해당되며 집안에 있는 陽을 흡수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집안의 生氣를 흡수하면 방안에 있는 氣는 자연히 죽은 氣가 되어 이를 호흡하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물이 어떤 氣를 빨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로스구이를 할때 밑에 물을 넣은 철판용기를 사용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분수시설을 하더라도 물을 항상 뿜어 올려 주면 물이 움직일 때는 물을 陰으로 보지 않고 陽으로 보기 때문에 집안에 습도를 조절하는등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나 분수를 가동하지 않으면 물은 썩기 마련이며 病菌의 온상이 되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

7) 大門의 位置에 따른 吉凶禍福

陽宅三要訣에서 대문을 제일 중요시하는 이유는 집안의 공기를 대량으로 환

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문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남향집이라도 대문이 남동쪽에 있을 경우 生氣宅이라 하여 부부해로하고 영예로운 일이 많으며 대체로 영화를 누릴 제일 길한 집이며, 식구마다 건강하고 부녀자도 현숙하며 고루 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집이라도 대문을 북동쪽으로 내면 五鬼宅이 되어 식구들이 강물에 자살하거나 목을 매 죽으며 관재구설, 도둑, 화재등으로 재산을 잃고 집안이 망하며 부자간이나 형제간에 불화하며 아내와는 상극하고 아들이 다치거나 부모에게 불효하며 속에 체증이 있어 고통을 당한다.

8) 陽宅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

옛부터 陽宅이나 四柱등에서 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방이 많아진 현대 주택에서는 그 집의 주인되는 사람이 안방에서 잠을 자므로 안방을 그 첫 번째로 친다. 이처럼 풍수에서 “자는방”을 제일 중요시 하는 이유는 잘때 그 집터의 생기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대의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氣를 에너지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氣에는 生氣, 勇氣, 氣運, 殺氣, 冷氣, 動氣, 氣合, 溫氣, 陽氣, 氣質, 氣稟, 虛氣, 氣慨, 氣骨, 氣分, 氣塞등 수없이 많다.

이런 氣의 原動力은 음식물을 통해 직접 받기도 하지만 活動할때에는 하늘(太陽)과 공기(風)에서 받고, 쉬거나 잘때는 땅에서 받는다. 그리하여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그 중에서도 잠자는 방은 땅의 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보는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잘때 땅의 氣를 받는다고 믿는 원리는 사람이 잘 때는 假死狀態이며 이때 意識은 쉬고 無意識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氣든지 침투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9) 水脈이 人體에 미치는 영향

水脈이 방밀으로 지나갔을 경우 방바닥이 터져 갈라지고 장판이 갈라진다. 만일 水脈이 밑으로 지나가는 방에 누워 잘 경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중풍에 걸리기 쉽고, 신경쇠약증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며 임신부들은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水脈은 물줄기를 供給받기 위한 自體運動에 의해 破壞運動을 계속 하므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용승 신부의 수맥과 풍수 참조)

風水用語 解説

□ 山

風水에 있어서 산은 絶對的인 條件으로 山과 연결되지 않은 地形은 自然環境이 아무리 좋아도 明堂이나 穴을 맺지 못한다. 風水術法에 따른 山의 基準은 경우에 따라 平地의 경우 一尺만 높아도 山으로 보는데, 평지에 穴이 있는 경우도 땅속으로 山의 氣脈이 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龍

山을 말하는 것으로 山의 頂上으로부터 四方으로 뻗어간 줄기를 말한다. 山의 形態가 千形萬象으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굽하고 완만하고, 순하고 거스르며, 굽고 곧은 등의 形態가 龍이 꿈틀거리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山을 龍이라 이름짓고 術法上 用語로 使用한다.

□ 脉

脉이란 龍속에 감추어진 山의 精氣를 뜻한다. 사람에게 脉이 있어 氣와 血이 脉을 쫓아 進行하는 것과 같이 龍은 手足등을 형성한 骨肉이요 脉은 血管과 같은 것이다.

脉이란 결국 血의 理致가 나누어 길으로 몸에 行하는 것을 말함이니 風水의 脉도 地中の 龍의 生氣가 그 理致를 나누어 地表面 부근에 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韓方에서 사람의 氣血이 잘 통하면 健康하고 氣血이 不通이면 死亡

하며, 따라서 의사가 사람의 脉을 보아 건강의 좋고 나쁜 것을 알아내는 것처럼 風水地師는 產龍의 脉을 보아 吉凶을 알 수 있다.

□ 穴

穴이란 龍脈중 陰陽이 合局되고 山水의 精氣가 凝結된 곳을 말한다. 穴이란 穴을 응위하는 山勢를 거느려야 하고 朝山, 案山을 갖추고 空缺이 없고 幽陰하지 않아야 한다.

山の 穴도 사람의 몸에 있는 穴과 같은 것으로, 이 穴處는 漢方에서와 같이 정해진 穴구멍이 있어 털끝 만큼의 틀림도 없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龍을 보아 眞假를 찾기는 쉬워도 眞穴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風水術法의 어려움이 바로 이 穴을 찾는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와 같이 生氣가 모여들어 穴을 이룬 것을 結穴이라 하고 이러한 산의 形勢를 局을 이루었다(成局)고 한다.

□ 砂

穴場을 중심으로 한 주위 二十四方を 둘러싼 大小의 峯巒을 포함하여 岩石, 樹木, 江, 바다, 湖水, 建物, 平野, 砂地, 丘陵, 道路등 穴周圍의 形勢를 砂라 한다.

이것은 옛 사람들이 相地術을 說明, 혹은 傳授할때 모래와 흙으로 形勢의 모형을 만들어 가르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체로 砂는 局穴의 주위를 둘러 싸고 生氣를 끌어 모아 醇化作用을 일으키게 하는 山이나 丘陵의 總稱으로 쓰인다.

砂의 種類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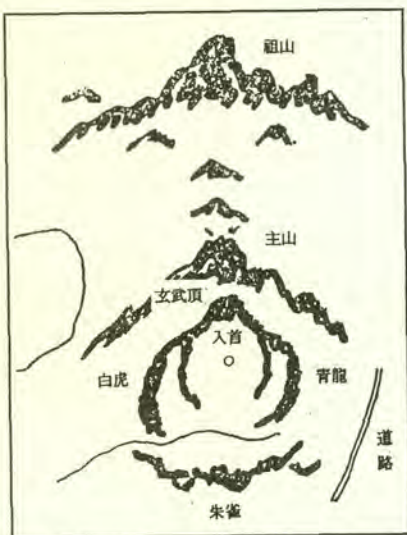
1. 祖山(太祖山)과 主山(小祖山)

사람의 系譜에 始祖와 中始祖 그리고 祖, 父母가 있듯이 龍에도 그 根本이 되는 祖山과 主山이 있다.

祖山은 穴이 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山으로 高大하고 雄偉하여 큰 것은 백여리를 뻗어나가 몇 고을의 으뜸이 되고 작은 것은 한 지방의 으뜸이요 더 작은 것은 한 마을의 으뜸이 되는 가장 基本이 되는 山이다.

主山은 祖山에서 行龍을 떠나 사방으로 굽이쳐 뻗어 나가다가 크고 작은 支山을 이루면서 穴이 되려는 곳을 얼마 못미쳐, 즉 穴場 뒤에 두어 節 정도 떨어져 솟은 高대한 山을 小祖山 또는 主山이라 한다.

主山은 穴場이 있는 明堂의 뒤에 位置하기 때문에 後山이라 하기도 하고 그를 鎮護한다 하여 鎮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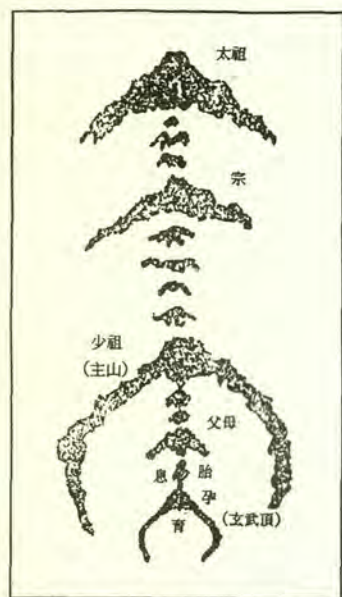
四神砂概念圖

2. 玄武頂, 入首, 頭腦

○ 玄武頂이란 穴과 가깝게 바로 穴場 부근에서 主山으로부터 내려 오는 來龍이 우뚝 솟을 곳을 玄武頂이라 하며

○ 玄武頂으로부터 도도록한 능선을 이루어 穴로 들어가기까지의 부분을 入首라 하는데, 이는 龍의 머리가 穴을 향하여 디밀고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 頭腦란 入首와 穴과의 接合地點을 龍의 얼굴 부분에 상당한다 하여 頭腦라 부른다.



3. 父母, 胎, 息, 孕, 育

- 小祖山에서 내려온 龍脉이 起伏을 이루면서 玄武頂까지 내려 오다가 玄武頂 바로 못미쳐 도도록하게 일어난 星辰을 父母라 하고

- 父母아래 落脉된 곳을 胎라 하며

- 胎아래 束氣된 잘룩목을 息이라 하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여 기르는 과정과 같다.

父母, 胎, 息, 孕, 育

이 玄武頂이니 이것을 가리켜 孕이라 하는 것으로 胎兒가 머리와 형체를 이름과 같음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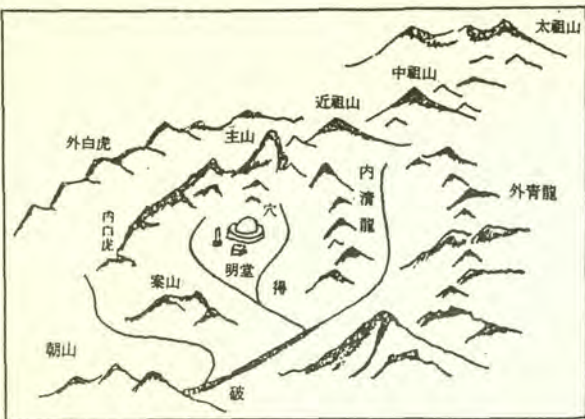
- 그리고 이 息에서 다시 星辰을 일으킨 곳

- 孕아래 穴處를 育이라 해서 이는 자식이 胎中에서 나온 것과 같은 형상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父母, 胎, 息, 孕, 育이 모두 入首의 範疇에 드는 것들이다.

4. 靑龍, 白虎, 案山, 朝山

玄武, 靑龍, 白虎를 알기 위해서는 四方守護神에 관한 理解가 필요하다.

四神은 穴前을 바라보며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등 周圍의 四山을 말한다.



風水概念圖

○ 玄武는 북쪽 方位의 水氣運을 맡은 太陽神을 상징한 거북 모양의 상상적 짐승으로 穴의 북쪽산, 즉 主山과 玄武頂이 이에 해당한다.

○ 青龍은 동쪽 方位의 木氣運을 맡은 太歲神을 상징

한 짐승으로 主山에서 갈라져 나간 왼쪽 산줄기, 대체로 穴의 동쪽을 둘러 싸고 있는 山을 말하며 二重인 경우 안쪽을 內青龍, 바깥쪽을 外青龍이라 한다.

○ 白虎는 서쪽 方位의 金氣運을 맡은 짐승으로 青龍의 맞은편 즉 穴의 서쪽을 둘러 싸고 있는 山으로 역시 內·外白虎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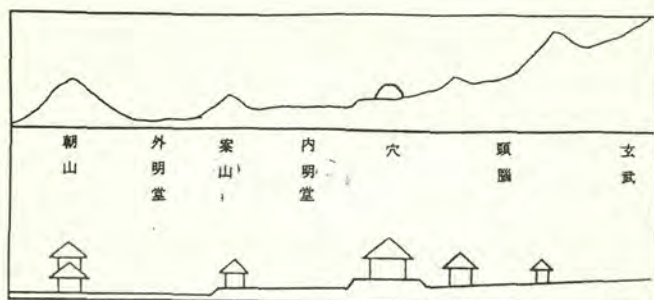
○ 案山은 穴 바로 앞에 있는 나즈막한 山으로 主山과 그에 대한 客山이 마주하고 앉은 사이의 책상이라는 의미의 案山이라 한다.

○ 朝山은 朝對山이라고도 하며 穴앞에 있는 高대한 山으로 주인에 대한 손님, 임금에 대한 신하의 比喻로 主山에 대칭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 明堂

青龍과 白虎등 砂에 둘러싸인 穴前의 땅을 明堂이라 한다. 이때 穴 바로

앞의 平坦한 땅 특히 山所의 경우 墓板, 住居地의 경우 主建造物의 앞뜰을 内明堂이라 하고, 이 보다 더 앞쪽으로 内明堂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平地를 外明堂이라 부른다.



穴과 明堂과의 關係

□ 得, 破

穴, 四神 또는 内明堂의 양측으로부터 흘러 내리는 水流의 發源處를 得이라 한다. 得이 靑龍과 白虎가 拱抱하는 즉 明堂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破 또는 水口라 한다. 혹은 穴에서 그 흐름이 보이는 水流를 得, 보이지 않는 것을 破라 하는 경우도 있다.

□ 坐向

穴의 中心, 즉 住居의 경우 主建造物이 선자리, 陰宅의 경우 棺이 묻힌 壙中을 坐로 하여, 坐에서 正面을 바라보는 방위를 向이라 한다. 따라서 坐向은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된다.

□ 局

血과 砂가 합한 곳으로 陽宅이든 陰宅이든 하나의 취합 규모를 이룬 것을 局이라 한다.

□ 來龍

1局 1血에 이르기까지의 龍脈에 이름지은 것인데, 血 뒤편의 山勢를 의미한다.

[參 考 文 獻]

- 忠南道教育委員會 「우리고장 忠南」(上·下卷), 1988
- 公州郡 「공주의 산하」, 1981
- 公州郡 「公州郡誌」, 1979
- 論山文化院 「놀피의 傳說」, 1988
- 鷄龍出張所 「鷄龍小考」, 1991
- 天安文化院 「天安의 옛 地名」, 1989
- 青陽郡 「地名과 傳說」, 1981
- 建設部 國立地理院 「地名由來集」, 1987
- 扶餘郡 「扶餘郡誌」, 1987
- 保寧郡 「내고장 保寧」, 1983
- 최문휘 「忠南土俗地名辭典」, 1988
- 박춘석 「瑞山の 地名」, 태안여상·향토문화연구소, 1988
- 이원순의 9名 「韓國의 傳統地理思想」, 민음사, 1991
- 김기빈 「韓國의 地名由來」, 1989
- 김기빈 「韓國地名の 神祕」, 1989
- 舒川郡 「舒川郡誌」, 1988
- 牙山郡 「내고장 傳統가꾸기」, 1991
- 建設部 國立地理院 「韓國 地名요람」, 1982

- 溫陽市 「溫陽市誌」, 1989
- 牙山郡 「牙山郡誌」, 1983
- 安市市 「安市市誌」, 1987
- 天安郡 「歷史의 現場」, 1991
- 禮山郡 「禮山郡誌」, 1987
- 唐津郡 「唐津郡誌」, 1983
- 최길성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 최창조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 1990
- 한글학회 「韓國地名總覽」(忠南篇 上·下), 1974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0
- 忠淸南道 「地方行政地名史」
- 錦山郡 「금산산하(錦山山河)」, 1982
- 禮山郡 「내고장 禮山」, 1987
- 唐津郡 「唐나루의 脈絡」, 1990
- 保寧郡 「保寧郡誌」
- 天安郡 「天安郡誌」, 1984
- 瑞山文化院 「瑞山民俗誌」, 1987

忠南地名由來集

1991 年 12 月 日 印刷

1991 年 12 月 日 發行

發行：忠 清 南 道

編輯：開 發 擔 當 官 室

印刷：協 成 文 化 社

☎ 627 - 8999

[非賣品]



